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 공학석사 학위논문

# 건축 공간을 생성하는 부분의 통합적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parts' to generate architectural space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백 선 경

# 건축 공간을 생성하는 부분의 통합적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parts' to generate architectural space

지도교수 김 광 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백 선 경

백 선 경 의 공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원정	}		
부위원정	<u>}</u>		
위 육	<u> </u>		

### 국문초록

# 건축 공간을 생성하는 부분의 통합적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백 선 경 지도교수 김 광 현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공간 및 형태 생성에 있어 두드러지는 핵심 화두가 바로 통합적 개념이다. 이러한 '통합'에의 추구의 근간은 획일화, 대량 생산이 유발하는 관계의 부재와 단절을 극복하려는 데에 있다. 이는 닫혀지고 머무른 상태보다는 열리고 관계함을 지향하는 태도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내는 장소로서 건축과 도시의 그릇을 키우고자 하는 일이다.

통합적 건축을 구축하는 일은, 즉 연합하고 관계하도록 하는 의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의 근간에는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곧, 부분이 상호 작용하며 관계해 나가는 하나의 조직적 체계를 통해, 단지 형태상의 유연성이나 이미지로서 파악되는 통합적 건축의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이상학적 관점이나 감각의 차원보다는,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으로부터 파악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건축가가 공간의 '부분'을 구현하며 이의 관계 방식이 가장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평면 구성상에서

살펴보았다. 현대에 이르러 통합성이 구현되는 양상은, 복합적이며 유연한 형상과 흐름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특히 근대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종(種)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근대 건축 운동을 시작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차이를 살펴보며, 근대의 방식이 현대에 답습되며 드러나는 한계에 있어 당시 고찰된 관계 방식을 통해 이에 나아갈 지점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부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부분'이란, 단지 건축가가 형태상으로 구획한 방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영역(area)'을 의미한다. 이 러한 영역은 벽이나 담으로 막힌 에워싸임(enclosed)과는 다른 것으로, 주변과의 관련성 가운데 형성되는 둘러싸임(surrounded)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 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논의가 단지 감정이나 효과와 같은 형이상학적 관점에 머 물지 않고, 행위가 실제 구현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다. 건축가가 그리는 관계의 모양 속에서는, 실제 경험하는 사람과 공간 사이에 괴리가 남게 된다. 결국, 영역으로서의 부분이 실제 다른 부분과 관계하는 자체의 구현을 통 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통합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구현되는 통합에의 관계성을 "생성적 관계성"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갖는 구체적 속성과 구현 과정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때의 '생 성'이라 함은, 질 들뢰즈가 언급한 확장(generation)과 상당히 유사한 선상에 있 는 듯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부분의 생성은 이러한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속성 가운데, 각자가 갖는 정체성(identity)이 상실되지 않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르 꼬르뷔제를 비롯하여 근대 건축 운동의 핵심인 CIAM은 당시 복잡한 사회 양상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에 그들이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부분을 인식하는 일련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은 시스템이나 흐름 속에서 자유롭기보다는 종속된 것으로 해석되며, 결과적으로 부분 자체로서의 생성이기보다 기능이나 형태로 규정되어 머물게 된다. 반면 미스반 데어 로에는 이러한 근대 건축의 양상이, 보편적이기보다 사실상 특정적인 것

을 일반화시킨 전체주의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보편성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형성 되는 객관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평면 구성상 에서 공간을 구현한 양상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그는 근대 건축이 보인 모든 규 정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에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무한히 확장하고 흐르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루이스 칸은 계속해서 룸(room)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룸(room)으로 형성된 공간 구성이 르 꼬르뷔제의 방과, 또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과는 다른 것임을 언급한다. 즉, 근대에 새롭고도 혁신적인 전체주의적 양상이 결국 방들을 형태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일련의 시스템이나 흐름을 부정하고 마치 해체된 부분을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듯한 미스반 데어 로에의 공간에서는 오히려 최소한의 단위로서의 영역(area)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루이스 칸의 룸(room)이란, 단지 기능(use)이 아닌, 중심성을 가지고 관계가 일어나는 거주(dwell)에 대한 감각이다. 또한 모든 것이 해체되어펼쳐진 상태가 아닌, 둘러싸임으로써 구현되는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칸의 이러한 작업 선상에서 특히 현대에 유효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 바, 이에특히 룸(room)을 통한 영역의 물리적 구현과 이들의 관계가 사용자에 기반한 유보 공간으로 형성됨으로 생성적 속성을 갖게 되는 것에 집중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 곧 장(場)으로서 이는 단순히 물질적 배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일 뿐만 아니라, 머물며 관계하고 대화하는 경험을 일으키기 도 소멸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과 이들의 관계성의 고찰에 의거한 통합적 방법론의 연구를 통하여, 곧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할 관계에의 경 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요어: 부분, 영역, 관계성, 통합, 정체성, 유효성

학 번: 2011-20593

#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v
그림목차	vi
표 목 차	ix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3 연구의 흐름	7
2.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찰	9
2.1 부분에 의한 구축	11
2.1.1 구성 방식의 차이	11
2.1.2 부분의 관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14
2.2 부분에 대한 규정	18
2.2.1 부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
2.2.2 건축 공간에서의 부분	21
(1) 경험적 주체	
(2) 영역(area)으로서의 부분	
2.2.3 부분의 생성적 관계성	26
2.3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변화	33
2.3.1 부분의 완결성과 기계주의적 관점	34
2.3.2 부분의 불확정성과 생성적 관점	37
3.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공간 구축과의 관계	41

3.1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42
3.1.1 르 꼬르뷔제와 스미슨 부부;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차이 43
3.1.2 르 꼬르뷔제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보편성의 차이 54
3.1.3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space)과 칸의 룸(room); 부분의 영역성 ·· 61
3.1.4 알도 반 아이크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논의 69
3.2 평면 구성상의 특징과 유형화 76
3.2.1 완결적 부분의 조합 78
3.2.2 해체된 부분의 재조합 83
3.2.3 부분과 관계성에 대한 재인식: 부분의 영역성과 생성적 관계성 86
3.3 소결 96
4.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성 방안 99
4.1 현대 건축의 통합성의 한계와 모색 101
4.1.1 현대 건축의 양상 101
4.1.2 한계와 모색 방안 110
4.2 룸(room)을 통한 부분의 영역성 114
4.2.1 루이스 칸의 룸(room) ····· 115
(1) 부분의 영역성: 룸(room)의 물리적 구현
(2) 생성적 관계성: 사용자의 "Availability"
4.2.2 룸(room)의 형성과 공간 구성 방법 121
(1) 영역의 형성: 제1 유니테리언 교회
(2) 영역의 경계: 골덴버그 주택
(3) 영역의 관계성: 트렌톤 바스하우스와 피셔 주택
4.2.3 현대 건축에 있어 룸(room)의 의의 133
4.3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성 136
4.3.1 현대 건축의 영역성: 비경계적 영역 구성 사례 136
4.3.2 사용자의 "Availability"을 포함한 관계성 사례 ······ 143
4.4 소결 148
5. 결론

참고문헌	 154
Abstract	 157

# 그림목차

- [그림 2-1] 요소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의 차이
- [그림 2-2]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Modulor) 스케치
- [그림 2-3] 파르테논 신전의 비례
- [그림 2-4]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행위가 발생하는 구분된 영역
- [그림 2-5]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영역 간의 관계성과 경계의 영역성
- [그림 2-6]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유동적인 영역성
- [그림 2-7]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유동적인 중심을 갖는 영역성
- [그림 2-8]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사람을 통한 상호 관계성

- [그림 3-1] Ville Contemporaine Plan for Paris, 1922
- [그림 3-2] "CIAM grid" 구성 작업, 1947
- [그림 3-3] 르 꼬르뷔제가 구축하는 전체적 형상
- [그림 3-4] <빌라 사보아> 단면에서 보이는 르 꼬르뷔제의 '산책로'
- [그림 3-5] 르 꼬르뷔제의 4구성 주택 스케치
- [그림 3-6] 르 꼬르뷔제의 "CIAM Grid" (1947)와 스미슨 부부의 "Urban Reidentification Grid" (1953) 작업 비교
- [그림 3-7] 르 꼬르뷔제와 스미슨 부부의 도시 계획 비교
- [그림 3-8] 스미슨 부부, "Urban Reidentification Grid" 로 생성되는 도시, 1952
- [그림 3-9]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업에서 보이는 전체 바닥의 그리드
- [그림 3-10] 에스터스 주택, 1927-30
- [그림 3-11] 볼프 주택, 1926
- [그림 3-12] 투겐타트 주택, 1928-30
- [그림 3-13] 레조 주택, 1938
- [그림 3-14] 벽돌 전원 주택의 평면도
- [그림 3-15] 울리히 랑게 주택, 1935
- [그림 3-16]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업에서 보이는 내부와 외부 관계
- [그림 3-17] 르 꼬르뷔제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평면 비교
- [그림 3-18] 루이스 칸의 룸(room)을 설명한 스케치, 1969
- [그림 3-19] 루이스 칸의 스케치에서 보이는 룸(room)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 [그림 3-20] 룸(room)의 중심성
- [그림 3-21]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루이스 칸의 부분을 구성하는 차이 비교
- [그림 3-22]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부분 간 관계성의 차이 비교
- [그림 3-23] Lost Identity, grid for CIAM 10
- [그림 3-24]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공간에 대한 탐색 작업
- [그림 3-25] 부분의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는 작업
- [그림 3-26] Otterlo Circles
- [그림 3-27] 부분에 대한 인식과 구성 방법의 분석 틀
- [그림 3-28] <빌라 사보아>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3-29] <헬스 하우스>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3-30] 평면 다이어그램, 완결적 부분을 조합함으로써 구성
- [그림 3-31]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3-32] 평면 다이어그램, 부분의 영역성을 해체하고 이를 재조합함으로써 구성
- [그림 3-33] <도미니크 수도원> 계획 과정, 1966-68
- [그림 3-34] <도미니크 수도원>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3-35] 알도 반 아이크의 부분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 작업

- [그림 3-36] <암스테르담 시림고아원>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3-37]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에서 보이는, 부분의 생성적 관계성
- [그림 4-1] <LF 1>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4-2] 자하 하디드의 <LF 1>과 리차드 노이트라의 <헬스 하우스> 평면 구성 비교
- [그림 4-3]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4-4] 프랭크 게리가 구축하고자 했던 이미지
- [그림 4-5]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4-6]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계획 스케치
- [그림 4-7] 토요 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바르셀로나 파빌 리온> 평면 구성 비교
- [그림 4-8]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그림 4-9] C의 영역에서 다뤄질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
- [그림 4-10] 기계주의적 관점의 완결성과 생성적 관점의 완결성 차이
- [그림 4-11] 룸(room)의 분리에 대한 스케치
- [그림 4-12] 루이스 칸의 '룸(room)' 스케치, 1971
- [그림 4-13]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일부 영역의 구성 작업
- [그림 4-14]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개념 스케치
- [그림 4-15]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첫번째 계획안, 1961
- [그림 4-16]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룸(room)에 대한 다이어그램, 1961
- [그림 4-17]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중간안, 1961
- [그림 4-18]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부분
- [그림 4-19] <골덴버그 주택>의 개념 스케치, 1959
- [그림 4-20] <골덴버그 주택> 경계 공간의 단면 스케치
- [그림 4-21] <골덴버그 주택>의 모델, 1959
- [그림 4-22] <골덴버스 주택>의 최종 평면
- [그림 4-23]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지붕 모습
- [그림 4-24]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투시도와 내부 모습, 1955-56
- [그림 4-25] <피셔 주택>의 유동적인 중심을 갖는 영역성
- [그림 4-26] <피셔 주택>의 사람을 통한 상호 관계성
- [그림 4-27] <플라워 하우스>의 평면 다이어그램
- [그림 4-28] 바닥의 굴곡을 통한 영역성의 확보
- [그림 4-29] UN Studio의 디스톨션(distortion) 작업
- [그림 4-30] <Villa NM>의 단면 모습
- [그림 4-31] <Villa NM>의 모습

## 표 목 차

- [표 2-1]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조직 방법의 차이
- [표 2-2] 도시 구성 방법의 차이
- [표 3-1] <빌라 사보아>의 평면 구성
- [표 3-2] <헬스 하우스>의 평면 구성
- [표 3-3]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평면 구성
- [표 3-4] 루이스 칸의 순환적 작업에서 연결적 작업으로의 이행
- [표 3-5] <도미니크 수도원>의 평면 구성
- [표 3-6]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의 평면 구성
- [표 3-7] 부분의 '완결성'의 차이
- [표 3-8] 평면 다이어그램, 부분과 관계성에 대한 재고찰: 부분의 영역성과 생성적 관계 성
- [표 3-9]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세 유형
- [표 4-1] <LF 1>의 모습과 평면 구성
- [표 4-2]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모습과 평면 구성
- [표 4-3]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모습과 평면 구성
- [표 4-4]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의 모습과 평면 구성
- [표 4-5] 자하 하디드의 <LF 1>과 FOA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비교
- [표 4-6] 생성적 관계성의 구현
- [표 4-7]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최종안의 평면 구성
- [표 4-8] 영역성의 확보로 인한 사이 공간의 생성
- [표 4-9] <골덴버그 주택>의 최종안의 평면 구성
- [표 4-10]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평면 구성
- [표 4-11] <피셔 주택>의 평면 구성
- [표 4-12] 룸(room)의 대칭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의 비교
- [표 4-13] 룸(room)에 의한 생성적 관계성의 구현
- [표 4-14] <플라워 하우스>의 평면 구성
- [표 4-15] <LF 1>과 <플라워 하우스>의 초기 다이어그램과 평면 구성 비교
- [표 4-16] <롤렉스 교육센터>의 평면 구성
- [표 4-17] <Villa NM>의 평면 구성

- [표 4-18] <Residential Care Unit>의 평면 구성
- [표 4-19] 전체 흐름이 부분의 영역성을 만드는 평면상의 차이 비교
- [표 4-20] <무사시노 도서관>의 평면 구성
- [표 4-21] 부분의 영역을 구축하는 차이

# 제 1 장

#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연구의 흐름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공간 및 형태 생성에 있어 두드러지는 핵심 화두가 바로 통합적 개념이다. 이러한 '통합'에의 추구의 근간은 획일화, 대량 생산이 유발하는 관계의 부재와 단절을 극복하려는 데에 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복합적이며 유연한 형상과 흐름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단혀지고 머무른 상태보다는 열리고 관계함을 지향하는 태도이고, 다양하고 복잡한일상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내는 장소로서 건축과 도시의 그릇을 키우고자 하는일이다.

근대 이후, 단절된 부분들의 극복으로서 당시 '소통'이 모든 분야의 주요 키워드로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전체주의적 특성과 맞물리며기계론적 입장에서 그에 대한 시스템적 구축이 수단이자 목표가 된다. 이는 도시환경과 구축의 문제를 주로 미학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으로 이해된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1 즉,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문제가 '전체성'이라는 모호한 키워드로서 관념론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시스템적인 구축 선상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물론 건축이란 지향하는 관념에의 표현이며, 다차원적인 우리의 삶이 담기는 장소로서이에 대한 근원적인 배경을 항상 전재하고 필요로 한다. 그러나 건축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또 이를 바라보는 해석이 그 안에만 머무른다면2, 이는 우리가경험하는 건축을 단지 관념적인 '분위기'로서 한정짓고, 이로써 오히려 건축의 '형태'에 집착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본질적으로 통합의 의의는 그러하게보이는 모습 이전에, 획일화되고 단절된 관계를 건축 속에서 다양하고도 풍부한 삶으로 이끌어 내려는 데 있는 것이다.

'통합'에 있어 이러한 관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불확정적 관계성과 유연한 흐름, 형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현대 건축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한 가치들의 수용, 이에 경계를 흐리고 모호하게 혼합함으로써 통합적 실체를 형성하는 일이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변화성을 가진 유기적 실체, 혼합되며 새로운 종(種)을 생성하는 일, 이로써 조합의 복잡성이나 유연한 형태에 귀결되기 마련이었고, 통합이란 단지 하나의 체(體)로서 드러났다. 사실상 배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본래의 통합의 속성과는 무관한 전체의 형상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리에는 실제 관계하는 욕구는 사라지고, 외적인 복합성만 추구할 욕망이남는다. 결국 포스트모던이 극복하려했던 전체주의는 사실상 그의 이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야 만다. 이에 대해 램 쿨하스는 방향성 없는 자유가 방황과 붕괴를 낳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그럴수록 인간은 통제가 가능한 경계를

<sup>&</sup>lt;sup>1</sup> 서정일,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과 미국현대도시건축, 2011, pp.15-16

 $<sup>^2</sup>$  노베르그 슐츠는 다음 글에서 루이스 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통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그가 인간의 행위가 담기는 장소로서 이를 분석한 바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공간의 구성 방식에 적용된 점에 있어, 형이상학적 분석에 큰 비중을 두어 공간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ristian Norberg-Schulz, "Kahn, Heidegger and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Oppositions, Fall 1979: 8, pp.29-47

더욱 굳건히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대 공간의 성질을 넓고 균질하여 유연한 흐름과 이벤트를 조장하는 무대로서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많은 정보가 담긴 채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no boundary)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전체주의(boundary)를 좇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sup>3</sup>

정체되어 맴도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인식의 물고리를 찾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실체가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분석에 치우쳐 파악됨으로 인해, 오히려 이미지나 형태적 측면로서만 추구되어 드러나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나아갈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건축의 실체는 곧 이를 구성하 는 물리적이거나 혹은 비물리적인 모든 부분들과의 관계성으로부터 구축되는 하 나의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다. 곧 건축의 공간 및 형태를 생성하는 통합적 방법 에의 연구는, 이러한 건축 전체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의 '부분'을 인식하고 이 들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일에서 출발한다. 실제 건축을 구성하는 단위인 '부 분'이 공간을 형성하고 통합해 나아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면밀히 분류해 보고자 한다.

건축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장(場)으로서, 구축된 그 방식에 따라 '감흥'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변화시킨다. 머물고 대화하며, 관계하는 경험을 일으키기도 소멸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의 '부분'과 이들의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사람이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부분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단지 물리적 조절만으로 그 한계에 이른 현대 건축의 통합적 행태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sup>&</sup>lt;sup>3</sup> "The ground is no more."

Rem Koolhaas, "Junkspace" , The Architect's Architect in the Architect's Time, New York Times Magazine, 2000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구축이라 함이 단지 관념적 '분위기'로서 형태상의 유연성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그러한 건축이 구축되는 과정으로부터 통합적 건축의 실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 바, 곧 앞서 밝혔듯 이러한 통합에의 화두가 두드러진 근대 이후의 사고와 건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9세기 중반, 기계의 발명이 교통과 통신으로 확장되며, 이후 이러한 획일화되고 무미건조한 일상에 진정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4 그러한 가운데 건축에 있어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고민이 이어지게 되며 특히 이의 국면인 현대에까지 이르러 주요 쟁점이 된다.

통합적 건축을 구축하는 일은, 곧 연합하고 관계하도록 하는 의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의 근간에는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곧 부분이 상호 작용하며 관계해나가는 하나의 조직적 체계를 통해, 통합적 건축의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외적인 형태나 분위기가 비슷해 보여 같은 맥락으로 분류되는 건물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부분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구현되는 관계성이 현저하게 다름이 파악되는 것이다. 이에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자체의 형태적 문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건축이 구축되는 작업과 또한 이의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피상성과 형이상학적 접근이 낳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는 범위로부터 '통합'에 대한 방법적 실마리를 얻고자 함이다. 이는 단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는가 하는 표현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다수의 건축 작업 속에서 일련의 공통적인 생성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일이다. 단순히 시대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에 국한되어 묶이지도 않는다. 즉 부분을 인지하는 방식, 또 이러한 부분이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뵐플린에 따라 이는

<sup>4</sup>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 사회와 소비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소외된 관계성의 회복과 본질에 대한 탐구, 그리고 지역주의와 맥락주의 등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Sarah Williams Goldhagen and Rejean Leault, eds. Anxious Modernisms: Experimentation in Postwar Architectural Culture, MIT Press, 2000, p.11

곧 '내적인 시각 발달을 추적' 5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건축에 있어 공간 및 형태 생성을 할 때 일어나는 지각의 방식을 분석하고 또한 이를 단순히 발달하는 과정과 결과로 이해함을 넘어서 대등한 관계로서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건축의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한다. 부분으로부터 구성하여 하나의 물리적 실체를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간 구조는 특히 부분 간의 연결하는 방식의 설정에 따라다르게 짜여지며, 더 근본적으로는 부분과 이들의 관계 방식을 규정하는 '관점'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앞서, 논의되는 '부분'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그 의미를 명확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건축 공간에서의 부분이, 무엇보다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점이다. 그럴 때에 단지 벽으로 구획된 방으로서가 아닌, 사람이 영역성을 갖는 장소로서의 부분과 이들이 관계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때의 관계적 속성을 "생성적 관계성"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이러한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확정적이기보다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임이 밝혀진다.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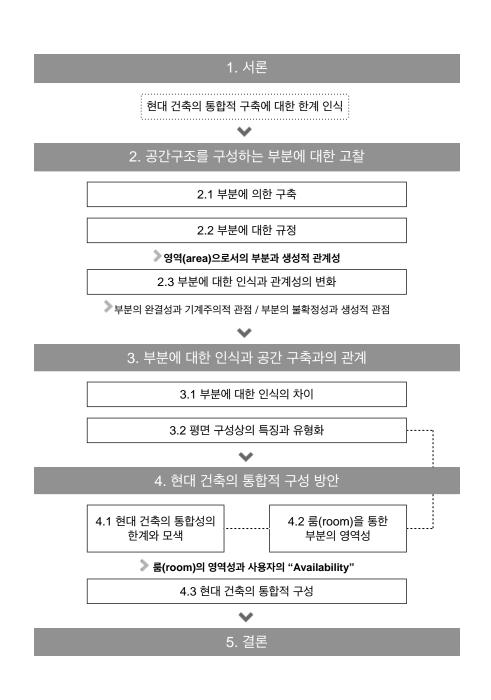
이어 3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체계가 건축의 구축에 있어 작용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건축 운동의 축을 이루는 CIAM의 르 꼬르뷔제로부터, 그가 표방하는 전체주의적 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스미슨 부부, 그리고미스 반 데어 로에와 루이스 칸에 이르기까지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파악해볼 수 있다. 특히 스미슨 부부나 알도 반 아이크, 그리고 루이스 칸이 근대의 전체주의를 극복하는데 있어 부분을 인식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분을구획되고 닫혀진 방이 아닌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영역으로서 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을 구성하는 관계성이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관계성의 차이를, 건축가가 실제 구축에 있어 일차적으로 구성하는 평면 조직상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면서 이를 제시된 분석 틀로써 범위를 파악해,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에

<sup>5</sup> 하인리히 뵐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형 역, SIGONGART, 1994, p.30

따라 분류, 분석해 볼 수 있다.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축 양상은 근대와 단절된 새로운 것이 아닌, 그 연장 선 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연한 형상을 가진 현대 건축의 공간 구조가 실상 그토 록 극복하고자 했던 근대의 르 꼬르뷔제와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형성되었거나 하는 점들이 파악된다. 곧 현대 건축이 표방하는 통합성이, 내부의 공간 구조 관 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표면적이고 형태적인 문제로 다뤄진 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4장에서는 이러한 현대 건축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아갈 방안을 모색 하는데 특히 앞서 고찰했던 루이스 칸의 '영역성'과 사용자의 '유효성(availability)'에 기반한 공간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루이스 칸의 부분에 대한 완결적 인식, 곧 '영역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대 건축의 통합성 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근본적으로 이는 부분을 묶는 전체의 시스템이나 흐름이 아닌, 각 부분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된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부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를 경험하는 사용자를 주체적으로 파악함으 로써, 보다 다른 층위에서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물리적인 조절에 그 치는 것이 아닌, 행위가 담기는 영역으로서의 부분이 확장, 관계하는 방식을 파 악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건축의 통합성에 참여하게 되는 '생성적 관계성'이 실현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함이다.

# 1.3 연구의 흐름





# 제 2 장

#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찰

- 2.1 부분에 의한 구축
- 2.2 부분에 대한 규정
- 2.3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변화

건축에 있어 '통합' 적 구축을 단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형태상의 복잡성이나 유연한 이미지로서 이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유연한 흐름의 실체로서 구축된 통합적 건축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성에 있어, 발생하는 사건들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제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이 조직되거나6 모호하게 뒤섞이는7 행태로 드러나는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건축이라 함의 실제 공간조직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류함으로써, 한계에 대한 구체적 양상을 인식하고자함이다.

 $<sup>^6</sup>$  Aldo van Eyck, "Step towards a configurative discipline, 1962",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sim}1998,$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SUN Publishers, 2008, pp.  $327{-}328$ 

 $<sup>^{7}</sup>$  "...an important amount of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has been devoted to the formless, to the indeterminate."

Alejandro Zaera-Polo, "Order Beyond Chaos" , Anybody, Cynthia C. Davidson, ed. MIT Press, 1997, p.373

실제 건축의 공간 구성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은, 건축을 무엇보다 건축가가 의도하여 생성한 창작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근원적 의도와 실제 구축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공간 구조(spatial configuration)'란 물리적이며 비물리적인 모든 부분들의구성 방식에 따라 형성된 건축의 형태적 실체를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개체가 다른 모든 개체들과 갖는 일련의 밀접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8이며, 한 건축물에서 단위 공간들이 짜여 있는 체계9로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 이러한 구성 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일은 곧 이의 단위로서의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관계성을 보는 것이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체 곧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한다. 건축가에 따라, 그리고 각 작업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는 범위가 전혀 다름이드러난다. 부분은 닫혀진 방으로서 인식되기도 하고, 아애 그 형태상의 모습이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부분을 조직해 나가는 관계성의 차이에 따라, 전체공간을 통합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건축을 사람이 관계하는 장(場)으로 파악할 때, 사람이 경험하는 부분에 대한 속성을 중심으로 이를 규정해 볼 수 있다.

<sup>&</sup>lt;sup>8</sup> Bill Hillier,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35

<sup>9</sup> 김낙중, 김진균, 루이스 칸 건축 구조에 나타나는 '공간 구조의 가시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v.17 n.07, 2001, p.99

## 2.1 부분에 의한 구축

통합적 건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 전체가 구축되는지 살펴보도록 함이다. 이에,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 이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한다. 부분으로부터 이의 구성 방식을 통해 전체의 물리적 형상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각 부분을 연결하는 방식(비례, 모듈, 구조등)의 차이로부터 부분 간의 위치나 배열, 그리고 부분 자체의 형상이 다르게 구성된다. 이는 또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건축에 있어 공간구조(spatial configuration)를 다르게 하는 그러한 근본적 차이들을 살펴보도록한다.

## 2.1.1 구성 방식의 차이

건축의 통합적 실체는, 물리적인 전체의 형상과 이미지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의 관계성으로부터 또한 설명되어져야 한다. 유연한 외부적 형상만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데에서 나아가려면, 이러한 유연한 형태가 파사드 내부와 관계하는 태도나 또한 각 부분들이 지향하는 바를 면밀하게 파악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관계란 각 부분의 개체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상이 부재하는 관계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인 부분은 특정한 관계성으로 모여 곧 전체를 이룬다. 10 건축에서 이러한 '나'와 '너', '나'와 '그'가 맺고 있는 연결 방

<sup>10</sup> 이는 마르크스가 개인과 사회를 설명한 바를 통해 그 의미를 확장적으로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는 이들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의 총합을 표시한다."라고 언급하며, 각 부분들 자체와 더불어 관계하는 특성을 살핌으로써 사회 전체가 파악됨을 설명하였다. 다음 책 참고.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김호균 역, 그린비, 2007

식, 곧 배열하는 기준의 차이로부터 그 구축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그러한 전체를 형성하는 요소와 관계성 자체를 다른 관점으로 파악함으로써 결과에 차이 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선 첫째로 구성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두 가지 요소로 하나의 둘러싸인 공간이 규정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그 연결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의 부분적 요소와 또다른 부분 사이에는 위, 아래, 옆 등의 위치, 크고 작은 치수, 삽입되거나 포함하는 상태, 그리고 유사성, 대립, 파생 등의 관계가 설정되며 이로부터 형성하는 전체의 구성과 형상 또한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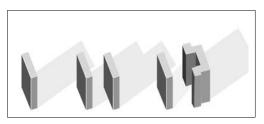


그림 2-1 요소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의 차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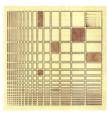
이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비례나 모듈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에서 르 꼬르뷔제에 의한 모듈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부분과 부분 간의 간격과 높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1948년 「Modulor」라는 저서를 통해, 복잡하고 극변하는 사회 속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은 곧 균일한 질서로 구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근대에는 주로 전체주의와 기계주의적 시스템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그는 '모듈러 (Modulor)'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12 이는 비례의 개념에 황금비의 중요성을 끌어내어 새

<sup>11</sup> 요소의 상호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의 차이에 대한 본 그림은, 요시노부 아시하리가 설명한 건축물의 배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참고로 하였다. 요시노부 아시하리, 건축의 외부 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2005, p.44

<sup>&</sup>lt;sup>12</sup> Stanislaus von Moos, Elements of a Synthesis, The MIT Press, 1979, p.309-313, 329

로운 단어를 부여한 것이었다.13 르 꼬르뷔제는 명확하게 규정된 전체 형상 속에서, 부분과 이들 간의 배열 관계를 이러한 '모듈'을 통해 설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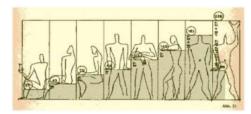


그림 2-2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Modulor) 스케치

사실 모듈러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그리스 건축의 비례에서부터 적용된 방식이다. 이는 그리스 건축의 모듈러스를 어원으로 한다. 그리스 건축에서는 기둥의하부의 굵기를 1 모듈로 할 때에, 다른 부분을 그 치수와 비례하도록 관계를 구성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비례를 통해 요소들 간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규정하여 건축 전체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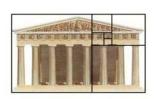


그림 2-3 파르테논 신전의 비례

부분 간의 연결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부분의 크기나 배열의 위치가 달라지며 전체를 구축하는 질서를 갖게 된다. 이처럼 부분의 구성 방식의 차이로부터 공간 구조가 다르게 짜여짐을 알 수 있다.

<sup>13</sup> 모듈(module)이란 측정 단위 또는 공작물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여기에 직사각형을 모듈로 하여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한다.

## 2.1.2 부분의 관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디자인이란 곧 완성된 전체가 무엇인가 하는 통찰로부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조직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구축된 전체로서의 건축은 물리적 대상임과 동시에 곧 이를 구성하는 관점으로부터 형성된 관계성의 실체로서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복잡하고도 총체적인 삶을 담아내는 틀로서 건축이단지 합리적인 인과 관계로 구축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서 요소들 간의 단순한 구성 방식의 설정만으로는 구축되기 힘들다. 여기서 이러한 부분과 관계를, 그리고 이렇게 짜여진 전체를 건축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설정하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러한 '관점'이, 단지 건축에서 방과 벽의 크기나 수를 조절하는 문제로 공간을 통합하는 논의에서 나아가, 건축전체를 통괄하는 내재적 질서로서 통합의 문제를 다루게 한다. 즉 부분이 다른 부분과, 그리고 전체를 형성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것이 실제 건축의 구성 방식에 있어 작용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인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곧 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그 기저에서 발생하는 '관점'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간단한 예로써 지도를 그리는 일을 생각하여 볼 때에, 공간적인 관계는 우리가 설정한 관점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관계를 그 요소로부터 발생되는 일종의보이지 않는 장(fields)으로서 구성하는 것과, 부분들 간의 실질적 연결 상태, 방법으로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 모습에 차이를 보인다.14 예를 들어 세계를 '인터넷 정보 사용량'이란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지도를 구성할 때에, 이는 기존에 각 거리가 절대적으로 계산되어 재조합된 기존의 지도와는 다른 전체 구성을 띄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개념화된 지도들이 단순히 그림이 아닌 실제로 사용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up>14</sup> 이를 장(field; 힘) 이론과 그래프(graph; 도형)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표 2-1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조직 방법의 차이





물리적 거리 계산에 의한 세계 지도와, 정보 흐름(인터넷 사용량)의 관계에 따른 세계 지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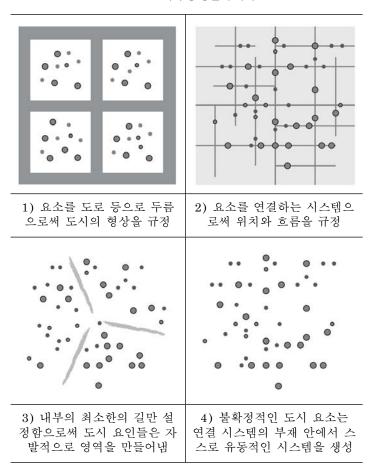


과거에 사용되었던, 실제 지형과는 다른 경험에 따른 개념화된 지도

즉 구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가 하는 관점이 내적인 질서뿐 아니라 결과적 형상을 다르게 한다. 건축의 물리적 실체 또한 이를 구성하는 부분과 그들의 관계 설정을 어떠한 관점으로 하는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전혀 다르게 된다. 형태뿐 아니라, 혹 외부적 형상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내부의 경험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 도시를 특정한 전체로서 보고, 구성하는 요소들에 있어 이를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도시 전체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점이다.15

<sup>&</sup>lt;sup>15</sup>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단지 한 두개였던 요소 관계가 수많은 요소로 확장될 때, 전체를 규정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려는 가운데 다음와 같은 구조 체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 표 2-2 도시 구성 방법의 차이



[표 2-2]의 위 그림(1, 2)은 요소를 개별적인 독립적 개체로써 인지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모이는 구성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파악해 설정함으로써 부분이 관계하는 질서와 전체의 형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 요소를 포함시키는 도로나 또는 환상 도로로 전체 틀을 규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구획된 시스템에 따라 요소들이 자리하고 관계하도록 설정된다. 두 번째는 각요소들이 관계하는 흐름과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 시작된다. 그러한 시스템의 확장으로서 전체 도시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아래의 두 그림에서 보면, 도시 요소를 비교적 불확정적인 상태로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시스템보다는 최소한의 방향 설정(3) 또는 아애 주어지는 관계성을 부재하도록 함(4)으로써, 이들의 영역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관계 가운데 전체 도시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부분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내적인 흐름 뿐 아니라 전체의 형상 또한 달라짐이 밝혀진다. 건축에 있어 그 구축 방식을 파악하는 데에는, 단순히 부분들 간의 연결 방법, 규칙을 알아내 는 이상으로 작용하는 '관점'에의 차이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건축에 있어 부분이 통합을 이루는 관계성을 단지 구성 방식의 차이만으로 다루지 않고, 그러한 차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줄기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통합 성을 논하고자 함이다.

## 2.2 부분에 대한 규정

건축은 이를 구성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모든 부분들 간의 상호 작용하는 관계성으로부터 구축되는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다. 결국 통합적 건축에의 공간 구조를 밝히는 실마리는 이를 구성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형성하는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앞서 논의하였듯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부분들 간의 구성 방식의 설정 이전에 발생하는, 관점의 차이로볼 수 있다. 부분의 형상에 대한 전재성이나 조건적 측면은 각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취한다. 시대에 따라, 부분이란 구성 요소로서 변하지 않는 원자와 같다거나, 혹은 언제나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태로서 인식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전체의 형상(form)을, 미리 주어지는 틀로서 시작하거나 또는 부분의 구성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파악하기도 한다. 부분이란 이렇듯 다양한 차원 가운데 구성, 파악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부분을 '무엇이라 볼 수 있는가'하는 관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2.1 부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부분과 이들의 관계성에 의한 결과는 이렇듯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형성되며, 이러한 관점이 단지 건축 공간에서 방이나 통로의 크기, 수를 조절하는 문제로 공간을 통합하는 논의에서 나아가, 내제적 질서로부터 통합의 문제를 다루게 한다. 본 항에서는 부분과 이들이 특정한 관계성으로 구축하는 공간 조직이 의미하는 바를 이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그 속성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 (1) 부분과 중심성(中心性)

부분(part)은 결국 복합체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다.16 전체라는 일련의 체계 내에 속하는 요소로서 다른 부분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 전체를 형성하는 관계 개념이다. 이는 부분이 단지 종속적으로 '속한다'는 개념이아닌,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분이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그것은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전체와는 별개로, 부분이 아닌 스스로 자립적인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17

이러한 부분의 속성은 결국 관념적이거나 혹은 실제 형상으로 드러난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중심'을 갖는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중심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지 형태(圖, figure)로서의 성격보다는, 어떤 영역 가운데 이를 구성하는 부분이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장(場, field)을 형성한다는 개념이다.18

### (2) 부분의 관계성와 구축된 전체

어떤 한 실체를 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부터 살펴보는 일이란, 곧 이의 체계성, 위계적 질서 및 구조의 과정을 통해 전체를 형성하는 조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하여 형성된 결과는 크게는 다수성과 다양성, 통일성과 관련된다. 각 부분들은 어찌됐든 모이는 양상이므로 구축된 결과는 다수성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부분들이 양적으로만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

<sup>&</sup>lt;sup>16</sup>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p.430

<sup>17</sup> 이승용, 건축장에서 부분과 전체 개념 및 건축 이해의 적용 가능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09 n.02, 2007. 6, p.24

<sup>18</sup> 어떤 A에 대하여 'A가 중심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보다 큰 전체에 대하여 지배적인 경우이지만, 'A가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A에 지배적인 부분을 갖는 전혀 다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건축이 중심성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외부적 형태가 아닌, 이와 분리된 개념으로서 내부 공간에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김광현, 루이스 칸 건축형태의 중심성에 관한 연구, 1985, pp.53-54

정적으로 취해지는 관계성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관점으로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sup>19</sup>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분이 관계하여 구축된 결과인 '전체'에 대한 논의에 있어, 단지 감각이나 느낌을 포함한 형이상학적 논지에 국한되지 않고 출발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전체(whole, 全體)는 결국 부분이 모인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근대의 관점에서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더해짐으로써 전체를 파악하는 경향이 컸다. 일련의 전체성(全體性) 안에서 부분이 형태, 기능적으로 완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상실되거나 부가되더라도 전체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게 된다. 각 부분들은 서로 특별한 상호 관계성 없이 총괄된 대상들의 집합으로써 이영역 내에서 총합 이외의 다른 상태를 보여 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상호작용, 다양성의 수용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현대에는 규정된전체 속에서 부분이 관계하기 보다, 부분 스스로의 유동적 상태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분들의 계량적 합이 아닌, 관계성의 방식에 따라 전체 또한 규정된다.20

결국 하나의 사물은 특정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이 담기는 장소로서 건축은 부분이 독자적인 성질보다, 이러한 관계성으로부터 형성하는 바가 중요해진다. 부분의 성질과 이들이 관계하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같은 형상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내적인 질서와 흐름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sup>&</sup>lt;sup>19</sup>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철학대사전, 동녁, 1994, pp.557-558

<sup>&</sup>lt;sup>20</sup> 최종덕,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소나무, 1995, p.41

### 2.2.2 건축 공간에서의 부분

### (1) 경험적 주체

기계가 발명되고 이것이 교통과 통신으로 확장되어 산업화가 정점에 이르는 19세기 중반 이후, 건축 및 도시가 구현하는 소통의 양상은 합리적이고 규정된 시스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었다. 이때 공간 조직상의 '부분'은, 일련의 흐름이나 형상 내에 구획,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sup>21</sup>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분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형성한 것이기 보다는, 건축가가 조직한 구성이 곧 경험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 구성을 주도적으로 하는 작업에서는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으며, 건축이 경험적이기보다 시각적인 대상에 머물러 있게 된다.

무엇보다 건축은 우리의 삶이 담기는 그릇으로서, 물리적 구성 이전에 이를 경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일로 파악되어야 한다. 곧 이러한 배경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시각적 고려에 앞서, 이른바 경험하는 신체(身體)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논리 자체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로 인식함에서, 보다 사람이 이에참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이 대상을 파악하는 '인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리는 일반 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판단은 이미 보기 전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리고 커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보고 듣도록 하여 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미 본능적인 인지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더욱 정교해진다는

<sup>21</sup> 이의 배경과 구체적인 양상은 후에 2.3에서 자세히 논한다.

것이다.<sup>22</sup> 사실상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에게는 '이미 알게되는 것(선입관)'이 생기게 되며, 후에 즉각적인 시각의 표현 만으로도 사람은 '그러할 것이다'라는 동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현대의 통합적 구축이 갖는 한계는 아마도 이러한 선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을 이루는 측면이 주로 형태나 흐름 선상에서 논의되며, 특히 이것이 유연한 이미지나 분위기, 또는 혼합해 하나가 되도록 하는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건축가가 의도한 통합의 구체적인 형상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결국 시각성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어느 정도 사용자로 하여금 '통합'에 동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인지 이전에 감각은 보다 본능적인 촉각 선상에서 작용하는데, 즉 실제 그러한 가에 대한 감각적 체험(體驗)이 실상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에 단지 인간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는 일에 그친다면, 이는 느낌이나 감성에 치우친 해석으로 자족하게 된다. 노베르그 슐츠의 다음 지적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건축과 관련된 공간 개념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추상적인 기하학을 논함으로써 인간을 제외시키거나, 혹은 인간을 논의 속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공간과 건축을 인상과 감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연구로 환원시켜 버렸다.<sup>23</sup>

노베르그 슐츠는 이러한 인간 환경의 개념,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실존적 공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물리적 구조(건축적 공간)으로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실존적 공간은, 인간에 대한 논의가 단지 감성, 느낌에 그치지 않고 체험적 선상으로 확장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곧 건

<sup>22</sup> 루이스 칸은 인간의 최초의 감각은 시각이 아닌, 촉각성이었음을 언급하였다. 태어날 때에 우리 몸을 감싸는 공간에 대한 감각은 실로 체험적인 것이다. 그는 시각이란 후에 이러한 촉각성이 구체 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건축 작업에서 또한 시각성의 구현은 그 모양새 자체로서 보다, 체험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John Lobell, 루이스 칸: 침묵과 빛, 김경준 역, 미건사, 1992, p.8

<sup>&</sup>lt;sup>23</sup> Christian Norberg-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85, p.21

축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논의는, '행위'와 연관된 것이어야하는 것이다. 노베르그 슐츠는 인간 환경이 갖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실제 구현되는 양상 사이에 체계를 그리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중심과 방향을 갖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중심은 장소로서 실존적 공간의 출발이 되는데, 즉 영역을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24 물론 그가 실제 건축 공간을 다루는 일에 있어 구체적인 조직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이의 형이상학적 해석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주변의 공간을 포함하는 영역성에 대한 그의 고찰은, 곧 앞서 언급한 형태적(시각적) 효과로서 공간을 구성하거나, 중심성을 부정하고 균질함 가운데 유동적인 영역을 생성하려 하는 작업의 한계의 극복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 (2) 영역(area)으로서의 부분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이라 함의 건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부터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때, 이는 사실상 시각적이고 논리적인 구현 방식보다, 사람이 인지하는 부분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게 된다. 특히 이 때의 인지란, 단지 감정이나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계를 이루고 구성하는 감각적 체험을 의미한다. 곧 이러한 배경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시각적 고려에 앞서, 이른바 경험하는 신체(身體)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25

아주 드넓게 펼쳐진 장소든, 조밀한 곳이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영역 (area)'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람의 영역을 공간의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비단 벽이나 바닥의 크기만은 아니며, 또한 홀로 있는다거나 무리 (crowed)를 만드는 일과도 다르다. 즉, 시각적인 크기나 형상, 또 양의 문제 이전에, 이는 '둘러싸임의 감각'이다. 이는 에워싸임(enclosed) 과는 다른 것인데, 벽이나 담으로 막힌 공간에서의 감각이 아닌, 주변과의 관련성 가운데 형성되는

<sup>&</sup>lt;sup>24</sup> ibid., pp.34-36

<sup>&</sup>lt;sup>25</sup> Karsten Harries, The Ethical Function of Architecture, MIT Press, 1997

둘러싸임(surrounded)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구현 이전에 파악되는 둘러싸임으로서의 영역은, 곧 사람이 행위할 수 있는 중심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주변과의 유동적인 관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일의 기능이 아닌, 행위로 규정지어진다. 실제 알도 반 아이크는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part)에 대해, 기능(use)이 아닌 거주(dwell)의 감각이 담기도록 작업하였다. 26 그의 작업에서 부분들의 구성 방식(how to make)이란 이후 이러한 거주(dwell)라는 영역성이 더욱정교하게 드러나는 시각적 구현을 위한 일로 고려된다. 이는 단지 설명과 논리의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실제 사람이 감지하는 바와 상당한 격리를 갖게되었던 것과는 다르다.

결국 규정된 바를 수동적으로 따름이 아닌, 사람이 주도적으로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 구성에 참여하게 되는 일인데, 이는 그렇다고 건축이 어떠한 규정, 기준이 없이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펼쳐지기만 한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영역성의 구현에서는 오히려 부분이 가지는 특정한 정체성(identity)이 사라지고, 유동적으로 부유하는 상태만 지속되도록 한다. 사람이공간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 어떠한 것도 허용하는 이미지 속에 갖히지 않게 된다. 노베르그 슐츠는 이러한 영역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규정이나 구분이 사라진 균질한 공간이 갖는 한계 속에 다시금 중심, 기준을 회복하고자 한 것인데, 환경속에 행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점함으로써 그곳이 특정한 장소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서 노베르그 슐츠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발생하는 경계의 형성이라언급한다. 27 즉, 영역성이 단지 하나의 점으로 일시적으로 점유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물리적이든 비물리적 구현이든 구별되는 장소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루이스 칸은 영역(area)을 공간(spac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이는 건축이 단지 중립적인 것이 아닌, 각각이 상대적이고 경험적인 장소로서 파악하는

<sup>&</sup>lt;sup>26</sup> Aldo van Eyck, "Step towards a configurative discipline, 1962",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SUN Publishers, 2008, p.328

<sup>27 &</sup>quot;장소에는 명백한 한계 또는 경계선이 필요하다. 즉, 장소는 그것을 둘러싼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로서 체험되는 것이다."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루이스 칸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구현하는 영역(area)<sup>28</sup>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간(space)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다르게, 균질되기보다 그 특성에 맞게 중심을 갖는 영역성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행위로 형성되는 영역이 있다면, 전혀 다른 행위로 인해 구별된 새로운 영역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sup>29</sup> 특히 이러한 영역성을 구별하는 작업은 단지제한이나 한계를 두는 것과는 다른데, 배제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로 하여금 경계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영역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의도로설정된다.

그렇다면 논의된 이러한 부분이 형성하는 통합적 구축이란 무엇일까. 앞서 통합성은 부분들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가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연결할 것인가의 구현 방식에의 고려이전, 즉 대상이 정교화되기 이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communication)란, 단지 스치기만 하면서 실상 그러해 보이도록 그치거나, 또는 내가 너가 되어버리는 일도 아닌 것이다. 이는 관계의 피상을 표현한 것에 머물러 있다. 이미 그러하다는 관계의 모양을 그리는 일에서는, 실제 경험하는 사람과 공간 사이에 괴리가 남게 된다. 결국, 영역으로서의 부분이 실제 다른 부분과 관계하는 자체의 구현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통합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구현되는 통합에의 관계성을 '생성적 관계성'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갖는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sup>28</sup>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균질한 바닥으로부터 어떠한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 확장된 영역성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가 언급한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서는 후에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sup>&</sup>lt;sup>29</sup> Louis I. Kahn, "On Form and Design, 1960",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Alessandra Latour, ed. Rizzoli, 1991, p.107

## 2.2.3 부분의 생성적 관계성

### (1) 생성적 관계성

건축 공간에서의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분이 단지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형성된 시각적 대상 이전에, 이를 경험하는 주체로부터 함께 영역성을 이루는 성 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구성하는 관계성에 있다. 통합성에 대한 구체적 파악의 실마리는 부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그 관계성 에 대한 논의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근대에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기계론적 관점 이 우세하며, 이는 부분과 구성하는 관계성을 시스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입 장이다. 후에 이러한 기계주의적 관점의 극복은,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별성과 자 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를 근대의 기계주의적 관점과 다른 선상에 있는 '생성적 관계성'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30

이에 질 들뢰즈는 근대의 전체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인 규정성에 대해, 그러한 틀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적인 관계성을 맺는 방식을 언급하였다. 바로 생성 (generation)적 관계성인데, 머무르지 않고 확장, 소통하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31 이는 각 영역이 되기(becoming)의 방식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질 들뢰즈가 자주 언급하는 시냇물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각 부분의 관계성이 혼합, 중첩되는 양상으로 구현된다. 결과적으로 주체는 사라지거나 모호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현대 건축의 통합성은 이와 유사한 선상에서, 구성하는 부분들이일시적이고 유동성으로 확장하는 되기(becoming)의 방식을 취하며 하나의 균질한 흐름과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이라 함이 곧 연합하고 관계하도록 하는 의지에 그 근간이 있음을 상기시켜 보았을 때에, 이러한 각자의 영역이 가진 정체성(identity)을 잃고 관계하는 태도에는 주체적 영역성이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의 통합성이 보이는 결정적인 한계는

<sup>30</sup> 근대 이후 이러한 대조적인 관점의 차이는 다음 2.3.2 에서 또한 자세히 다룬다.

<sup>&</sup>lt;sup>31</sup> 유정호, 질 들뢰즈의 '생성 혹은 되기' 개념을 통한 현대 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논문, 2007

이러한 부분이 특정하게 형성하는 영역성의 부재에 있다. 질 들뢰즈의 생성적 관계성에서는 각 부분들이 모호하게 뒤섞이거나 사라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체성 (identity)에 타격을 입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성적 관계성은, 이러한 부분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영역성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에 그러한 속성을 논의하고 실제 구성상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적 실마리를 얻고자 함이다.

특히 앞서 노베르크 슐츠의 언급처럼 사람이 개입되는 공간이 단지 형태상의 조절 문제로 그치거나, 또한 추상적으로 해석됨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실제 공간 구조상에서 드러나는 바를 구체적으로 보고자한 것인데, 이때의 시각적 구현은 부분이 가지는 속성이 물리적으로 정교해지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건축 공간 상에서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이들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일이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파악하고자 함이 아니며, 영역으로서의 부분이 구체화되는 과정과 이들의 통합적 관계성이 실현되는 바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건축 공간에서의 부분에 대해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이의 관계성이 건축화되어 드러나는 속성을 다음의 5가지로 파악해 볼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분류는 단지 형태상의 구성 방식을 보려는 것이 아닌, 영역으로서의 부분아 생성적 관계성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 함이다.

### (2)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 · 구분된 영역성

어떠한 구분이나 규정된 바 없이 확장되는 바닥 속에서는, 특정한 영역이 갖는 정체성(identity)을 잃게 된다. 질 들뢰즈가 언급하는 시냇물처럼 그저 흐르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적 관계성이란, 부분이 무한히 확장, 소멸하는 것이 아 닌, 적절히 구별된 장소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구별이란 단지 규정 된 방처럼 나와 타자를 구획함이 아닌, 타자를 통해 나의 존재성이 더욱 확실해 지는 경계로 볼 수 있다. 루이스 칸은 이러한 경계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건축의 영역이란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 경계에 놓인 벽들에 닿을 수 있을 때에야 이 영역을 가장 잘 알게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서로 다른 영역의 경계 지점에 닿았다는 것을알게되고, 또한 그 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영역을 비켜서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은 매우 생소했다. 거기에는 내가 그전에 보았던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을 통해서 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32

건축에 있어 사람의 행위가 담겨 특정한 장소성을 형성하는 부분이란, 흐름이 잠시 멈추게 되며 형성된다. 즉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멈춤이 구획되고 규정된 방이라던가, 펼쳐진 바닥 위에 그저 서있기만 한 것이 아닌,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장소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단지 움직임이나 행동 뿐 아니라, 특정한 장소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특정한 장소성이란, 그저 흐르는 가운데 사라지는 일시성이나, 혼합되어 섞이는 모호함을 극복하는, '정체성(identity)'이 획득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3 앞서노베르그 슐츠나 루이스 칸이 언급한대로 이때 경계는 그 내부를 위해 필수적이된다. 둘러싸임으로서의 영역을 형성한다는 것은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이 생성적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특정한행위가 발생하며, 구분된 영역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해진다.

 $<sup>^{32}</sup>$  Alessandra Latour, ed.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1991

<sup>33</sup> 건축 공간이 신체와 갖는 연관성에 있어, Bloomer와 Moore는 하나의 중심에서 다른 중심으로 신체(body)가 이동하는 가운데 정체성(identity)이 획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Kent C. Bloomer, Charles W. Moore,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1977,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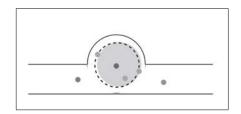


그림 2-4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행위가 발생하는 구분된 영역

### · 영역 간의 관계성

특정한 행위로 발생한 영역이 있다는 것은, 루이스 칸의 말대로 또다른 행위로 인한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한 영역은 다른 영역과 경계를 생성함으로써 각자의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며 관계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경계는 배제, 구획되는 성격으로 인해 영역성이 갇혀지는 속성이 아닌, 물리적, 비물리적인 열림을 통해 다른 영역 간의 관계성을 갖도록 한다. 이는 단지 문이 열리고 닫히며 연결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신의 위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림이며, 흐름을 유도하는 규정된 통로이기보다 사용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유보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성적 관계성에서는 각 영역 간의 소통의 주체가 사람에 있으므로, 영역 사이의 이러한 경계가 단지 선적인 의미보다 공간적인 영역성을 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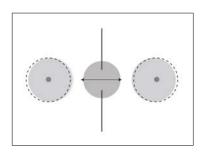


그림 2-5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영역 간의 관계성과 경계의 영역성

## • 유동적 영역성

곧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설정된 바를 경험하도록 종속되기보다, 적극적 인 참여자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부분은 단일의 기능, 전체의 시스템에 의해 구 획된 결과가 아닌, 사용자에 따라 그 성격이 보다 유연함을 허용하는 특징을 가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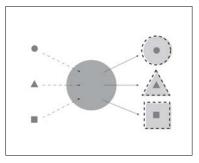


그림 2-6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유동적인 영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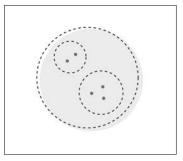


그림 2-7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유동적인 중심을 갖는 영역성

영역의 규정되는 성격은 경험하는 사람에 따르므로, 반드시 고정된 중심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 부분들이 전체 속에서 경계를 갖고 내부의 영역성을 갖는 것이지, 각 부분이 주어진 시스템에 올곧이 따르는가에 있지는 않다. 34 따라서 이러한 생성적 관계성에서는, 기하학적으로 규정된 바가 아닌, 사용자가 건축 공간의 영역 구성에 참여하게 되는 측면에서 그 중심성이 유동적으로 규정된다.

ibid., p.83

<sup>34 &</sup>quot;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공간적으로 거대 도시의 세계 내에 향하게 하는 것과 주택의 내부 세계에 향하게 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경계가 있으며 소유되고 중심을 갖는다는 감각이다."

## ·사람을 통한 상호 관계성

생성적 관계성이라 함은, 영역 간의 관계성이 곧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구획한 바로 인해 규정된 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확장 가능한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지 문이나 창문으로 열리고 닫힘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계가 또다른 영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 [그림 2-8]에서 보면, 예를들어 벽으로 부분적으로 분리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단지 분리될 뿐아니라 사물을 공유함으로써 공통된 관계 영역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제 3의 물체로 형성된 영역 자체로서도, 사람을 통해 함께 공유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즉생성적 관계라 함이 이미 규정된 틀에 따라 고정된 관계성을 갖는 것이 아닌, 사람이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관계 영역이 있음을 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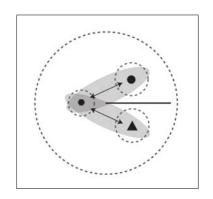


그림 2-8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 사람을 통한 상호 관계성

#### · 정황, 감각에 의한 부분의 구현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을 구현하는 방식은 단지 물리적인 구성 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정황이나 감각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이란, 단지 구획하는 벽을 조절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조절의 문제가 시각적 구현에 치우쳐 질 때, 의도된 열림이나 관계성이 실제의 경험과 무관하게 될 수 있다. 루이스 칸은 부분을 형상화하는 시각적 문제는, 그 이

전에 경험되는 촉각적 인지가 정교하게 표현되는 바로 인식했다.35 그의 룸 (room)에서 이러한 측면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단지 크기나 열리고 닫힘 등의 조절(control)에 대한 문제보다, 룸(room)이 가지는 속성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36 특히 이러한 룸(room)에 '빛'을 균질하게 비추는데, 이로써 부분이 단지 물리적인 에워싸임(enclosed)이 아닌, 주변과의 관련성 가운데 형성되는 둘러싸임(surrounded)으로 드러나도록 구현한다. 특히 현대에는 이러한 부분의 구현이, 분명한 구획성을 갖기보다 비경계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즉, 경계를 비물리화하는 것인데, 이는각 영역을 분리하는 방법이 단절된 벽이 아닌 경사 등에 의한 정황이나 유리와같은 투명성을 통한 감각적 구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행이 상당히 유연해지며, 이들 사이의 교환하는 성질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삶에 대한 수용으로서 영역 간의 특정한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 이러한 구현 방식을 통해, 단순히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 확장된 방향성을 갖게 된다.

<sup>&</sup>lt;sup>35</sup> 존 로벨, 루이스 칸: 침묵과 빛, 김경준 역, 미건사, 1992, p.8

<sup>&</sup>lt;sup>36</sup> 서정일,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빛이 '룸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97, p.75

# 2.3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변화

앞서,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란 무엇인가 하는 규정을 위해 이러한 부분과 관계성에 대해 고찰하는 가운데, 이의 의미가 단순히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갖는 개념적 특성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된 부분들의 소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서 그러한 통합성의 화두가 두드러진 근대 이후, 그리고 이의 국면인 현대에 이 르기까지 부분을 인식하고 또 이들을 구성하여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관계성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에 건축, 도시 일반에서는 관계가 단절되고 획일화된 부분의 극복으로써 통합과 소통에 대한 논의가 많은 건축가들과 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르 꼬르뷔제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서의 새롭고 깨끗한 바운더리속에, 일정한 규칙과 모듈로서 부분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의 산만하면서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다 '예술'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바우하우스의발터 그로피우스 이후 한네스 마이어는 '형식적인 접근 방식보다, 과학적인 것에 기초를 둔 건축 이론'을 도입시키게 된다. 그 이후 경제와 기능의 중요성에 근거해 논리적 분석과 시스템적 이론에 의해 디자인이 조정되는 합리적 행위의 산물로서 건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37 르 꼬르뷔제가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공간을 모두 '시스템'화 했다고 단정짓는 일은 섣부르지만, 그 이전에 이들에게서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체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지 건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운동과 사상에 깊이 있게 연관된다.

또한 근대의 전반적 행위를 아우르던 전체주의적 발상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의 극복으로서 행해진 이후 건축가들의 작업들, 그리고 불확정성에 대한 들뢰 즈의 생성적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부분과 이들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sup>&</sup>lt;sup>37</sup> K. Michael Hays, Modernism and the Posthumanist Subject, MIT Press, 1995, p.23, p.4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합적 건축의 행태를 이의 화두가 두드러진 근대 이후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파악하기로 한 바, 그 가운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관계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근대 산업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 이후, 이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20세기 초반의 대응과, 이후 좀 더 다원적 가치에의 수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 철학 전반의 양상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배경에 대하여 지각의 변화를 통찰하고자 철학, 과학적<sup>38</sup> 바탕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이론서와 선행 연구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 2.2.1 부분의 완결성과 기계주의적 관점

기계의 발명이 교통과 통신으로 확장되는 19세 중반 이후<sup>39</sup>, 획일화되고 단순화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건축과 도시 계획가들은 이에 '소통'이라는 화두로서단절을 극복하는 풍부한 관계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기드온과르 꼬르뷔제, 발터 그로피우스 등이 중심이 되어 근대 건축이라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성과를 보였던 CIAM(근대건축국제회의)<sup>40</sup>을 통해, 합리적인 건축으로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작업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1930년 브뤼셀에서열린 3번째 회의가 '합리적인 건축 요항', 또한 1951년 '도시의 핵', 1953년 '주거'라는 표제로 진행된 측면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이들이표방하고자 하는 바는 기계적이고 명쾌한 건축으로서, 당시 무질서하고도 감흥이

<sup>38</sup>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물리학적 배경을 살피도록 하였다. 물리(物理)란 그 뜻대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세계의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구성 이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부분'에 대한 통찰에 있어 이의 고찰을 참고로 하였다.

<sup>&</sup>lt;sup>39</sup> 유럽에서는 각국에 철도가 부설된 1830년대 이후, 미국은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된 남북 전쟁 이후로 파악할 수 있다.

<sup>40 1928</sup>년 결성된 '근대건축국제회의'인 CIAM은, 제 2차 세계대전 전 5회, 후에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의 작업은 근대 건축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중심에 있었다. 이 그룹은 1953년 9번째 회의인 엑상프로방스 회의와 마지막 1967년 두브로브니크 회의 이후, 기존의 건축가들과 젊은 세 대 건축가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분열, 해체되었다.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p.269

사라진 도시에 합리적인 건축으로서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41

건축에서 드러난 이러한 합리주의와 전체주의는 근대의 기계론적 사고관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물질의 구성과 관계성을 파악하는 방식에 기인하며, 당시의 물리, 철학적 사고로부터 그 지각적 근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입장의 뉴턴 역학은 이러한 기계론적 입장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소 단위의 원자들은 특정한 구조로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물질을 형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근대 철학에서는 부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결합 과정으로써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와 더불어 전체주의적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물리적 대상을 온전히 이성이 합리적으로 연역할 수 있는 세계로 여겼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의 이성적인 범위속에서 물질의 자연적 세계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조립된 전체로 파악한다. 이는 곧 전체를 아우르는 질서 가운데 각 요소가 구성되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최초로 생각한 것 중 하나는 많은 부분으로 짜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작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단 한 사람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만큼 완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잘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단 한 사람의 건축가가 설계하고 완성한 건물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옛 성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건물보다도 아름답고 또 질서 정연한 것이 보통이다.42

데카르트의 말은 이러한 방법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복잡한 전체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작은 부분들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를 하는데, 이는 곧 장소나 상황에 따라 그 조합의 행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

 $<sup>^{41}</sup>$  K. Michael Hays,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for Modern Architecture (CIAM) and the Forma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1998, p.698

<sup>42</sup> 데카르트, 방법서설,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2006, p.17

과는 다르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다. 43 이러한 합리주의적 입장은 스피노자에 의해 더 구체화되며,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이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움직인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펼치게 된다.

또한 근대에는 이러한 합리주의에 입각한 기계론적 입장으로 전체,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가운데, 형이상학적인 전체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게 된다. 이에 주창된 전체론은 마치,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이 이전의 부분들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것처럼,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결합의 법칙만으로는 전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4 곧 각 부분들이 결합하여 물리적 실체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속성으로 관계성을 통제하는 전체의 특성을 전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분'을 인식하고 이들의 관계성을 통해 전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 근대 전반을 지배하던 사고 체계는 곧 '완결성'으로 인식된다. 45 독립적 실체로서 부분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하여 구축되는 속성을 일련의 시스템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를 지배하던 사회, 철학적 배경은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장(場)인 도시와 건축이 구축되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작용한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부분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 관계하는 유동적 상태이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흐름이나 시스템 속에 자리잡게 된다. 부분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와 같은 인식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각 부분 간의 상대적인 연대보다는 주어진 자리로서 위치하며, 사실상 부분의 주도적인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에 캐네스 프램턴이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이라는 글에서 기존의 모더니즘에서는 규정화

 $<sup>^{43}</sup>$  이는 20세기 이전, 예측 가능성에 기반을 둔 서구 자연 과학의 기본 정신에서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이다.

최종덕, op.cit., pp.43-45

<sup>&</sup>lt;sup>44</sup> 남아프라카연방의 정치가였던 스무츠(J.C. Smuts, 1870-1950)는 이러한 입장에서 전체론 (holism)을 주장한다.

임석진 외, op.cit., p.839

<sup>45</sup> 후에 데이비드 하비는 근대에 변화지 않는다고 여겼던 이러한 단일적인 보편성을 의심하고 깨려는 시도가 곧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밝힌다.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역, 한울, 1994, p.60

된 부분으로부터, 구성되는 그 문법(즉 부분들이 관계되는 방식) 또한 획일적이 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46

## 2.2.2 부분의 불확정성과 생성적 관점

앞서 기계주의적 사고관에서는 부분들을 구성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구성이라 하더라도 관통하는 내부의 흐름이 명확하게 읽힐 수 있었다. 47 부분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흐름에 묶일 수 밖에 없는 전체주의적 관계성을 지향하며, 이러한 질서는 실제 발생하는 각각의 수많은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19세기 산업의 절정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수용하는데에는 유용했지만, 20세기에 있어 삶의 다윈적 특성을 수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앞선 경향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개별적인 부분들의 관계성과 보다 다양한 가치의 수용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기시작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수용에의 추구로서 규정된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는, 특히 당시 물리학과 철학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된 양자역학의 개념에근거하고 있다. 48 이는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전환이었다. 곧 어느 가능성도 모두 내포하는 성질인 '불확정성'의 개념이다. 이전의 과학에서는 물리적인 가시적 세계를 주로 다루었다면,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의 범위를

<sup>46</sup> 캐네스 프램턴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 화합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근대에 문화적 차이가 국제적인 건축 문법의 획일성으로 사라지는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에 찰스 젱크스가 이원성을 새롭게 결합시킴으로써 일원화시키는 데에 반에, 그는 이러한 이원성을 극복하는데 "저항의 건축"을 통해각 요소의 범위를 확장하고 조절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Kenneth Frampton, "Critical Regionalism: modern architecture and cultural identity",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pp. 314-327

<sup>&</sup>lt;sup>47</sup> 이승용, op.cit., p.26

<sup>&</sup>lt;sup>48</sup> 최종덕, op.cit., pp.31-34, p.185

하이젠베르크(1901-1976, 독일 물리학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곱하면 일정한 숫자보다 항상 크다는 이러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확정적 입장의 이전 과학적 체계를 새롭게 재정의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이며, 이후 현대 전반의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세계로서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엄격한 체계로서 다음 일어날 사건을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입장을 벗어나, 수많은 환경, 심리에 대응하는 확률론적(probabilistic) 입장을 취한다. 인과법칙을 따르고 우연성을 배제한 전자의 입장에서, 부분이 관계하여 구축되는 범위조차 설정할 수 없음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앞서 기계주의적 입장에서는 관계성을 맺는 방식이 결국 또다른 무언가를 배제하고 정돈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이에 후자의 입장은,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으로써 배제가 아닌 포용의 방식으로 관계성을 이루고자 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론이 극복하려한 점은 분절된 부분들, 그리고 그 사이의 극복이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단절'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였다.49

절대성보다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입장에서 그 맥을 이어가는 근대 이후의 과학과 철학에서 특히 들뢰즈의 유목론적 입장은 이후 가장 중심적인 철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질 들뢰즈가 「천개의 고원」의 제 12장의 표제를 "유목론 또는 전쟁기계"라며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 외부에 존재한다." 50 라는 말로 그 장을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는 '국가'라는 영토적인 틀을 강압적인 전체성으로 파악하면서, 유목민적 역동성, 흐름이 이를 해체하는 원동력으로보았다. 곧 전체 틀의 부재로서 부분들의 관계성만으로 유연한 흐름이 형성되며,이것이 상황에 따른 각각의 형상과 실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 감옥이라는 수단을 설명하며 사회를 아우르는 권력의 시스템과 강제성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체주의적 관계성이드러내는 한계를 '배제'라고 보았다.즉,당시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납득불가하다 판단되는 타자는 배제됨으로써 그 틀이 계속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결국 이의 대안으로 포함에 대한 폭넓은 추구를 드러낸다.51 그가 택한 방식은 곧 '경계'를 불식시키는 일이었다.

이렇듯 전체성 곧 정해진 틀과 시스템이 아애 '부재' 하는데서 출발하는 방식

<sup>&</sup>lt;sup>49</sup>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김용준 역, 지식산업사, 2005, p.3

<sup>&</sup>lt;sup>50</sup>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p.671

<sup>51</sup> 미쉘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3, p.146

이 포스트 모던에서 보이는 관계성이다. 그럼으로써 부유하는 부분의 관계하는 상태만 남도록 하는 것이다. 질 들뢰즈는 이에 도달할 목적지 뿐만 아니라 출발 지점도 없는 유목적 삶을 설명한다. 자유롭게 관계된 결과만이 존재한다. 모든 곳으로부터의 떠나며 관계함만 현존하는 상태는 곧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앞서 언급한 그의 시냇물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흐를 뿐'이다. 그 가운데 다른 시냇물과 합쳐지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며, 다른 시냇물을 탈영토화하기도(deterritorializing) 하고, 다른 시냇물에 의해 탈영토화되기도(deterritorialized) 한다. 52 이에 데이비드 하비는, 모더니즘의 보편적 완결성이 깨어진 상태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며, 이러한 유목적 상태를 각각의 부분들이 '분절화'된 것으로 설명한다. 53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 '유목적' 요소들은 각각 수많은 타자들의 다양한 정체성(identity)을 수용하는 일을 과제로 떠안는다. 단지 연관성 없는 대상들이 부유하는 상태가 아닌, 진정한 의미로서 부분들의 관계가 발생하느냐가 이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불확정적인 관계성에서, 부분은 특정한 기능이나 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비완결적 특성을 띈다. 시냇물이 만나고 흩어지는 모습에서는 관계성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미리 전재된 바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축에서는 근대에서 보인 특정한 시스템, 유도하는 흐름이 사라진 채, 부분혹은 부분의 관계성이 모두 예측 불가능한 확장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근대의 기계주의적 관점은 보다 생성적 관점에서 관계를 맺으려는 것으로 이행되었다. 완결적 부분을 기계주의적 관점으로 구성하는 양상에서 생성적 관점으로 관계성을 맺도록 하는 전환은, 단지 구성 방식이 바뀌는 차원이 아닌 행위의 주체를 상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구성 논리에 따라 건축의 각부분이 설정, 경험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전제된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각각의 부분이 스스로 유동적인 관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축은 우리의 삶이 담기는 그릇으로서, 물리적 구성 이전에 이를 경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일이다. 따라서 생성적 관계성으로의 이행은,

<sup>&</sup>lt;sup>52</sup> 질 들뢰즈, op.cit., p.55

Andrew Ballantyne, 건축과 철학: 들뢰즈와 가타리, 송규만, 장정제 역, Spacetime, 2010, p.13

<sup>&</sup>lt;sup>53</sup> 데이비드 하비, op.cit., p.113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논리 자체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로 인식함에서, 보다 이에 참여, 구성하는 주체로서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태 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생성적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확장하거나 각 부분이 혼합, 중첩되는 관계성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통합을 이루는 생성적 관계성은, 실제 관계를 이루는 속성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삶의 다양하고도 불확정적인 면을 수용, 관계하는 방식이 목적없는 부유함이거나 구별없는 모호성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규정되는 영역이 관계를 통해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제 3 장

#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공간 구축과의 관계

3.1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3.2 평면 구성상의 특징과 유형화

3.3 소결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의 차이를 고찰하며, 특히 근대 이후이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분을 기능적, 형태적으로 완결체로서 파악하고 이를 기계주의적 관점에서 관계성을 정의하던 근대 전반의 흐름과, 이후 부분을 불확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들이 정해진 시스템에 맞게 내정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생성의 방식으로 관계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제 건축의 구축 양상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이드러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련의 사건과 작업들을 파악해봄으로써 앞서 기계주의적 관점과 생성적 관점이 건축의 공간 구축에 있어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보는 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현대 건축에 드러난 형태적 통합의 한계를 극복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3.1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앞서 언급했듯 모더니즘은 이전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종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분을 인식하고 그러한 부분이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지점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나 건축가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건축가의 작업일지라도 작품에 따라 다르기도하다. 이의 구획을 시기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본 연구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수많은 건축 작업을 본 연구에서 모두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밝힌대로 근대의 핵심적인 건축 운동이었던 CIAM과 이의 주요 인물인 르 꼬르뷔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에서 출발한다. 특히 르 꼬브뤼제 자신이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의 구축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키워드를 언급한 바, 이에특히 복잡한 도시 속에 소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가 행했던 도시 계획과 <빌라사보아>의 평면 및 단면 구성을 통해 이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도시 계획의 구성에 있어 CIAM의 젊은 건축가들 중 하나였던 스미슨 부부를 통해 인식의 전환점이 발견된다. 이는 인간이 구성된 바를 따르는 것이 아닌, 도시를 구성하는 주체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르 꼬르뷔제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보이는 기계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언급한 보편성과는 또다른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스미슨 부부가 취한 생성적 관점이,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에서는 경계가 부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2장에서 논의했던 생성적 관점이 부분을 비완결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영역으로서의 완결체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바를 바탕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루이스 칸은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을 구획이 아닌 행위로 점유되는 룸 (room)으로서 파악하며, 이것이 르 꼬르뷔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부분과 다른점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성은 사용자에 기반한 스미슨 부부나 알도반 아이크가 취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선상에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성을 맺는 방식에 있어 양 극단에 있는 르 꼬르뷔제와 미스 반 데어

로에와는 다른 계층에서 부분을 논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 3.1.1 르 꼬르뷔제와 스미슨 부부;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차이

### (1) CIAM과 르 꼬르뷔제; 건축가의 전체주의적 이상

근대 산업의 정점이 지나 도시 속에서 드러난 획일화와 무미건조한 관계성의 한계에 대해 20세기 초반의 건축 및 도시 분야의 대응은 결국 이를 구성하는 부 분을 좀 더 '소통' 하도록 관계짓는 일이었다. 앞서 밝혔듯 이에 결성된 CIAM의 작업을 통해 당시 상황 속에서 근대 건축이 취한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1928년 이후 전후 포함 총 10차례의 모임을 가지며 당시 사회 속에서 제 안된 도시 계획의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작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르 꼬르뷔제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특히 그가 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관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933년 아테네에서는 CIAM의 4차 회의가 '기능적 도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당시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곧 아테네 헌장인데, 이를 통해 당시 도 시 건축을 구축하려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54</sup> 이는 도시를 구성 하는 요소들을 주거, 노동, 보양이라는 3가지 기능으로 분리하고, 제 4의 기능인 교통에 의해 이들이 결합되어 전체 도시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sup>^{54}</sup>$  K. Michael Hays,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for Modern Architecture (CIAM) and the Forma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1998, pp. 698-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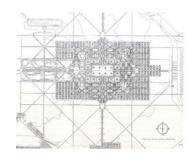




그림 3-1 Ville Contemporaine Plan for Paris, 1922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규정된 일련의 시스템에 따라 관계성을 맺는 것이다. 그 시스템에 따라 부분들이 위치되며 그 성격 또한 설정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르 꼬르뷔제는 구체적으로 격자 체계(grid)를 적용하여 개인과 집단 간의, 도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 "CIAM-grid"는 규정된 도시 성격 내에 수평 축으로 4개에 기능에 따라, 그리고 수직 축으로 10개 정도의 항목에 따라 각 부분을 나누어 설정한다. 그에 따르면 격자 체계(grid)는 도시의 부분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틀로서, 곧 무한함을 내재한다.55 기능이나 형태로 완결성을 띄도록 각 부분들을 설정하고 이를 균질한 시스템(grid)으로 엮는 것인데, 그 가운데 확률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예측, 구상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 타당한 도시 건축을 구현하려 한 르 꼬르뷔제의 보편주의적 특성을 잘 대변한다.

<sup>55</sup> 이는 CIAM의 제 6회 브릿지워터 회의에서 드러났는데, 기존의 도시들 그리고 많은 계획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르 꼬르뷔제의 제안으로 ASCORAL에 의해 만들어졌다.

Kenneth Frampton, Le Corbusier, Thames&Hudson, 2001, pp.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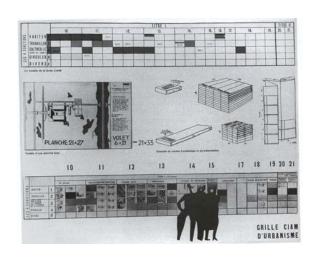


그림 3-2 "CIAM grid" 구성 작업, 1947<sup>56</sup>

또한 그 가운데 개인과 집단(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기서 개인과 집단은 구성하는 요소로서 부 분과, 이러한 부분이 모인 전체로서 파악된다. 개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적 요소들을 각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교통이라는 또다른 기능 체계가 각각을 연결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르 꼬르뷔제의 전체주의적 특성은 이러한 격자 체계(grid)로 구성된 도시 계획뿐 아니라, 그가 밝힌 통합에 대한 언급과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그는 대부분의 건축 작업을 통해 전체성에 대한,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개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관점을 드러내었다. 르 꼬르뷔제의 대부분의 작업에 있어 "통합(synthesis)" 이라는 어휘는 주요 키워드로서 발견된다. 이는 그가 공간 구조를 하나의 흐름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었다.

<sup>&</sup>lt;sup>56</sup> 기능에 따라 분류된 각 도시의 요소들은, 일련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적 도시를 구현하게 된다.

Eric Mumford,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The MIT Press, 2000, p.181

새로운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개념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축과 통합의 정신이다.

...통합을 향하여. 건축에 있어 20세기의 결과는 원칙에 대한 추구로서 나타났다.<sup>57</sup>

특히 르 꼬르뷔제가 통합에 대한 선언 후, 2년 후 열린 CIAM의 브릿지워터 회의에서 다양한 예술 전반(건축, 회화, 조각)에 있어 조화의 방식을 제안한 점을살펴볼 때, 그가 취하는 관계의 방식을 파악해 볼 수 있게 된다. 회의 1년 후에쓰여진 르 꼬르뷔제의 글에서 그는 "Unity"라는 어휘로서 이를 설명하는데, 각부분은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작품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르 꼬르뷔제가 인식한 총체적이라 함은, 하나의 순수한 상태(pure thing)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복합된 상태로 존재함이 아니었다. 그는 각각의 구성된 요소들을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부분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다른 차원과 기능의 부분들은, 마치 시(poetry)처럼 그러한 총체적 예술 안에서 일정한 운율과 흐름을 가지고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58

즉 르 꼬르뷔제는 전체 속에 개체로 사고하였다. 부분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 시스템에 의해 구획, 배치된다. 59 기능이나 형태로서 고유한 특성을 갖는 개체들은 상당히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하기보다 온전하고도 완벽한 '전체' 안에서 역할하게 된다. 대부분의 그의 작업에서 볼 수있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감싸는 전체의 형상은 수평선을 드러내는 입구의 모습과

<sup>57</sup> 르 꼬르뷔제에게서 "통합(synthesis)" 이란 표현은 1920년 「새로운 정신(L' Espirit Nouveau)」의 발간호의 서문에서 처음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분명한 개념(clear concept)'으로 여러 요인들을 합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전후 재구축의 요구가 상당한 도시의 상황 속에서, 르 꼬르뷔제는 1945년 「Volontes」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붙이며, 다시금 이어휘를 상기시키게 된다.

Stanislaus von Moos, Elements of a Synthesis, The MIT Press, 1979, p.279

<sup>&</sup>lt;sup>58</sup> ibid., p.279-280

<sup>&</sup>lt;sup>59</sup> ibid., p.283

절대적이고 순수한 완전체로서 깨끗한 백색의 외부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60





그림 3-3 르 꼬르뷔제가 구축하는 전체적 형상 (left: 빌라 사보아, right: 바이젠호프 주거단지)

그러한 전체적 형상 가운데 건축 내부 공간을 경험하는 일은, [그림 3-4]의 <빌라 사보아> 단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련의 흐름을 따라 각 부분을 '산책'하도록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저서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에서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개별적 개체로서의 부분과, 이들이 구성되어 형성하는 전체와의 관계를 밝혔다. 부분이 전체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관계를 갖는 것은 곧 능률적인 구조체인데, 이의 근거로 마치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근대적 기계를 예로 든다. 61 그의 유명한 아포리즘으로 상징되는 신선한 기계 미학, 즉 기술이 지향하는 바대로 건축 또한 효율적이고 기능적일 것을 주장한다. 곧르 꼬르뷔제의 통합은 이미 어떠하리라고 전재된 전체 속에서 행해진다. 부분은 기능, 형태적으로 완결되도록 하며, 그러한 각 부분들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과 흐름 속에 위치, 역할하는 형상인 것이다.

<sup>60</sup> 르 꼬르뷔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메세지를 흰색의 외부적 형상을 통해 드러낸다. 이는 그가 절 대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전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었다.

민치윤, 르 코르뷔제 건축의 '흰 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9 앞선 연구가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지향이 흰 벽을 통해 드러내었음을 밝히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 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르 꼬르뷔제가 부분, 그리고 이의 구성 방식에 대해 취한 관점으로부터 드러 나는 것임을 논하고자 함이다.

<sup>61</sup> 르 꼬르뷔제,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녁, 2002, p.114, pp.123-157



그림 3-4 <빌라 사보아>의 단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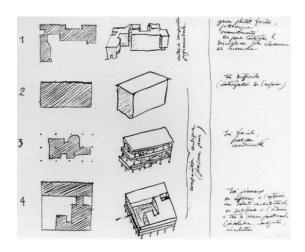


그림 3-5 르 꼬르뷔제의 '주택의 4구성' 스케치

르 꼬르뷔제의 '주택의 4구성'스케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부분 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전체의 구성과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규정된 형상과 흐름에 맞게 부분은 후에 구획, 분할되는 양상이었다. 중요한 것은 르 꼬르뷔제가 부분을 구성해 나가는 물리적 방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러한 관점이 시사하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점인데, 그는 인간을 위한 도시를 표방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간에 대해 공간을 경험하고 구성해가는 주체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이 담기는 장소로 부분을 인식하기보다, 건축가가 규정하는 시스템적 체계와 상황에 종속되어 경험하는 대상으로서 이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62

<sup>62</sup> Eric Mumford, op.cit., p.79

# (2) 스미슨 부부; 개별적 다원성에 기반한 공간 구성

계속해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앞서 그러한 합리적인 시스템은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삶, 곧 예외성을 수용하지 못함이 지적되기 시작하는데, 건축에서는 특히 이러한 변화하는 접점의 시기와 움직임을 TEAM10에 의한 CIAM의 해체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63 특히 당시 그러한 변화하는 시점에 있어 CIAM의 젊은 세대였던 스미슨 부부가 도시를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기존의 기능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다음 글에서 이를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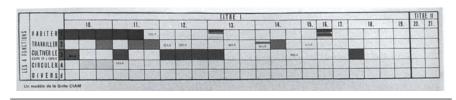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에 대한 꿈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기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약간의 미학적 기교들이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목표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64

앨리슨 스미슨은 구체적으로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에 대해 언급함으로 써 당시 작업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 규정된 관계성으로 구축된 건축은, 삶의미묘한 사건들을 그때그때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차가운 기계와 같다고 본 것이다. 특히 앞서 르 꼬르뷔제가 보인 "CIAM Grid"의 한계 또한 지적되면서, 이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최소한의 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들 간의 동질성을 강요하고 일반화 시키려는 보편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65 즉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며,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전체의시스템에 따라 개별적 부분들의 자율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스미슨 부부는 닫혀진 기능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의 합으로 획일적인 구획만 이루어지는 도시 상을 극복하고자 한다.

<sup>63</sup> 오광석, 전후 CIAM의 거주개념과 개별성 논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21 n.05 (통권199호), 2005. 5, p.144

<sup>64</sup> Alison Smithson, ed. Team 10 Primer, The MIT Press, 1968, p.34

 $<sup>^{65}</sup>$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p.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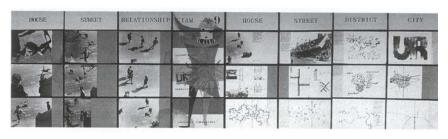


그림 3-6 르 꼬르뷔제의 "CIAM Grid"(1947)와 스미슨 부부의 "Urban Reidentification Grid"(1953) 작업 비교

르 꼬르뷔제를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적 경향에 대해, 스미슨 부부는 그러한 공간 구조 안에서는 개별적 부분들의 관계성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담기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당시 상황 속에서 개별적 다원성의 측면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축가로 볼 수 있다.66 특히 이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건축가가 의도한 바를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인간을 행위하고 구성하는 주체로 파악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스미슨 부부는 도시 계획에 있어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동일한 부분으로 파악되어 일률적으로 반복, 위치함으로써 구성되는 "CIAM Grid"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인 "Urban Reidentification Grid"를 제안하였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이 단일의 기능을 가진 완결적 요소가 아닌, 다양한 행위가 담기는 장소로서 도시의 요소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림 3-6]에서 비교된 작업을 보면, 전자는 도시의 구성 요소를 기능으로 규정하지만, 후자는 행위의 규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가 이러한도시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엮어지는 관계성을 갖는 반면, 후자는 부분이 정해진 흐름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계하도록 한다. 이처럼 스미슨

<sup>66</sup> 이는 CIAM의 기성 건축가들의 한쪽으로 치우쳐진 '보편주의적'성향에 있어, '개별적 가치'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스미슨 부부의 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광석, op.cit., p.147

부부는 르 꼬르뷔제가 마치 백지 위에 행하듯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구획으로써 각 부분을 규정함을 비판하면서, 이에 [그림 3-7]에서 보이듯 1952년 골든레인 계획안을 통해 기존의 도시 조직과 함께 공존하는 관계를 고려하는 구축 방향을 제안하게 된다. 기존 도시의 요소들과 새롭게 구상하려는 부분들 간의 관계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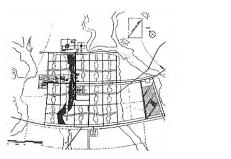




그림 3-7 르 꼬르뷔제와 스미슨 부부의 도시 계획 비교 (left: 르 꼬르뷔제, 챤디가르 계획안, right: 스미슨 부부, 골든 레인 계획안, 1952)

물론 이 작업이 실제로 풍부한 연계성을 가진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스미슨 부부의 작업은 각 부분을 인식하는데 있어, 완결적인 기능체에서, 유동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전환한 지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구축된 도시 전체 또한 다른 모습을 띄게 된다. 앞서 르 꼬르뷔제의 작업은, 이미 도시가 어떠하리라 하는 전체의 형상과 성격이 미리 주어진다. 이는 도시를 규정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해,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일괄 통제하게된다. 그러나 스미슨 부부는 도시 요소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설정되어 유동적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전체는 미리 규정되는 절대적 성질이 아닌, 각각의 상황을 조절하는 정도로서만 관여하도록 파악하였다. 이는 머무름의 장소로서의 부분이 고유하거나 침투 불가능한 절대성을 갖기보다, 유동적인 관계를 허용하는 상태로서 인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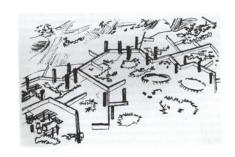


그림 3-8 스미슨 부부, "Urban Reidentification Grid"로 생성되는 도시, 1952

결론적으로 르 꼬르뷔제가 인식했던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하여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전환되는 초석을 후에 CIAM의 젊은 건축가였던 스미슨 부부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전체를 아루르는 시스템에 종속되어 단지 완결적이기만 했던 부분을, 스미슨 부부는 이에 사용자의 개별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인식하고 다윈적 가치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추구하였던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의 부재였다. 그러나완전히 전환된 양상은 아니었는데, 기존의 르 꼬르뷔제 등의 기성 건축가들의 보편주의적인 공동성의 행방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각각의 상황을 인정하여 조율되도록 하면서 강압성을 최대한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67 그러나 이러한 스미슨 부부의 작업은, 당시 기계주의적 관점에 대해 인간이 주체가되어 관계를 형성하는 생성적 관계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사고의 이행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성 건축 작업과의 조율 가운데 부분이 가지는 완결적 속성을 해체시키지 않은 측면에서 오히려 그 의의가 있다.

### (3) 인간의 교류(human association)

건축 및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의 구성 요소인 부분을 기능, 형태적으로 완결성을 띄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아우르는 르 꼬르뷔제를 포 함한 CIAM 기성 건축가들의 입장은, 이후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전환되는 양상 을 보인다. 보편 타당한 전체보다는, 개별적 다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관점의

<sup>67</sup> Eric Mumford, op.cit., pp.232-235

이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당시 다른 젊은 건축가들에 앞서, 본 연구에서 특별히 스미슨 부부의 논지를 다루는 이유는 다음에 있다.

주거, 업무, 여가, 그리고 교통이라는 4개의 서로 독립적인 영역 (autonomous zones)으로 나누어 도시를 조직하는 대신에 <u>인간의 교류</u> (human association)가 도시 계획에 있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계획가는 상황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68

부분과 이들의 관계성을 규정된 시스템 내에서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양함을 포용할 수 있는 생성적 관점으로서 규정된 형상과 시스템을 부정하는 차이를, 스 미슨 부부는 단지 그 형태를 다르게 하는 측면을 넘어서 논의한다. 이는 건축가 가 기획하고 의도한 공간 구성이 실제 경험과 무관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 간 구조를 조직하는데 있어'행위의 주체'를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특히 스미슨 부부는 "인간의 교류(human associations)" 라는 개념을 CIAM의 9차 회의를 통 해 표면적으로 드러냈다.69 이는 아테네 헌장에서 보인 기능적 도시에 대한 반발 이었다. 스미슨 부부는 도시 및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부분을 단지 기능이 담기며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대상으로서 파악함을 넘어서, 사람이 소속감을 가 지는 장소이며, 또 사람이 이웃과의 교류와 연합하는 것이 곧 건축에서 부분이 관계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인간의 교류(human associations)라는 기준으로 공간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비록 그 작업의 결과물 이 완벽히 꼬르뷔제가 취했던 시스템과 형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부분을 구 성하는 관점에 있어 단지 건축가가 규정하는 물리적 대상임을 넘어서, 이를 경험 하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장(場)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함에 그 차이를 규명하는 의의가 있다.

<sup>68</sup> Alison Smithson, ed. op.cit., p.34

<sup>&</sup>lt;sup>69</sup> Kenneth Frampton, op.cit., p.225

# 3.1.2 르 꼬르뷔제와 미스 반 데어 로에: 보편성의 차이

## (1) 르 꼬르뷔제의 보편성에 대한 한계의 인식

앞서 르 꼬르뷔제가 부분을 인식하고 공간을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 부분의 완결성으로부터 일련의 시스템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주의며 보편주의적 이상으로서 다양성과 개별적 자율을 존중하지않는 태도라는 한계점을 지적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완벽성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유기적 조직체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 모 든 사람은 동일한 요구들을 지니고 있다.<sup>70</sup>

근대의 건축 운동에 있어 합리적이고 기능주의의 축을 이루는 르 꼬르뷔제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특성에서는 건축가의 통찰과 의도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의도는, 구축된 건축 전체의 형상 뿐 아니라, 내부의 흐름을 조절하는 내적 시스템이 된다. 결과적으로 르 꼬르뷔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통찰로서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후에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객관성을 표현하는 데에서 보이는 보편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항에서는 미스반 데어 로에가 르 꼬르뷔제와 다른 보편성을 논의하면서, 이에 그가 그러한 보편성을 구축함에 있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방법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71

<sup>&</sup>lt;sup>70</sup> 르 꼬르뷔제, op.cit., pp.145-146

<sup>71</sup> 특히 이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보이는 양상이 아닌, <레조 주택, 1938>을 전후로 다름이 파악된다. 다음 목에서 논의.

주요 관심은 보편적인 본질(general nature)에 대한 질문에 있다. 특정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 그의 운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흥미거리가 아닌 것이다. 모든 분야에 있어 결정적 업적은 본질에 있어 객관적인 데에 있다.72

미스 반 데어 로에는 '특정인'의 주관적 성취가 아닌, 개인의 범위를 벗어난 익명적인 성취에서 일반적인 본질을 찾으려 한다. 73 이러한 그의 입장에서는, 르꼬르뷔제가 규정된 시스템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다고 파악한 보편성이, 사실상 격자 체계나 모듈로서 임의로 규정하는 '제한적 보편성'으로 귀결된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근대 건축 운동이 표방하는 객관성이 오히려 상당히 특정적인 것을 일반화시킴으로써 나타났고, 기능주의와 합리화가 오히려 자의적 건축에 있어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74

#### (2)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보편성

보다 다양함을 수용하는 진정으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공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르 꼬르뷔제와 근대 건축 운동의 주축을 이룬 많은 건축가들의 양상에서 보인 자의적인 전체주의를 벗어나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다수의 사람이 경험하는 건축 공간이 건축가가 의도한 결과이기보다는, 행위가 발생하는 유연한 상태이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곧 종합적인 전체성(Synthesis)을 상실시키는 작업이었다. 75 즉, 규정된 시스템을 불식시키는 일이었는데, 이에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과 이의 관계성에 대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sup>^{72}</sup>$  Mies van der Rohe, "Building Art and the Will of the Epoch!, 1924" , The Artless Word, Fritz Neumeyer, ed. The MIT Press,  $1991,\,p.246$ 

<sup>73</sup> 정황기,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명확한 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p.77

 $<sup>^{74}</sup>$  Mies van der Rohe, "Radio Address, 1931" , The Artless Word, Fritz Neumeyer, ed. The MIT Press, 1991, p.311

 $<sup>^{75}</sup>$  Jose Quetglas, "Loss of Synthesis: Mies's Pavilion, 1980 ",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K. Michael Hays, ed. MIT Press, 1998, pp.382–391

특히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한 부정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작업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 양상은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그는 구축된 건축 속에서 부분이 규정된 전체 안에서 나뉘어진 결과임을 부정하고자 했다.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구현하는 '보편적 건축'에서 이를 구성하는 부분은, 구획되고 닫혀진 방과 같거나 스스로 중심을 갖는 대표적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구축하는 시작은 우선 건축 전체의 규정된 형상과 시스템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신 넓은 바닥의 격자 체계(Grid)가 전체를 규정하게된다. 격자 체계(Grid)는 흐름을 조장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보다 객관성을 실현하는 장(field)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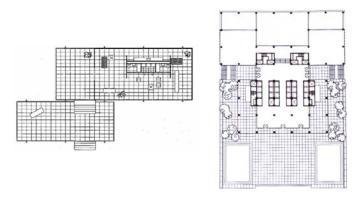


그림 3-9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업에서 보이는 전체 바닥의 그리드 (left: 판스워드 주택, 1945-50, right: 시그램 빌딩, 1954-58)

이러한 바닥에 놓이는 부분은 완결적 형태, 곧 방이 아닌 프레임(frame)이라는 해체된 요소로서 인식된다. 이 해체된 요소들이 서로 연결, 중첩함으로써 재구성되는 양상이다. 76 바닥의 그리드 속에서 프레임을 통해 부분을 특정적 형태로서가 아닌, 일부만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부분에 대한 인식(벽이 무엇인지, 열림이란 무엇인지, 바닥은 무엇이고, 천장이 무엇인지)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을 규정하는 완결성, 그 틀을 불식시킴으로써 형태나 흐름이이미 어떠할 것이라고 파악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경험을 통해 미스는 특정한 것이 일반화된 꼬르뷔제의 보편성과 대조적으로, 진정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한 객관성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sup>^{76}</sup>$  Detlef Mertins, ed. "A World in Itself: Architecture and Technology" , The Presence of Mi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74

결국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자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성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 전체 속에서 공간을 분할하여 완결된 부분을 자의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해체된 양상으로 일부만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공간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방처럼 구축된다. 그러나 이는 그의 건축 전반에서 동일하게 작용한 인식이라기 보다, 당시 기능과 형태주의를 근간에 둔 경향에 있어 초반의 <에스터스 주택, 1927-30>이나 <볼프주택, 1925-27>, <헤르만 랑게주택, 1927-30>에서는, 공간이 그 기능에 따라 분할되어 각 방들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투겐타트 주택, 1928-30>에서 거실에 대한 도면 상의 명칭 표기가 사라지고, <레조 주택, 1938>과 <판스워드주택, 1945-50> 이후 공간을 분할하는 성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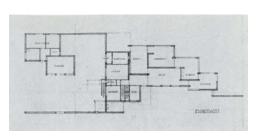


그림 3-10 에스터스 주택, 19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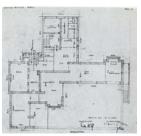


그림 3-11 볼프 주택, 1926



그림 3-12 투겐타트 주택, 19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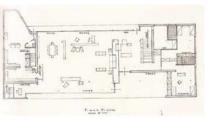


그림 3-13 레조 주택, 1938

 $<sup>^{77}</sup>$  Mies van der Rohe, "Space for the unfolding of the Spirit" , The Artless Word, Fritz Neumeyer, ed. The MIT Press, 1991, pp.186-193

이는 주택을 중심으로 분류, 파악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미스가 본래 꼬르뷔제처럼 방을 구획함으로써 구성하였다가, 후에 진정한 보편성이 드러나는 방식을 탐구하며 전환된 사실에 있다.

결국 부분은 특정한 방이 아닌 해체된 일부 요소로써 전체 바닥에 놓이며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게 된다.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러한 방식은, 사실 그 이전의 <벽돌 전원 주택, 1924>을 통해 또한 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그의 설명보다 남겨진 것은 평면도와 투시도가 전부이지만, 이의 구성을 통해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데 스틸(De Stijl)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닫혀진 방들을 전체시스템으로 묶거나 또는 전체 속 방이 구획되어 형성되는 양상으로서 구축하기보다,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 간의 경계를 없애는 일로 시작해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기능을 가진 방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들의 일부 요소들이남아 서로 삽입, 관통하는 흐름을 만들며 공간을 형성한다.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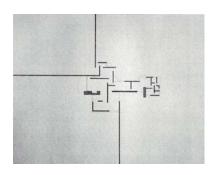


그림 3-14 벽돌 전원 주택의 평면도

이렇듯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부분을 닫혀지고 규정된 것이 아닌, 다각적 판단이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특히 건물 내, 외부를 통합시키는 일로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내부의 바닥이 외부와 맞닿는 벽을 투명한 유리로 함으로써 마치 내부가 외부로 연결되고, 또 외부의 것이 내부에 속하는 성질인 듯 인식

<sup>78</sup>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이러한 부분적 구성을 통해 보편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적 요소들이 유려한 곡선 체계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는 직선적이고 대칭적이며 또한 반복적인 형상을 취하는데, 이는 그 자신이 의도하고 기획한 결과라기 보다는 단지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설명한다.

Christian Norberg-Schulz, "A talk with Mies van der Rohe" , ibid., pp. 338-339

무엇보다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의 일부 요소들이 강한 형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편성을 이루는 데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1935년 <울리히 랑게 주택 계획안> 에서 거실과 부엌 사이에서 나타난 곡면의 벽이, 이후의 건축에서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정황기, op.cit., p.89

하도록 한다. 기존의 근대 건축이 취한 열림과 확장은, 오히려 전체주의적 틀에서 한정된 확장임을 비판하며, 이러한 전적인 투명성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규정되지 않는 유연한 관계성을 얻도록 하였다. 79 예를 들어 <투겐타트 주택>의 전면창은 외부 공간으로 열려있다. 또한 <게리케 주택>의 계획 스케치에서 확인되듯이 내부에 외부 공간이 관입됨으로써 서로의 경계가 흐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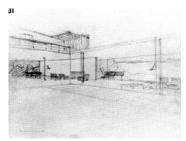


그림 3-16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업에서 보이는 내부와 외부 관계 (left: 투겐타트 주택 내부의 전면창, right: 게리케 주택의 계획 스케치)

그러나 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고려되지 않고 관조적 측면에 머무른 점에 있어 이 둘의 완전한 비경계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80 그러나 이는 물리적으로 더욱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업 양상이 여전히 시각적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내, 외부를 통합시키는 일이 '합쳐져 보이는 것'에 대한 구현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합되는 일에 참여되기 보다, 건축가가 구현한 통합성을 관조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건축가의 특수성이 아닌 개별적 다수를 포함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은 '부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상당한 전환점을 보인다. 그는 르 꼬르뷔제가 일련의 흐름과 시스템으로 부분들을 조합하여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러한 전체를 일괄적으로 묶는 특정 시스템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간을 형성하는 부분은, 짜맞춰진 자리, 형태가 아닌, 펼쳐진 바닥 가운데 자유롭게 재구성되

 $<sup>^{79}</sup>$  Detlef Mertins, ed. op.cit., p.71

<sup>&</sup>lt;sup>80</sup> 정황기, op.cit., p.59

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결국 르 꼬르뷔제가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타당한 보편성이 사실은 특정한 시스템과 흐름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특정적 보편성이라 비판하며, 그는 이에 배제로서가 아닌 상황에 따라 '정의(define)'되는 공간으로써 객관성을 획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sup>81</sup> 최소한의 규정은 관계를 풍부하게 담을 유연성을 허락한다. 그럼으로써 사용자에 따라 부분과 관계성이 다르게 '정의'된다. 이것이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생각한 보편성의 본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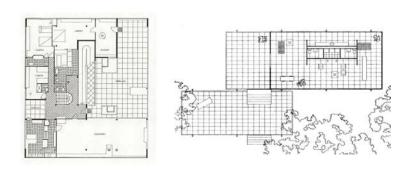


그림 3-17 꼬르뷔제와 미스의 평면 비교: 영역성의 구획과 소멸

이는 앞서 언급한 질 들뢰즈의 불확정성을 기반으로 한 생성적 관계성(generation)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시냇물이 흐르는 방식은 명확히 규정된 틀에 맞춰진 것이 아닌, 돌과 수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흩어지며 생성하고 소멸하는 속성을 띄게 된다. 이것이 물을 생명력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규정할 것은 예측된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제거한 최소한의 장(場)의 마련 뿐이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며, 이것이 모든 이에게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sup>81 &</sup>quot;The architectural space, thus achieved, becomes a defining rather than a confining space." 공간의 '부분'을 특정한 규정으로 구성하지 않는 바는, 특히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소도시를 위한 미술관, 1943> 계획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 그는 철골 프레임으로 구조 유형을 한정하고, 이에 바닥, 기둥, 지붕으로 요소를 최소한으로 한정해 건축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Mies van der Rohe, "Museum for a Small City, 1943", The Artless Word, Fritz Neumeyer, ed. The MIT Press, 1991, p. 322

# 3.1.3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space)과 칸의 룸(room); 부분의 영역성

# (1) 영역성의 부재에 대한 비판

결국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형성해 나가는 방식은, 르 꼬르뷔제가 취한 방식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 르 꼬르뷔제가 부분을 완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한 데에 반해, 그는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생성, 소멸하는 비완결성으로 보았다. 곧물리적으로 완결된 부분의 해체로부터 출발하며, 이들의 관계성을 르 꼬르뷔제는 시스템적 규정으로 설정하려는 것과 달리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건축에서 그러한 규정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유롭게 관계하는 가능성만 열어두고자 한다. 미스 반데어 로에는 공간 구성의 시작으로서 부분을 벽으로 구획되어 닫혀진 방이 아닌, 유동적 요소로서 파악해 이를 전체 바닥의 장(場)에 재구성하였다. 특히 그가 이에 영어로 'room'에 해당하는 독어 'zimmer' 대신에, 공간이라는 뜻의 'raum'어휘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루이스 칸은 후에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이러한 공간 구성을 언급하는데,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구현한 영역(area), 공간(space)이 자신의 "룸(room)"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었다.82 특히 루이스 칸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이 행위를 허용하는 관대함을 갖고 있지만, 이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을 간파해 이를 룸(room)을 통한 공간 구축의 속성으로 드러내기에 이른다.

<sup>&</sup>lt;sup>82</sup> Richard Saul Wurman, ed. "Interview with John W. Cook and Heinrich Klotz: From Conversations with Architects",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Access press, 1986, p.206

미스의 유니버셜 스페이스는 아름다운 공간이기는 하지만, 방은 아니다. 건물이 '바라고 있는 것'에서 떠오르는 영감은 없다. 또한 르 꼬르뷔지 에의 공간은 형태를 만들어 버렸다.

...사실 <u>사용자</u>가 요구하는 바은 어떤 확실한 <u>영역(area)</u>이지, 공간 (space)나 방들(rooms)은 아니다. 건축가는 사용자의 요구가 담긴 이러 한 영역(area)을 공간(space)으로 옮겨야 하며, 이때 공간(space)은 독립 체가 되어야 한다.<sup>83</sup>

루이스 칸은 르 꼬르뷔제와 미스 반 데어 로에로부터 바로 건축을 형성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그는 사용자의 요구로 발생하는 '영역(area)'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이 루이스 칸이 파악한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루이스 칸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부분의 구성에 있어 행위가 발생하는 장(場)을 형성하지만 비물리적 구현으로 일시적인 점유 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머무름이 부재하게 되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영역이 전체의 시스템 속에서 형태(shape)로 굳어지는 르 꼬르뷔제의 공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앞서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표방하는 공간(space)이 자신이 실현하려는 공간(space)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논의됨을 밝히게 된다.

공간(space)에 있어 만약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공간이 아닌 것이다. 그때 나는 이를 룸(room)이라 부르고자 한다. 내가 영역(area)이라 부르고 싶은 것을 미스는 공간(space)이라 부른다. 미스는 공간을 분할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반기를 표하는 지점이다.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간에, 미스는 항상 전체의 영역(area)를 공간(space)이라 부르고자 하였다. ...한 공간이 이미 나뉘어진 후에는, 그전체(whole)는 더이상 공간이 아닌 것이다. 나는 더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간(space)이라 부르려 한다.

<sup>83</sup> ibid., p.206

루이스 칸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에서 영역성이 최소한의 규정을 가짐으 로써 어떠한 요구로부터 실체화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모두 개별적 다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주체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이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즉 규정하는 틀의 형상의 유무로서 시각적 구현의 문제로 보았다면, 루이스 칸은 이러한 물리 적 형상이, 실제 경험되는 바가 좀 더 구체화되는 '시각화' 과정의 결과로 보았 다. 예를 들자면 내, 외부의 통합을 위해, 미스 반 데어 로에는 투명한 유리로 그 경계가 없이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루이스 칸은 그러한 내, 외부의 실질적인 통합적 경험을 구체화 하는 틀로써 물리적 동 선이나 빛 등의 감각적 체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 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이 '합쳐진 것'을 구현한 방식을 통해 시각적으 로 '그러하다'라고 동의하는 반면, 루이스 칸의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합쳐지 고 있다'라는 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미스 반 데어 로에 가 구현한 균질한 공간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된' 그 영역성이, 실제 경 험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루이스 칸은 부분이 일시적 으로 점유되는 양상이 아닌, 경계를 가진 영역성으로서 물리적으로 구체화 되도 록 한다. 이러한 속성은 그의 룸(room)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드러난다.

# (2) 영역(area)의 구체화; 칸의 룸(room)으로서의 공간

루이스 칸은 유연하고 능동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미스 반 데어 로에와 같이 부분의 물리적 완결성을 부재시키는 방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과거 근대에서와 같이 완결적으로 부분을 형성하여 일련의 시스템이나흐름으로 묶는 형상도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제 3의 구성 방식을 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목할 것은 루이스 칸은 계속해서 룸(room)<sup>84</sup>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구축해 나가는 양상에 있어 시대에 대해 선언적인 다른 건축가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sup>84</sup> 룸(room)은 루이스 칸의 건축 전반에서 재차 강조된 그의 건축의 기초적 개념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방'이라는 어휘가 가진 일반적 의미와의 혼돈을 없애고자 원어 그대로 룸(room)이라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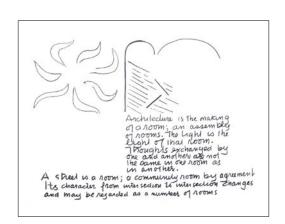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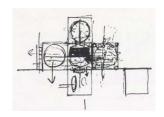


그림 3-18 루이스 칸의 룸(room)을 설명한 스케치, 1969

"건축은 룸(room)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85

루이스 칸은 위와 같은 스케치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덧붙이며 룸(room)을 언급한다. 그가 건축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의 실체를 '룸(room)'으로 인식한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루이스 칸이 '룸(room)'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언급한 것은 1971년 6월의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강연을 통해서였지만<sup>86</sup>, 이러한 독자적 부분에 대한 인식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의심할 여지 없이 발견할 수 있는 점으로 파악된다.<sup>8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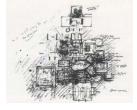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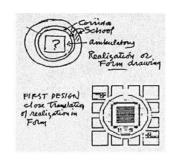
그림 3-19 루이스 칸의 스케치에서 보이는, 룸(room)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left: Adler House 초기스케치, right: Morris House 초기스케치)

 $<sup>^{85}</sup>$  "Architecture is the making of a rooms; an assembly rooms. ...The room is the beginning of architectures..."

 $<sup>^{86}</sup>$  Louis I. Kahn,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 AIA Journal vol.  $\mathbf{56},\ 1971$ 

<sup>87</sup> 그러나 이는 예를들어 <리처드 의학 연구소, 1957-61>가 <피셔 주택, 1960-67> 작업과 동일 한 '방식'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구축하는 구성 요소로서의 부분을 인식한 관점이 같다는 것이다. 룸(room)을 통한 구체적 구성 방식의 차이는 후에 자세히 다룬다.

곧 루이스 칸은 완결적 대상으로서 부분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며, 이것이 '룸 (room)'이라는 어휘로 정의된 것이다. '룸(room)'은 최소한의 요구가 구체화된 건축의 시작이며,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단위였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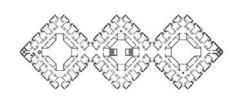


그림 3-20 룸(room)의 중심성 (left: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초기 다이어그램, right: <브린모어 대학 기숙사> 평면)

특히 룸(room)에 대한 성격은 단지 행위가 발생하는 간혀진 방이기보다, 그러한 행위로부터 건축 공간이 '중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초기 다이어그램과 <브린모어 대학 기숙사> 평면을 통해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는 커다란 기하학적 공간에 작은 공간을 내포하여, 바깥쪽에서 중심에 이르기까지 마치 양파처럼 여러 겹의 벽을 중첩해 가는 수법을 반복하였다. 이는 단지 벽으로 구획된 닫혀지고 독립된 방으로서 설정된 기존의 '중심성'과는 또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89 루이스 칸이 언급한 룸(room)은 둘러싸인 방이 아닌 일종의 벽이 분리된 상태로부터 출발하도록 하여 90, 머무름과 동시에 관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곧 룸(room)이란 한 사람이든

<sup>&</sup>lt;sup>88</sup> 김광현, 루이스 칸(4): '방(room)', 44개의 개념으로 읽는 현대 건축 19, 대우건설 기획 연재, 2000

<sup>89</sup> 특히 룸(room)의 중심성은, 단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동일성을 얻기위해 형태(figure)의 성격을 가지는 '중심인 경우'로서 보다는, 부분이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장(場)을 형성하는 '중심을 갖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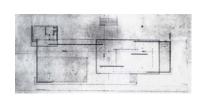
김광현, 루이스 칸 건축형태의 중심성에 관한 연구, 1985, p.54, p.57

<sup>90</sup>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후에 루이스 칸은 벽이 아닌 기둥으로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하다고 언급했다.

Louis I. Kahn, "Lecture to Towne School of Civil and Mecah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8",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chard Saul Wurman, ed. Access press, 1986, p.34

여럿의 무리든 간에, 개별적 행위가 존중되면서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91</sup>

결국 룸(room)으로서 건축을 구성해 나가는 일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중심성을 부정하고 전체를 균질하게 파악하여 공간을 하나의 방으로서 인식하려 했던 태도와 전혀 다른 선상에 있게 된다. 곧 루이스 칸의 표현대로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실현하려는 공간(space)에서는 실질적인 머무름이 구체화된 영역성(area)이부재함과 같으며, 이러한 영역을 지닌 공간이 루이스 칸에게 있어서는 룸(room)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룸(room)은 구획과 분할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내부의 자립적 의지로 형성된 최소한의 단위로 파악된다. 92 이러한 측면에서 영역으로서 완결된 부분이란, 그 장소가 각각 독특한 성격(character)을 지님을 뜻한다.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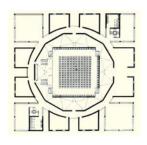


그림 3-21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루이스 칸의 부분을 구성하는 차이 비교 (left: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두번째 도면, 1929, right: <제1 유니테리언 교회> 초기 도면, 1968)

또한 루이스 칸은 이러한 부분이 모인 것이 정확히 전체의 속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그는 "계단참은 계단과 다르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계단이라는 부분들의 합이 계단참의 속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 관계성을 가지고 모임으로써 계단참이라는 전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94 특히 루이스 칸의 작업은 절대적 신의 존재를 기반으로 전체성의 추구를 내

<sup>91 &</sup>quot;It spells an association of man to man."

Louis I. Kahn, "The Profession and Education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ibid., pp.93-94

<sup>92</sup> ibid., p.95

<sup>93</sup> 김광현, op.cit., p.55

<sup>94</sup> ibid., p.55

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형상이나 시스템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부분 간의 관계가 더 큰 전체로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부분인 룸(room)은 단 지 따로따로가 합쳐져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조합적 형태를 띄지 않게 된다. 그 렇다고 모호하게 뒤섞이는 관계도 아닌데, 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성되는 과 정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도, 이러한 명확성이 단지 획일적인 방향을 유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개체인 룸(room)들은 각각 연합하려는 관계 에의 의지를 갖는데, 루이스 칸은 이를 곧 '자라남(growth)'이라고 언급한다.95 방(room)으로부터 자라난다. 이는 본질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의 표현인 형태(form)로부터 관계성을 가지고 전체로 확장된다. 룸(room)들은 서로 혼합되어 모호해지지 않으며, 관계를 가지고 전체에 속하는 가운데 사라지지도 않는다. 실제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보이듯 전체는 각 요소 간 불가분의 관계를 표명한다. 96 방의 관계는 단지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 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는 이러한 룸(room)의 관계가 곧 소통이며 대화라고 여겼다.97 룸(room)은 길로 그리고 도시로 확장되 면서 곧 풍경을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관계하는 자체에 참여 함으로써, 차단이 아닌 관계를 이루는 독립성을 갖는다.98

한편 루이스 칸의 룸(room)이 보이는 이러한 완결성은, 실제 구성에 있어 근대 건축에서 보인 부분의 완결성과 언뜻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 모두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을 완결적 대상으로서 인식하였다. 기능과 머무름, 행위가 담기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구현되는 방식에서 확연 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sup>&</sup>lt;sup>95</sup> Louis I. Kahn, "Architecture: Silence and Light, 1970",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Alessandra Latour, ed. Rizzoli, 1991, pp.248-257

 $<sup>^{96}</sup>$  Peter Kohane,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 , VIA no.10, pp.99-131

<sup>&</sup>lt;sup>97</sup> Louis I. Kahn,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Alessandra Latour, ed. Rizzoli, 1991, p.266

<sup>98</sup> ibid., p.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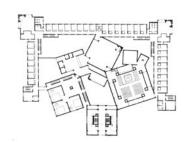


그림 3-22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부분 간 관계성의 차이 비교 (left: 빌라 사보아, 1929, right: 도미니크 수도원, 1968) ; 부분을 완결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식은 동일하게 드러나나, 이를 구성하는 관계성의 방식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 [그림 3-22]에서 이를 명확하게 비교해 볼 때, 르 꼬르뷔제는 각 기능과 형태로 완결성을 갖는 부분이, 전체를 규정하는 일련의 흐름을 따라 그 크기와 배열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루이스 칸은 부분이 그 자신의 성격에 따라 크기나 위치가 다르게 구현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주변과관계, 확장된다. 루이스 칸의 룸(room)은 단지 벽으로 구획되고 규정된 '방'으로서가 아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심성'을 갖는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루이스 칸은 르 꼬르뷔제가 구획으로서 부분의 완결성을 형성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일련의 흐름에 따라 선택, 배제되며 관계하는 양상에서는 시각화된 '형태'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가 구성하는 형태란 규정된 모양(shapce)이 아닌, 각각의 룸(room)의 관계성이 사용자가 참여하여 생성되도록하는 "form" 이었다.99 그러한 방의 관계가 곧 사람이 경험하는 소통의 관계가되며, 사람들이 머무르고 대화하는 장이 형성된다.100

결국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부정하려했던 물리적 구현과 중심성이 룸(room)으로서 다시금 회복되면서, 또한 이러한 부분의 완결성이라는 구축 양상에 있어서는 르 꼬르뷔제와 유사한 선상에 있지는 않음을 알 수있다. 오히려 부분이 확장되고, 유동적인 영역성을 가지면서 생성적 구축 양상을

<sup>99 &</sup>quot;Form is not shape."

Louis I. Kahn, "Waning to Be, 1969", ibid., p.96

<sup>&</sup>quot;Form to me is this inner image. It has no shape."

Louis I. Kahn, "On Form and Design, 1960", ibid., p.105

 $<sup>^{100}</sup>$  Louis I. Kahn,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1971", ibid., p.266

보이는데, 이때의 생성적 관계성에서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그것과는 달리 부분의 영역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속성이 아닌,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룸(room)이 보이는 생성적 관계성은, 단지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구현의 문제를 넘어서, 앞서 CIAM의 스미슨 부부가 르 꼬르뷔제를 포함한 근대의 기성 건축가들을 비판하며 드러냈던 "인간의 교류(human association)" 와도연관된다. 부분과 이러한 부분이 모이는 전체 시스템의 물리적인 유무를 논하는데에서 나아가, 사람이 구현하는 영역성이 구체화되는 문제로서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즉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맺는 관계가 건축과 함께 물리적으로 실현되고 있다.101 이러한 작업은 노베르그 슐츠의 언급처럼,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인간에 대한 논의가 단지 감상적인 효과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행위로 중심을 갖는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1.4 알도 반 아이크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논의

알도 반 아이크의 건축 작업은 루이스 칸과 상당히 비슷한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102 칸은 삶이 담기는 공간으로서 룸(room)을 통해 부분의 영역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와 유사하게 알도 반 아이크는 잃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이 실현되는 장, 곧 그의 표현에 따르면 "room for emotion"으로서 부분에 대한 고찰을 전개해 나간다. 이는 당시 루이스 칸이 영역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드러내는 룸(room)의 개념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 것이었다.

<sup>101</sup> 루이스 칸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르 꼬르뷔제나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에서는 그들 스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시각적으로 재현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how to do)보다, 무엇을 해야하는가(what to do)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건축가의 특정한 의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경험되는 바를 고찰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Louis I. Kahn, "On Form and Design, 1960", ibid., p.105-106

<sup>102</sup> 특히 루이스 칸의 트렌톤 목욕탕(1954-59)과 아이크의 암스테르담 시립 고아원(1955-60)은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방식과 확장 방법에 있어 그 관계성이 유사하게 드러난다.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Rizzoli, 1993, p.347

당시 CIAM이 해체되고 TEAM 10으로 분류되는 젊은 건축가들이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방안에 있어 전반적인 유사성이 있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근대의 기계주의적 관점에 근거할 때에 삶의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스미슨 부부는 이에 부분과 이들의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기존 CIAM과 르 꼬르뷔제의 보편주의적 성향이 개별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을 비판하며 획일적으로 부분들을 구획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조직을 통해 부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당시 "core"에 대한 언급을 통해, 기존의 근대 건축이 부분을 인식하는 방법과 상당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103 "core"란, 단지 기능적인 부분으로 독립 가능한 개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과의 관계(spontaneous reactions)를 가지며 파악되는 것이어야한다. "core"가 가진 기능적인 속성은 단지 일부일 뿐이며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알도 반 아이크는 그러한 부분이 실제 건축에서 실현되는 속성과 관계하는 방식을 "Configurative Discipline"이라는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는 기존 근대 건축에서 부분(part)이 단지 전체(whole) 속에 구성된 요소로서만 속해있는 양상을 비판하였다. 전체를 나눈 것이 부분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었다. 단지 연관성 없이 나열된 부분들의 관계에서는, 시스템적이고 일괄적인 배치 속에 양분화의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임을 언급한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고,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고, 또 너무 열려있거나 너무 닫혀진 이러한 도시, 건축 양상에서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공간감이 사라지게 된다. 104 알도 반 아이크는 이렇게 구획되고, 정형화된 배열, 그리고 단지 비어지기만 한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실제 다양한 삶이 담길 수 없는 단조로움만 남았다고 비판한다. 그가제안한 부분 간의 구성 방식인 "Configurative Discipline"의 핵심은, 이러한 삶이 담기는 부분, 곧 정체성(identity)의 회복이었다.

<sup>103</sup> 이는 CIAM의 8차 회의를 통해 언급된 개념이다.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The moment of core" ,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SUN Publishers, 2008, p.241

 $<sup>^{104}</sup>$  "What has right-size is at the same time goth large and small, few and many, near and far, simple and complex, open and closed... There is no question of right-size and hence no question of human scale."

Aldo van Eyck, "Steps towards a configurative discipline, 1962", ibid., p.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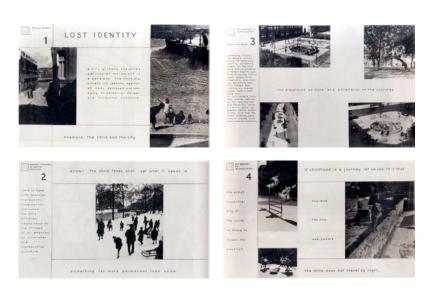


그림 3-23 Lost identity, grid for CIAM 10

알도 반 아이크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1956년 유고 드보르니크에서 '하비타트'라는 주제로 열린 CIAM의 10번째 회의에서, 아이들의 "playground"를 언급하여 제시한 판넬을 통해서였다. 그는 기계주의적 관점에서는 각 부분의 형상과 기능이 일괄적 흐름이나 시스템 속에 종속되면서 실제 삶과는 무관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에 진정한 정체성(identity)이 사라짐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각 장소가 가져야 할 고유의 특성, 사람이 머물고 행동하는 양상을 파악하여 '정체성(identity)'이 담기는 공간을 구축해야 함을 주장한다.

단지 단조롭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part)과 전체(whole)은 항상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통일성과 다양성이 서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특정한 정체성(identity)은 합쳐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정체성(identity)이 확장되게 된다. 105

정체성(identity)를 구현하는 방식은 특히 "집은 거리의 부분, 거리는 도시의 부분"이라는 잘 알려진 그의 언급을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는 도시의 모든 구성이 그러한 관계로 이루어질 것을 표방하였다. 어떤 한 도시를 구성하는 특

<sup>105</sup> ibid., p.327, p.329

성, 예를 들어 그것은 내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특정한 골격,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비물리적이거나 물리적인 특성이 도시 내부의 영역들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부분들이 정체성(identity)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었다. 여기서 부분들의 구성은 단지 전체의 시스템에 맞게 나열되거나 덧붙여지는 양상 (repetition and addition)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한 구성은 각 부분의 연관성 없는 정체성(identity), 곧 기능만 남도록 한다. 이에 알도 반 아이크가 구현한 "Configurative Disciplin"은 위계 질서(hierarchy)의 방식으로부터 출발한다. 106

도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배열 시스템으로서의 위계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지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장에 삶의 복합적인 측면이 담겨지고 확장이 일어나며, 교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운율의 변화, 리듬을 가진 것이다. 107

이러한 운율로서의 위계 질서 관계는, 결국 "in-between" 108, 곧 사이 영역 (in-between realm)에서 드러나게 된다. 단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의 기능적차이를 두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세밀한 질서 관계를 통해 그 사이에서 더욱 다양한 행위가 담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일 기능의 구획에서는 그 경계가 단지구분하는 선적 의미를 갖지만, 알도 반 아이크가 행위로 영역의 질서를 세분화한위계 질서에서는 경계가 또다른 영역성을 띄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모이는거리와 이러한 거리가 축소된 집, 그리고 그러한 집과 집이라는 부분들 사이의영역은, 단지 도로나 통로 뿐 아니라,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가 만나게 되는 장소

<sup>106</sup> 물론 알도 반 아이크가 제안한 이러한 방식이 현대에 완전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당시보다 더욱 복잡한 현대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건들, 비결정성 등이 그러한 규율 안에 담기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당시의 전체주의적이고 형태주의로 흘러가는 기성 건축 양상에 대한 비판 을, 정체성(identity)의 회복이라 언급한 점은, 현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sup>&</sup>lt;sup>107</sup> ibid., p.340

<sup>108 &</sup>quot;in-between" 개념은 마틴 부버로부터 영향을 받아, 젊은 건축가였던 루돌프 구프만(Rolf Gutmann)과 테오 만쯔(Theo Manz)에 의해 1952년 처음 소개되었다. 스미슨 부부가 이를 문지방 (doorstep)의 개념으로 확장시켰으며, 이후 알도 반 아이크가 사이 영역(in-between realm)으로 이의 개념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알도 반 아이크가 부분을 관계하는 방식을 구상하는 데 계속해서 실질적인 주요 개념이 된다.

Francis Strauven, ed. Aldo van Eyck: The Shape of Relativity, Architectura&Natura, 1998, p.264

가 되도록 한다. 타자를 확인하고, 상대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는 장소다. 이러한 장이 건축에 있어 부분을 회복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sup>10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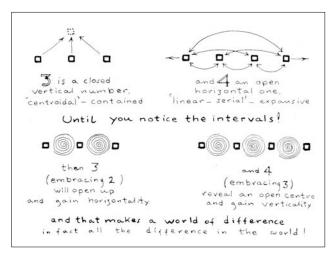


그림 3-24 알도 반 아이크의 사이 공간에 대한 탐색 작업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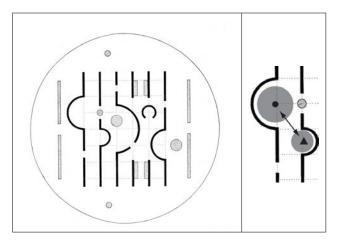


그림 3-25 부분의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는 작업 ; 부분의 영역 구성과 관계성 ([그림 2-4], [그림 2-5] 참고)

Aldo van Eyck, "Between here and there, now and later, 1960",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SUN Publishers, 2008, pp.291-292

 $<sup>^{110}</sup>$  Vincent ligtelijn, ed. "Until you notice the intervals!" , Aldo van Eyck Works, Birkhauser, 1999, p.16

실제 그의 작업에서 부분이 정체성(identity)를 획득하는 방식은 다음 [그림 3-25]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흐르기만 하거나 사라져 버리는 일시성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담기고 특정한 장소성을 형성하는 부분의 형성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영역성은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구체화된 실체와 함께 구성되며, 이때 사람이 단순히 주어진 기능으로 묶이지 않고 그 장소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각으로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감각은 앞서 칸의 언급처럼, 다른 영역 간의 관계(타자에 대한 인식)를 통해 더욱 실체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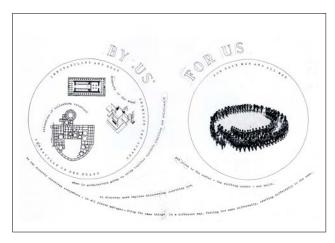


그림 3-26 Otterlo Circles 111

[그림 3-26]를 보면 서로에 대한 형상적 기반(counter-form)으로서 두 원은 각각 건축과 사회를 상징한다. 그림에서 각 원은 글씨가 적힌 선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by 'us'"와 "for 'us'"로부터 출발하는 일이 된다. 특히 건축을 상징하는 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발견되며, 이들의 연결은 전체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고려 가운데 행해지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112

 $<sup>^{111}</sup>$  'Otterlo Circles'은 아이크가 CIAM 해체 후 1959년 네덜란드 오테르로 회의에서 보인 것으로 서, 이는 서구 사회에서 CIAM이 보여주는 새로운 건축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 되었다. ibid., p.16

<sup>112</sup> 알도 반 아이크는 이러한 부분이 전체의 정체성(identity)안에서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함을, 과거의 그리스 신전을 통해 정당화한다. 오더(order)는 전체 구성 안에서 다양성과 개별적 특성을 함께 내포한다는 것이다.

ibid., p.16

결국 정체성(identity)이란,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파악이며 이는 단지 독립적 인 '기능(use)'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알도 반 아이크에 따르면 사람이 그 장소 에서 느끼는 "거주(dwell)", 곧 장소성에 대한 감각이다.113 그는 건축, 그리고 도시에 있어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일이, 단지 전체의 형태 를 구성하는 시작임을 넘어서 무엇보다 사람이 '소통(communication)'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인식한다.114 건축에 있어 부분이 구성되고 전체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개인(individual)이 모여 전체(collective)를 이루는 것과 같다. 즉, 공간 구성에 있어 부분, 그리고 이들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소통하려는 욕구를 건축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삶에 대한 고려로부터 출발하는 구성이란, 단지 수치적으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게 된다. 일련의 흐름과 시스템 속에 부분이 종속되어 기능과 형태로 규정되는 방식에서는, 연관성 없는 정체성(identity)이 그 한계가 된다. 또한 부분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규정하지 않 거나 합치거나 모호하게 구성된 공간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부유하는 상태만 남 기에 아애 부분의 정체성(identity)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극단 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한계는 부분의 영역성, 곧 정체성(identity)의 진정한 회복 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이는 단지 에워싸인 방을 만드는 물리적 문제가 아니며, 행위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둘러싸이는 감각적 실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sup>^{113}</sup>$  Aldo van Eyck, "Step towards a configurative discipline, 1962",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SUN Publishers,  $2008,\,p.328$ 

<sup>114</sup> ibid., p.334

# 3.2 평면 구성상의 특징과 유형화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 근대 건축 운동에서 보인 양상은 부분을 기능과 형태로 규정하여 이를 일련의 시스템이나 흐름으로 포괄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르 꼬르뷔제나 발터 그로피우스, 리차드 노이트라 등 이들은 전체 속 개체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르 꼬르뷔제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각 부분을 '통합(Synthesis)' 하도록 하였다. 이에 당시 젊은 건축가였던 스미슨 부부나 알도 반 아이크는 그러한 합리성으로 인해 개별적 부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배제됨을 비판하게 된다. 미스 반 데어 로에 또한 앞서 근대 건축이 보인 전체주의적 보편성이, 사실은 특정한 규율을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보편성은 최소한의 규정으로부터 실현된다고보았다. 따라서 그는 부분과 전체의 완결성을 해체함으로써, 이러한 해체된 부분의 요소들이 최소한으로 규정되도록 하여, 보다 공간이 다양한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질 들뢰즈가 언급한시냇물의 이미지처럼, 일정한 영역성 없이 공간의 경험이 일시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한편 루이스 칸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공간에서 부분이 비완결적 특정을 보임에 따라 사라진 영역성을 언급하면서, 그렇다고 르 꼬르뷔제처럼 그 영역성이 형태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룸(room)으로서 부분의 완결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근대 건축이 보인 것처럼 일련의 시스템이나 흐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보인 관계처럼 확장적일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미스 반 데어 로에와 같은 이런 생성적 관점이, 단지 룸(room)들이 뒤섞이거나 모호해지는 형태적인 관계 양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성이 존중되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히 이는 영역성, 시스템의 유무라는 물리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구현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건축을 이루는 내적 질서의 차이를, 이를 구성하는 부분 으로부터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하는 관점 의 차이를 다음의 틀로서 일차적인 범위를 분류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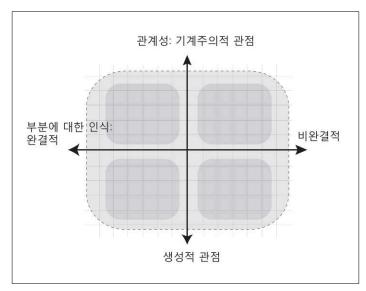


그림 3-27 부분에 대한 인식과 구성 방법의 분석 틀

부분을 완결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아니면 그러한 완결성을 부정하는 것, 또한 이러한 부분의 관계성을 기계주의적 관점으로 구성하는 양상과 생성적 관점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틀의 적용은 단지 이분법적으로 각 건축 작업을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예를 들어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부분을 확장적으로 구성하는 생성적 관점과 루이스 칸이 "자라남(growth)"으로 표현하는 생성은, 부분에 대한 완결성의 유무를 떠나시각적 구현성의 차원에서 또한 차이를 보였으며, 뿐만 아니라 근대에서 보인 부분의 완결성과 루이스 칸이 구현한 룸(room)의 완결성은, 그 관계성에 따라 구현된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제 작업으로부터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본 틀을 제시함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이러한 분류를 일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적 건축이라 함이 형태적 유연성이나 이미지에 따라 단편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구성 방식에 의한 파악은, 겉으로 비슷해 보는

이는 건축일지라도 실제 경험되는 내적인 공간 조직이 전혀 다름을 밝힐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작업에 있어 평면 조직상에서 드러나는 바로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건축가가 실제 구축에 있어 일차적으로 구성하는 평면 구성에의 파악은, 부분을 생성하고 관계해 나가는 방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평면 구성 방식에 따른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sup>115</sup> 방과 복도, 외부적 형상, 작용하는 주변의 요소가 함께 구성되는 과정 가운데, 벽이나 기둥 등의 물리적 경계선들이 이루는 머무름의 공간을 부분으로 보고, 부분들이 열림과 닫힘으로 구성되는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 3.2.1 부분의 유형과 구성: 완결적 부분의 조합

## (1) 평면 구성상의 특징 분석

#### · 르 꼬르뷔제와 <빌라 사보아>

르 꼬르뷔제가 '통합(synthesis)'을 구현하려는 데에 부분과 이들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도록 하였는가 하는 관점은 특히 <빌라 사보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sup>116</sup> 건축가는 물론 발생하는 경험과 느낌을 높이, 재료, 주변의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 공간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건축의부분을 인식하는 관점들은, 따라서 그러한 총체적인 고려 가운데 궁극적으로 파악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평면 상에서 건축가가 선을 그리고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그가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sup>115</sup> 작업의 선별은, 앞서 건축가들이 부분을 언급하며 드러냈던 실제 작업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sup>^{116}</sup>$  Stanislaus von Moos, Elements of a Synthesis, The MIT Press, 1979

수 있게 된다.

[표 3-1]은 <빌라 사보아>의 평면 구성에 있어 부분과 이들의 관계를 좀 더 도식화해 명확히 나타내도록 하였다. 건축에 있어 방과 복도 등을 구성하는 벽의물리적 경계선들을 파악해 그로 인한 머무름의 공간적 형상을 '부분'으로 보고,그러한 경계선들이 어떠한 열림과 닫힘으로 관계하는가를 파악한다. 그럼으로써이러한 부분들이 형성되고 관계 맺는 방식을 읽도록 한 것이다.

Le Corbusier, Villa Savoye, 1929

#분의 영역:
1.계단 2.램프
3.테라스 4.응접실
5.부엌 6.테라스
7.방문객침실
8.화장실 9.자녀침실
10.부인용침실
11.화장실
12.부인용사실

표 3-1 <빌라 사보아>의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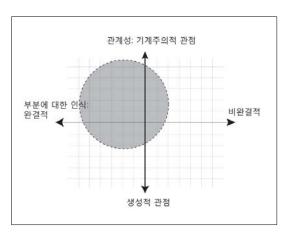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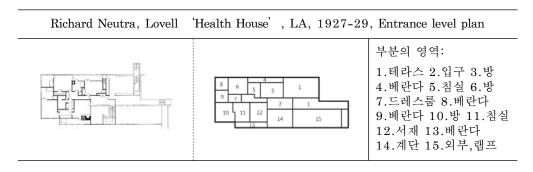
그림 3-28 <빌라 사보아>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 / 관계성- 기계주의적 관점

<빌라 사보아>는 넓은 대지에 홀로 구축된 희고 절대적인 사각의 형상으로서 존재한다. 그러한 가운데 내부가 물리적으로 그러한 주변에 확장되거나 또는 흡 수하려는 태도보다는, 각 부분이 전체의 네모난 형상 속에 속하며, 일련의 흐름을 따라 경험하도록 유도되었다. 즉, 사용자는 건축가가 의도한 흐름과 부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분은 기능, 형태적으로 완결되어 있으며, 이를 경험하는 동선 체계가 존재하게 된다.

## · 리차드 노이트라의 움직임(movement)과 <헬스 하우스>

리차드 노이트라는 앞서 르 꼬르뷔제와 같이 전체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 그는 공간을 경험하는 데 있어 움직임(movement)이 중요한요인이 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과 유사한 특성을 띈다. 다만 리차드 노이트라는 이를 평면 구성상에서 고민함으로써, 방과 방을 연결하는 동선 체계, 외부에서 내부 안쪽으로 흐르는 경험을 중요시하게 된다. 다음 작업을 통해 부분이 구성되는 방식에 있어 중요시되었던 시스템적 방법론이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3-2 <헬스 하우스>의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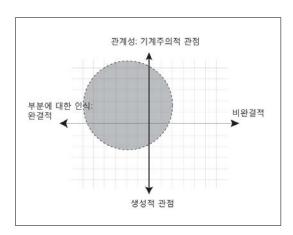


그림 3-29 <헬스 하우스>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 / 관계성- 기계주의적 관점

내부를 규정하는 형상이 미리 주어지게 된다. 그 가운데 부분은 구획되어 나누어진 결과로 생성된다. 이에 이러한 분리된 부분을 연결하는 전체 속에서 흐르는 선적인 요소가 중요해진다. 규정된 흐름에 따라, 구획된 부분은 방이나 통로 등으로 설정된다. 부분을 통합시키는 '움직임'으로서의 시스템 속에서 부분들이 연결되는 경험이 유도되는 것이다. 특히 방과 방을 연결하고 경험되도록 하는데 있어, 또다른 방이 삽입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부분이라는 머무름의 경험을 극대화시켰다.117 명확한 부분은 전체 속에서 그 사이의 경계의 틈이 없이 맞춰진다. 리차드 노이트라의 부분은 기능과 형태로 닫혀진 방으로서 출발하며, 이러한 방의 연속적 경험을 통해 규정된 전체로 귀결되는 것이다.

#### (2) 완결적 부분의 조합

근대 산업의 정점을 지나 20세기 초반의 건축 및 도시 분야의 대응은 곧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전체 속에서 규정된 시스템적 틀로 아우르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이는 단지 건축에 국한된 태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 근간에 자리한 전체주의, 기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 앞서 논의한

 $<sup>^{117}</sup>$  Thomas S. Hines, Richard Neutra and the search for modern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p. 78–91

대로 그러한 발상에서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방식은, 완결적인 원소로서 이를 인식하며 이러한 요소가 합해져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근대 건축 전반의 양상은 이의 의 주축을 이룬 CIAM의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르 꼬르뷔제나 발터 그로피우스, 한네스 마이어 등 CIAM의 기성 건축가들은 전반적으로 기능을 가진 독립적 상태로서 부분을 인식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 관계가 기계주의적 발상에 그쳤듯, 아니면 그 부분들의 합이 르 꼬르뷔제처럼 보다 '예술 적'으로 한 차원 나아갔든지, 결국 부분은 기능, 형태적으로 분명한 영역성을 가진 개체였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의 형상 속에서 벽이나 기둥을 통해 구획, 분할된 모습이다. 이는 전체를 아우르는 일련의 흐름, 시스템을 따른 것이다. 반대로 자립적인 부분들이 그러한 흐름에 맞게 나열되며 전체의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기능이나 형태로 완결성을 띄는 이러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관계하는 방식은, 마치문을 열고 닫는 정도와 같으며, 두 부분의 연결을 위해 또 다른 부분을 그 사이에 삽입시킴으로써 연결하기도 한다. 결국 이는 전제된 전체의 명확성 내부에, 규정된 부분들의 합으로 나열되는 상태이거나 또는 구획되는 과정을 통한 구축 방법이다. 이러한 평면 구성상의 특징을 다음 [그림 3-30]와 같이 유형화 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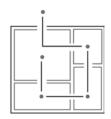


그림 3-30 평면 다이어그램, 완결적 부분을 조합함으로써 구성

루이스 칸은 이러한 근대 건축 운동의 공간 구성 방식을 '순환(circulation)' 적이라고 언급했다. 118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유기체적 관계와 흐름을 통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의 기호와 흐름을 미리 예측하

 $<sup>^{118}</sup>$  Michael Merrill, "Configuration, Movement, and Space: From "Circulation" to an "Architecture of Connection" ", Louis Kahn on the thoughtful making of spaces, Lars Muller Publishers, 2010, pp.125–126

여 시스템이 미리 설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된 흐름을 따라 기능을 가진 요소들이 배열되고 자리하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부분은 이미 정해진 자족적 시스템(self-contained systems)이 있다고 파악함으로써 이는 '순환(Circulation)'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근대 건축에서 르 꼬르뷔제가 보인 "straight path of the modern man"이나 발터 그로피우스가 이야기한 "kinesthetic moments(people configurations)", 리차드 노이트라의 움직임(movement)의 개념이 그러하다. 이는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위, 움직임이 규정된 빌딩 시스템 내에서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순환(Circulation)' 작업은 마치 사람의 몸이 이미 정해진 시스템 내 생물학적 유지가가능한 것처럼, 결정론적이며 선적이 된다. 사실상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여지가 뒤로 물러난 것이다. 명확하고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부분들간의 흐름이 정의되기 때문에, 비교적 특정한 사람의 범위와 기능에 적합화 되어있다. 예측 가능한 행위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공간 구성은 덜 모호하고 명확함을 추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선적이고 가지치기와 같은 위계성을 띈다.

# 3.2.2 부분의 유형과 구성: 해체된 부분의 재조합

## (1) 평면 구성상의 특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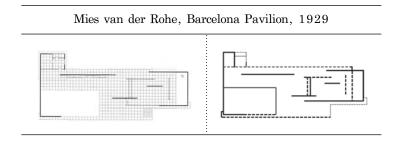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모든 이에게 보편 타당한 공간은, 곧 비규정된 상태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다.<sup>119</sup> 따라서 완결적 영역성을, 그리드라는 균질함으로 전체 바닥에 펼치게 된다. 부분을 기능이나 형태로 한정하지 않고, 이러한 영역을 해체

 $<sup>^{119}</sup>$  Jose Quetglas, "Loss of Synthesis: Mies's Pavilion, 1980 ",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K. Michael Hays, ed. MIT Press, 1998, pp. 382

시켜 요소를 바닥의 그리드 속에 부분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120

표 3-3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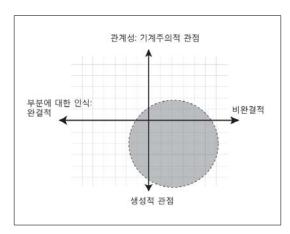


그림 3-31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비완결적 / 관계성- 생성적 관점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구축하는 이러한 관계성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통해 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공간 전체가 하나의 방처럼 형성되기에 이른다. 전체의 바닥은 잠재적으로 일정하게 해체된 그리드로서 존재한다. 그 위에 부분의 일정 요소들이 일부 구성되며, 이는 어느 정도 구분의 역할은 하지만, 명확하게 규정된 머무름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간은 그 사용에 있어 모든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121 규정된 형상이 사라지고, 요소들은

<sup>&</sup>lt;sup>120</sup> Detlef Mertins, ed. "A World in Itself: Architecture and Technology", The Presence of Mi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74

<sup>121 &</sup>quot;...allows every flexibility in use."

Mies van der Rohe, The Artless Word, Fritz Neumeyer, ed. MIT Press, 1991, p.322, p.211 참 고.

흩뿌려져 놓이거나 중첩되면서, 부분은 완결성이 읽히기 보다 혼합된 양상을 띈다. 서로의 관계가 전복됨으로써, 결국 각각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결국 미스 반데어 로에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 각자가 다른 통찰을 실현하게 되며 이것이 진정한 보편적 관계성이라고 여겼다.

# (2) 해체된 부분의 재조합

근대의 기계주의적 사고관은, 다양하고 불확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수요하지 못함에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데이비드 하비는 근대의 이러한 완결성을 분절시킴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건축에 있어 다양성의수용에 대한 논의는 CIAM의 젊은 건축가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도시 및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파악하였다. 앞서 부분이 전체 속에서 구획, 분할된 양상 속에서는 결국, 모든이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기보다 특정한 부분, 곧 특정한 기능과 규정된 흐름이 '선택'되어 구성된 것이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르 꼬르뷔제가 구현하려는 이러한 보편성이 사실상 특수한 것을 일반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진정한 보편성이란 이러한 규정을 벗어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으며, 이는전체주의에 있어 드러나는 배제성을 극복하려는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정한기능과 형태를 시스템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에 맞지 않는 행위는 배제되는 것이었다. 전체의 흐름 속 묶인 부분들의 관계란 실제 큰 연관성 없는 나열이며 이는 단지 이들을 아우르는 전체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함을 파악하고, 이러한 전체의 틀을 불식시키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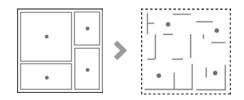


그림 3-32 평면 다이어그램, 부분의 영역성을 해체하고 이를 재조합으로써 구성

이름 [그림 3-32]과 같이 구체화해 볼 수 있는데, 전체를 규정하는 틀이나 일 런의 시스템, 흐름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한 가운데 특정적이라 판단되는 부분의 영역성이 해체되며, 이렇게 해체된 부분들의 일부 요소가 놓이 면서 중첩되고, 결국 경계가 사라진 공간 구성을 이루게 된다. 영역성이 물리적 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규정된 바를 해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뚜렷하게 인식 가 능한 부분의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행위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고자 함이며, 관계 자체가 생성하고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 3.2.3 영역성과 관계성에 대한 재인식: 부분의 영역성과 생성적 관계성

# (1) 평면 구성상의 특징 분석

#### ·루이스 칸과 <도미니크 수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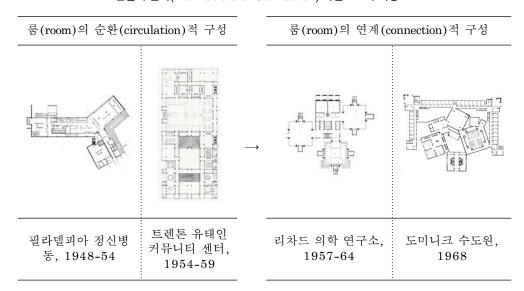
루이스 칸은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을 "룸(room)" 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룸은 형태로서의 방 이전에, 빛이나 리듬(기하학적 형상)으로 확보되는 영역(area)<sup>122</sup>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단지 벽으로 구현된 물리적 완결성이 아닌,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둘러싸임의 감각으로부터 부분의 완결성이 실현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은 다른 영역과 상호 관계를 맺는 생성적 관계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의 근간에는 경험하는 사용자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함에 있다. 사용자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동성을 가지며 확장하는 이러한 생성적 관계성은, 앞서고찰하였듯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구현하려는 태도와 유사한 지점에 있으나, 부분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루이스 칸의 작업에 있어 부분의 영역들이 관계하는 방식이, 완전히 시 스템적인 일괄적 흐름대로 나열된 양상은 아니었으나 유도된 관계성이 일부 근대

 $<sup>^{122}</sup>$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spirit in the architecture of Louis I. Kahn, 1979, p.32

의 작업와 동일한 입장이었다. 후에 루이스 칸은 근대 건축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해진 자신의 "순환(Circulation)" 적 작업이, "연계의 건축(Architecture of Connection)" 작업으로 전환되며 그 관계적 속성이 달라졌음을 밝히게 된다. 123

표 3-4 루이스 칸의 순환(circulation)적 작업에서 연결의 건축(Architecture of Connection) 작업으로의 이행<sup>124</sup>



부분을 완결적인 룸(room)으로서 영역성을 가진 실체로 인식함은 동일하나, 이러한 부분이 일련의 흐름으로 지배되는 순환(Circulation)적 체계와, 이와 다르게

<sup>123</sup> 실제로 이전의 작업(<필라델피아 정신병동, 1948-54>, <트렌톤 유태인 커뮤니티센터, 1954-59> 등)에서 루이스 칸이 룸(room)으로 공간을 구성하며 자주 언급한 "circulation" 이라는 어휘는, 50년대 후반 이후 작업(<리차트 의학연구소, 1957-64>, <도미니크 수도원, 1966-68> 등)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룸(room)을 "connection" 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Michael Merrill, op.cit., p.140

이후 4.2에서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분 간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바, 이러한 "연계(connection)" 작업은 또다시 두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sup>&</sup>lt;sup>124</sup> 루이스 칸의 작업 방식의 구체적 분류에 있어, 앞서 캐네스 프램턴은 그의 건축을 크게 3시기 (1950년대 전후, 1950년대 후반, 60년대 이후)로 나눈 바 있다.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pp. 242-246

특히 60년대 이후는 루이스 칸이 "form"이란 어휘를 건축 이론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구성 방식의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괄적인 분류보다는, 특히 부분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평면 구성상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분들 간의 각 관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연계(Connection)의 방식은, 실제루이스 칸의 작업에서 보이듯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무엇보다전자는 전체 공간을 마치 사람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인 것인데, 각부분이 기능적인 방과 같이 완결되며 흐름으로 규정된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 반면, 부분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면서 이를 확장시키는 연결 방식은, 부분의 영역이 단지 기능이 담기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방일지라도 다양한 행위와 머무름이 담기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각부분의 크기와 위치는 상대적으로 배열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가 예측 가능한 행위를 규정된 들 안에서 명확하도록 추구했다면, 이는 불특정한 가치를 수용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행위나 형태가 꽉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을 허용한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연히 발견되는 부분 간의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딱 맞춰진 필요에 의한 공간이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만나 생성하는 일, 컴팩트한 부분과 너그러운 부분 사이의 스펙트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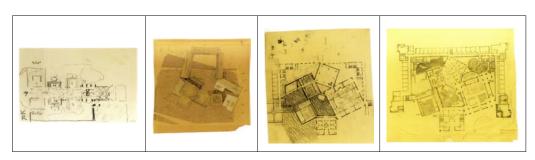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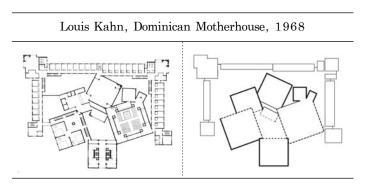


그림 3-33 <도미니크 수도원> 계획 과정, 1966-68 ; 룸(room)의 여러 구성 방식을 실험함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생성적 관계성은 부분의 영역성이 실체화되어 구분된 영역으로부터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는 상태를 전재한다. 이에 루이스 칸의 작업을 통해, 부분이 구분된 영역으로서 구현되는 과정과 다른 영역 간의 관계 속에서 경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도미니크 수도원>은 실제 지어지지 않는 계획안으로 남아있으나, 그의 지속적인 스케치와 작업으로 상당한 양의도면이 남게 되었다. [표 3-5]에서 보이듯 루이스 칸은 특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을 룸(room)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근대가 취한 완결성과는 또다른 태도인데, 전체의 규정된 흐름이나 시스템 속에 부분

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스 반 데어 로에와 같이 유동적인 행위를 받아들이 고자 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또한 미스 반 데어 로에처럼 영역의 물리적 구현을 부정하지 않고 이에 룸(room)이라는 물리적 영역으로 확보되도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루이스 칸은 여러가지 배열의 타입들을 실험하면서 이에 종종 부분이 변형되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첩되고 배열되는 양상 속에서도 본래의 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부분에 내제된 고유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드러내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재조합되고 확장하는 방식의 이러한 관계성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보인대로 완벽히 관계 지향적으로 부유하는 양상이 아니다. 곧 부분의 자기 결함이나 자기 파괴로써 해체된 부분이 합쳐져 사라지지 않고 있다.

표 3-5 <도미니크 수도원>의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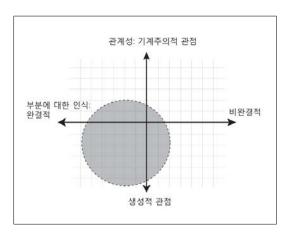


그림 3-34 <도미니크 수도원>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 / 관계성- 생성적 관점

## · 알도 반 아이크와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

알도 반 아이크는 부분의 관계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Configurative Discipline" 이라는 방법론이 제안하게 된다. 이는 근대의 기성 세대들이 보인 기능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구축 양상에서는 부분 간의 관계성, 즉 사이의 영역이 부재함을 비판하고 그러한 부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는 단순히 덧붙여져 양적 축적으로 형성되는 조합적 구축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게 된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관계하는 방식의 확장으로서 건축의 부분 간의 관계성의 논의되어야 하며, 결국 각 부분의 관계성에 있어 이들이 일련의 흐름이나시스템으로 묶여 그 경계가 단순한 벽이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 또다른 영역, 곧 사이 영역(in-between realm)이 되어야 한다. 125 알도 반 아이크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앞서 루이스 칸이 부분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며 이들이 생성적 관계를 맺는 구체적 양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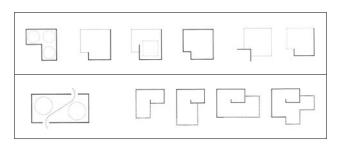


그림 3-35 알도 반 아이크의 부분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 작업 (알도 반 아이크, 응용미술학교, 암스테르담, 195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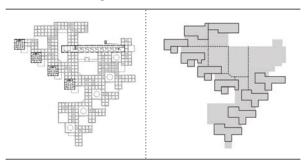
부분이 닫힌 방이 아닌 유동적 관계성을 가지도록 하는 일은, 곧 부분이 영역성을 담는 동시에, 다른 부분과 관계하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물리적으로 확정적이기보다, 사용자에 따른 다양한 영역성이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는데, 알도 반 아이크는 특히 이들이 관계하는 다양성을 패턴화함으로써 수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다윈성을 받아들이는 보편성에 있어,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부분

<sup>&</sup>lt;sup>125</sup> Aldo van Eyck, "Steps towards a configurative discipline, 1962",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SUN Publishers, 2008, p.328

과 관계성에 대한 모든 규정을 없앴다면, 루이스 칸과 알도 반 아이크는 오히려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사람과 다양한 종류의 운송 수단이 지나다니는 길을, 각각이 요구하는 적정 한 영역 구성과 질서를 구현함으로써 혼잡하지 않고 오히려 풍부한 관계성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표 3-6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의 평면 구성

Aldo van Eyck, Amsterdam Municipal Orphanage, first floor plan, Netherlands, 195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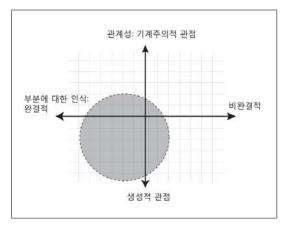


그림 3-36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 / 관계성- 생성적 관점

궁극적으로 그가 구현하고자 하는 관계성은 곧 "패턴 조직(pattern structure)" 으로서,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을 통해 실현되게 된다. 전체의 형상은 부재하며 주변의 맥락만 존재하는 상태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그러한 가운데

최소 단위로서의 부부인 작은 유닛으로부터, 그 부분의 다양화(variation)을 통해 전체로 확장된다. 지붕층(First Floor Plan)에서 보면 동일한 단순 단위의 나열처럼 보인다. 이는 실제 평면에서 그러한 단위 반복의 문제를 넘어서 상호 작용한다. 즉, 단위의 동일한 반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담길 행위와 주변의맥락으로 부분과 부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전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 3-37]에서 보면, 영역성과 이의 확장을 단순한 열린 구조로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발생하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물리적으로구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또다시 집중되는 행위를 "Dwelling Unit"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본적인 여러 패턴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이대별로 공간을 패턴화해서, 이것이 여러 다양화(variation)를가지며 확장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패턴은 유동적이고 확장된영역성을 가진다. 동일한 영역일지라도,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중심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영역성을 만들어내며, 이것은 앞서 고찰한 생성적 관계성의 주요 속성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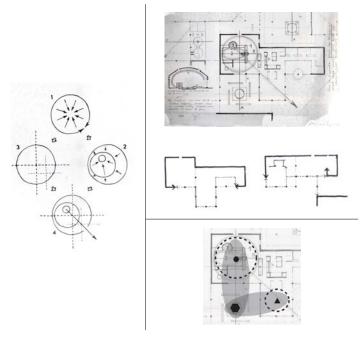


그림 3-37 <암스테르담 시립고아원>에서 보이는, 부분의 생성적 관계성 (left: Dwelling Unit for 4-6 age group, right: Pattern of the units for juniors and seniors)

또한 이러한 패턴은 또다른 부분들과 만나고 흩어지는 운율을 가지며 구성 체계를 갖는데, 126 특히 이러한 관계 영역은 물리적 구획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림 3-37]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분리된 각 영역은 물리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으나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사물을 공유함으로 공통된 관계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단순히 물리적 구성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사람을 파악할 때에 실현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루이스 칸과 알도 반 아이크의 이러한 방식은, 부분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이들의 관계를 단지 선적인 연결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계 영역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근대 건축이 보인 보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 (2) 부분의 영역성과 생성적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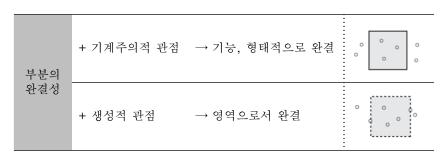
전체를 규정하는 시스템과 흐름에 따라 부분이 완결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은, 이후 부분과 이의 구성하는 규정성을 모두 해제시키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에 칸은 전자의 선상에 있는 르 꼬르뷔제의 전체주의적 작업 속에서 영역성이 형태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며, 또한 이의 반대 선상에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비완결성 구성은, 건축이 진정으로 실현해야 할 영역이 사실상 부재함으로써 마치 부유하는 상태로 공간이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룸 (room)에 대한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렇다고 루이스 칸의작업이 근대에 속하지도, 또한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발상을 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룸(room)으로써 부분의 영역성을 구현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룸 (room)이란 건축의 시작이다. 그것은 단지 크기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구성하는, 실제 사람이 행위하는 최소한의 장(場)이 되는 것이다. 건축이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일은, 어떠한 규정도 없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

<sup>&</sup>lt;sup>126</sup> Aldo van Eyck, "The medicine of reciprocity tentatively illustrated, 1961", ibid., p.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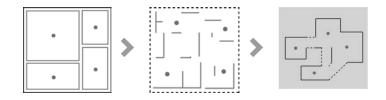
라 그러한 행위가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영역으로 구체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구분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둘러싸임의 감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구현된 부분은 다른 영역과 관계 영역을 형성하는 관계성을 갖는다. 즉, 단지 흐름에 따라 나열되거나 시스템적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따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3-7]에서 보면, 부분의 이러한 영역성은, 구성하는 관계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 3-7 부분의 '완결성'의 차이



부분이 규정된 바 없이 관계성을 맺으면서, 영역으로서의 완결성을 잃지 않는 이러한 태도의 근간은, 무엇보다 이러한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을 주체적으로 인식한 데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 스미슨 부부와 알도 반 아이크, 루이스 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건축가가 구현한 바를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람이 영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계하는 주체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사람이 행위하고 머무는 영역으로서 부분을 완결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묶이거나 일련의 흐름을 유도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성에 따라 설정되는 확장의 방식의 취하게 된다.

표 3-8 평면 다이어그램, 부분과 관계성에 대한 재고찰: 부분의 영역성과 생성적 관계성



근대 건축 운동에서 보인 기계주의적 관점으로 형성되는 부분의 완결적 조합은 후에 이러한 모든 규정성을 해체하고 일부 요소를 재구성하는 방식에 의해 부분이 가진 영역성을 물리화하지 않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루이스 칸이나 알도 반 아이크는 [표 3-8]에서 보이듯, 다시금 부분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구체화 하면서, 이를 규정된 시스템이 아닌 각자가 상호 관계성을 구현하며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구성하는 주체성의 차이에 있으며, 특히부분이 갖는 특정한 정체성(identity)이 사라지지 않고 구현되도록 함에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

## 3.3 소결

근대 건축 운동의 축으로서 CIAM의 각 선언들과 이에 특히 르 꼬르뷔제의 작업을 통해 그가 건축의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형성해 나아가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르 꼬르뷔제는 어지러운 도시 사회속에서, 이를 정리하고 규정하는 보편주의적 이상을 내세우며, 일련의 시스템적인 흐름에 따라 부분이 규정되도록 하였다. 이에 부분은 특정한 기능이나 형태상으로 완결성을 띄게 된다. 스미슨 부부의 작업은 르 꼬르뷔제를 중심으로한 근대의 기성 건축가들과 다른 행보를 취하는 전화점으로 파악된다. 스미슨 부부는 앞서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부분'을 단지 원칙과 시스템에 포함된 물리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지점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억압된 인간의 자율적인 관계성이, 공간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적으로 배제, 통제된 구획으로서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삶이 담기는 곳이며, 곧 공간을 구성하는 일은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간된다.

한편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진정한 보편성을 실현하기에 앞서, 규정된 시스템과 틀의 적용은 상당히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 시킴으로써 진정으로 다양하고 불특정한 사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레조 주택> 이후 그의 작업에서 방으로 구획하는 양상이 사라지게 되며, 영역성을 해체함으로써 해체된 부분적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간은 특정한 영역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각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영역이 일시적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영역성의 부재에 대한 한계의 언급은, 특히 루이스 칸과 알도 반 아이크에 의해 두드러졌는데, 알도 반 아이크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업을 포함한 근대 전반의 작업에 있어 한계를 사람이 주체가 되어 공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정체성(identity)의 상실로서 보고 있다. 루이스 칸은 룸(room)으로서 근대의 영역성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특히 50년대 후반 이후의 작업에서 근대

의 작업 선상에서 각 부분들이 일련의 흐름 체계 속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각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관계 방식을 취하는 생성적 관점으로 이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때의 생성적 관점은, 미스 반 데어 로에와 같이 다양성을 자유로이 인정하지만 부분들이 혼합, 중첩될지라도 본래 자신이 가진 고유의 영역성이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스미슨 부부나 알도 반 아이크, 그리고 루이스 칸에게서 보이는 전반적 방식은, 무엇보다 부분을 묶는 전체의 시스템의 유무에 대한 관심이, 각 부분 간의 실질적인 관계 구성에 대해 이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9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세 유형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으로 파악	비완결적으로 파악	완결적으로 파악
	; 기능, 형태로서 주	; 규정된 완결성의	; 영역으로서 행위가
	어진 완결성	해체	시작되는 완결성
관계성	기계주의적 관점	생성적 관점	생성적 관점
	; 일련의 흐름에 따라	; 부분이 해체된 요소	; 부분들이 각 관계를
	구획, 배치됨	로써 확장, 재구성됨	구성하며 확장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관계상 기계주의적 관점 부분에 대한 안에 한공격 생성적 관점	관계성: 기계주의적 관심 부분에 대한 인식: 연결적 생성적 관점	관계상 기계주에의 관점 부분에 대한 전식 환경적 생성적 관점
평면 구성의 유형	•	-  -  -  -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 방식에 대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각 건축 작업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분류는 공간 구성의 파악을 단지 이분법적으로 나타낼 목적이 아닌,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통합적 건축이라 함이 단지 형태와 이미지로서만 파악되는 점에 있어 이들의 내부적 실 체를 파악하고자 함이었기에,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이라는 최소한의 틀로서 우선 그것들을 일차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된 르 꼬르뷔제의 완결성과 루이스 칸의 완결성의 차이가, 그래프 상의 세밀한 스펙트럼으로 규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는 결과상의 차이이기보다,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해나가는 관점의 차이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그치지만, 후의 연구에서 실질적인 결과상의 차이 또한 한층 심화된 틀로 분류, 파악될 것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 제 4 장

#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성 방안

- 4.1 현대 건축의 통합성의 한계와 모색
- 4.2 룸(room)을 통한 부분의 영역성
- 4.3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성
- 4.4 소결

본 연구를 통해 현대 건축의 무분별한 통합적 행태 속에서 이러한 통합적 건축이라 함이 단지 형태적 유연성이나 이미지로 귀결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겉으로유연한 형태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공간 구조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고자하였다. 현대의 양상은 단지 과거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재생산되는모습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나아갈 방안을 현대에서 찾기 이전에, 과거근대의 주요 건축가들이 부분을 인식하고 다룬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비슷한 연결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분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분석의 틀을설정하고, 이를 평면 구성상의 특징으로 유형화하였다. 곧 4장에서는 현대 건축에서 행해지는 통합성의 양상을 이러한 틀로 구체적으로 분류, 분석해보도록 한다. 단지 유연한 이미지로서가 아닌, 실제 공간 구성에 있어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의 차이로 분류되며, 이어 현대 건축에 있어 통합성의 한계에 대한파악과 모색으로 논의가 확장된다.

현대 건축에 있어 주요 화두는 관계성에 있다. 공간은 단절이 아닌 유연한 흐름으로써 소통을 유도하며,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정적인 사회의 일상을 담기 위해 특수성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공간 구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축은 이러한 다양함과 보편성을, 유연한 형태와 이미지만을 통해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한계가, 과거 루이스 칸이나 알도 반 아이크, 스미슨 부부가 취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로부터 극복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의 모색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축의 통합성이 형태적 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람이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관계성으로 확장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4.1 현대 건축의 통합성의 한계와 모색

통합성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공간 및 형태 생성에 있어 두드 러진 핵심 화두로 파악할 수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단절된 관계 를 극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우리의 다양한 삶이 담기는 그릇으로서 건축을 다루고자 하는 일이다. 일련의 시스템이나 흐름으로 관계를 규정하던 과 거 근대의 방식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러 불확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절과 일시성의 성격을 띄게 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현대 건축이 구축되고 있다. 연 결과 소통, 통합에 대한 현대 건축의 대응은, 다양한 가치들의 수용을 위한 모호 성, 비경계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공간 내부의 흐름과 형태를 좀 더 유연한 이미지로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 램 쿨하스는 이 에대해 현대 건축의 특성이 오히려 과거 전체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며, 공간 내부에 목적없이 부유하는 상태만 지속됨으로써 오히려 형태상의 완결로 이 의 안정을 좇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절에서는 현대 건축이 표방하는 통합적 구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평면 구성상의 특징으로 논하였던 바를 그대로 이어가며,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의 분석 틀로써 현대의 건축 작업들이 속한 범위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것이다.127 여기서 부분을 완결적, 또는 비완결적으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관계 구성이 기계주의적인 조합 적 구성인가 아니면 생성적인 관점에 의한 재조합적 구성을 띄는가 하는 틀은, 단지 이분법적으로 건축 작업을 파악하도록 함이 아니다. 유연한 형태로서 귀결 되는 현대 건축의 통합적 양상을 일차적으로 분류하는 틀로써, 어느 선상에서 구 현되는지 그 범위를 파악하도록 한다.

### 4.1.1 현대 건축의 양상

<sup>127</sup> 현대 건축의 모든 작업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현대적임을 표방하며 이에 건축 전체를 하나의 통합체로 구축하려는 바가 키워드로 발견되는 몇 작업을 선별하도록 하였다.

### (1) 자하 하디드와 형태적 유연성

현대 건축은 대부분 그 모습이 유연하고, 경계가 느슨한 통합적인 흐름을 강조한다. 자하 하디드는 현대 건축이 표방하는 바를 가장 극단에서 보여주는 건축가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연한 형태와 내부의 흐름을 통해 모든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며, 이는 현대 도시와 건축의 소통에의 욕구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에 표방하는 통합성이 단지 형태적 유연성만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간 구조 가운데 이를 구성하는 부분과 관계성으로부터 살펴보는일이 중요해진다.

자하 하디드의 다음 작업을 통해 이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굉장히 유연한 흐름의 형상을 가진 건축으로서, 이에 건축가가 통합적 공간을 구현하는 바를 마찬가지로 평면 구성상에서 일차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였다. 평면 구성상에서 살펴볼 때에, 전체에 흐르는 일련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내부가 확장할 수 있는 범위, 즉 전체의 모습이 규정되었다. 또한 규정된 흐름을 따라 내부에 영역이 구획되는데, 이는 각자의 관계가 고려된 공간이기보다는 기능과 내부 동선의 흐름에 맞게 배열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부분은 구획된 완결성을 가지며, 전체에 흐르는 일련의 흐름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4-1 <LF1>의 모습과 평면 구성

Zaha hadid, LF 1, Germany, 1997-2000,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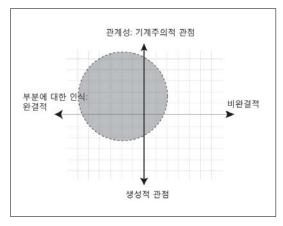


그림 4-1 <LF 1>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 / 관계성- 기계주의적 관점

가장 현대적임을 표방하는 위의 작업에서,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이 사실상 가장 근대의 선상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사실상 특수한 것이 일반화된 보편성으로서 전체의 형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의 영역성이 규정된 시스템과 흐름에 종속되었던 과거 근대의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 4-2]) 따라서 [그림 4-1]에서 보이듯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에서, 범위 상으로 근대의 작업과 동일하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본 건축에서는 이러한 시스템과 흐름이 좀 더 유연한 형상으로 드러났을 뿐, 그 안에 구획을 통해 부분을 확보한 관계 구성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각 부분들은 서로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흐름 가운데 나열된 것으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상호 작용하는 관계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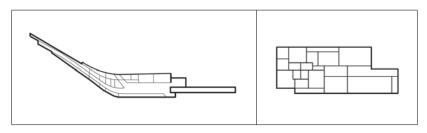


그림 4-2 자하 하디드의 <LF 1, 1997-2000>과 리차드 노이트라의 <헬스 하우스, 1927-29> 평면 구성 비교

### (2)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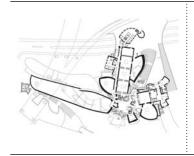
<빌바오 구젠하임 미술관>은 그 모습이 유연한 통합적 결정체로서 평가된다. 그러나 평면상의 구성에서 부분과 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자하 하디 드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능과 형태로 완결성을 가진 부분들은 덧붙여지고 조합됨으로써 하나로 모이게 되었다. <LF 1> 작업처 럼 전체의 시스템 속에서 부분이 구획된 양상은 아니나, 각 기능을 가진 부분이 나열되고 접합된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총합으로써 형성된 전체는, 이를 아우르 는 유연한 파사드로 하나의 연결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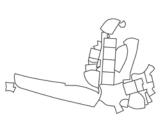
표 4-2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모습과 평면 구성

Frank Gehry, Bilbao Guggenheim Museum, Espana, 1997, second floor plan









 $<sup>^{128}</sup>$  문정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나타난 프랭크 게리의 리얼리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14\ n.03,\ 20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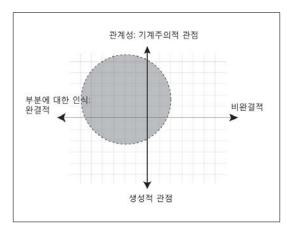


그림 4-3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완결적 / 관계성- 기계주의적 관점

부분이 완결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각 부분들이 맺는 관계성은 생성적이기 보다 기계주의적 관점에서 보인 양상과 같이 덧붙여지고 나열된 양상이다. 따라 서 분석 틀에 따라, 앞서 자하 하디드와 같은 영역에 속한 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그림 4-4 프랭크 게리가 구축하고자 했던 이미지

실제 프랭크 게리의 개념 스케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그는 각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고 관계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통합성을 실현하기보다, 유연한 형상이 드러나는 방법을 고민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의 유연한 흐름과 형상 속에서 이를 구성하는 부분은 종속된 상태로 경험된다. 부분 간의 연결은 마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와 같은데, 그 사이에 또다른 방을 삽입하거나 기존의 자신을 분절시킴으로써 연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 (3) <센다이 미디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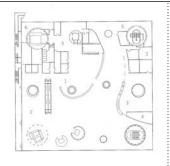
현대 건축의 공간 구조에 있어 이를 구성하는 부분이 관계하는 방식은 특히 삽입, 중첩되는 방식을 통해 비경계성과 모호성의 결과를 보임이 빈번하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유연한 바닥의 흐름을 가지며 특정한 경계없이 공간의 영역들을 하나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계성의 결과적 형태, 이미지에 앞서 실제평면 구성상에서 보이는 부분들의 관계 방식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토요 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전체의 형상(벽으로 규정된 형태)이 없이 균질한 바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가운데 하중을 전달하는 기둥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는 벽이라는 각각의 기능과 영역을 가진 부분들이 서로 합쳐지게 되었다. 기존의 부분들이 가지는 영역성은 사라지고, 바닥 위에는 제 3의 부분이 형성되어 놓인다. 특히 이렇게 새로 생성된 부분은, 또다른 영역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기능을 가진 부분이 해체되고 다른 부분과 일부 합쳐지는 혼합의 양상을 띄고 있다. 이렇게 부분이 서로 재조합되며 생성하는 새로운 관계성에서, 본래 부분이 가진 정체성(기둥과 벽)에 대한 파악이 모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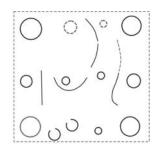
표 4-3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모습과 평면 구성

Toyo Ito, Sendai Mediatheque, Japan, 1997-2000,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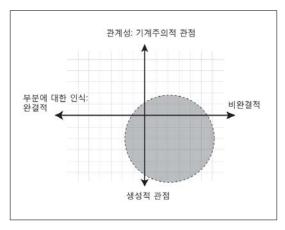


그림 4-5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비완결적 / 관계성- 생성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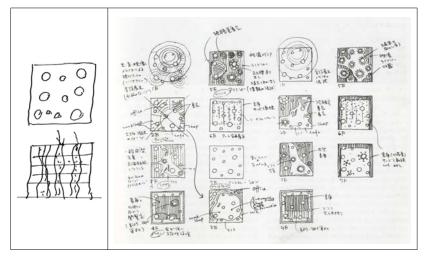


그림 4-6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계획 스케치

이러한 구성 방식을 실제 초기 스케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구획이나 배열이 아닌, 해체, 혼합된 부분(기둥+벽)을 최소한으로 공간에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최소한의 설정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유동적으로 영역을 가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는 과거에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방이라는 영역을 해체하고 이의 일정 요소들을 전체의 바닥 속에 재구성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정성을 보이는 태도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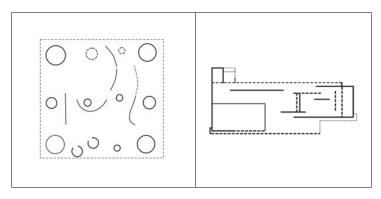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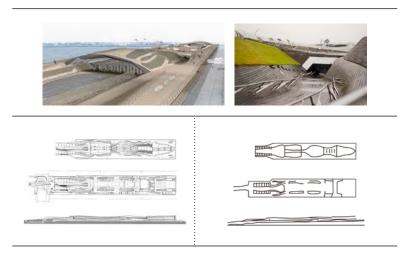
그림 4-7 토요 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평면 구성 비교

근대에 부분을 완결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계주의적 관점에서 관계성을 맺는 양상은, 후에 규정된 틀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써 이행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근대가 보인 보편 타당한 구성이 사실은 특수한 것을 일반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보다 다양한 삶을 수용하는 진정한 보편성은 일련의 규정이 사라진 '객관성'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각 영역성을 해체함으로써 이에 해체된 부분의 요소들을, 균질한 바닥에서 재조합함으로써 보다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연성을 갖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분의 영역성이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공간은 하나의 방처럼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토요 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 보이는 영역성의 부재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규정된 틀을 부정하며 확장되는 자유로운 관계성을 표방하는 것인데, 결국 부분들은 본래 자신이 해체됨으로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재조합되고 혼합되는 가운데 특정한 성질을 갖지 않는 일시성을 띄게 된다. 이러한 공간 구성에의 관점은, FOA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4)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표 4-4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의 모습과 평면 구성

FOA, Yokohama Ferry Terminal, Japan, 1994-2002, roof plan, civic level plan, and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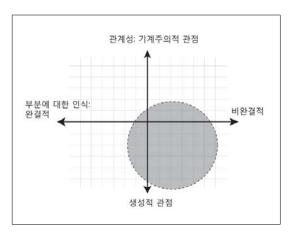


그림 4-8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의 분석 틀에 따른 분류 범위 ; 부분에 대한 인식- 비완결적 / 관계성- 생성적 관점

흐름이 강조되며 유연한 전체 바닥에, 머무름이 담길 부분은 해체되어 그러한 흐름이 연속되는 선상에 부분적으로 놓이게 된다. 129 해체된 부분들이 일부 구성

<sup>&</sup>lt;sup>129</sup> FOA, Phylogenesis: FOA's ark, Acta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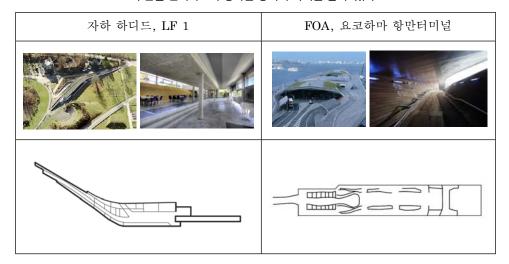
되며 일정동안 머무름이 발생하는 특정한 영역성이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구성하는 부분, 곧 영역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속성을 가지며, 완전한 기능과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성을 지향한다.

앞서 몇 작업을 통해 현대 건축에서 보이는 통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성의 논의를, 구체적인 공간 구조를 파악함으로 부분의 관계성에 대한 범위로 확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관점의 차이로 나누어볼 수 있게 되었다. 자하 하디드의 <LF 1>이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부분이 일련의 흐름에 종속되어 기능과 형태로 규정된 완결적 성격을 띄었다. 반면에 <센다이 미디어테크>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은 그러한 부분의 영역성이해체된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해체된 부분이 바닥에 일부 구성됨으로써, 규정된 영역이 아닌 보다 어떠한 행위도 수용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유동적 범위만 설정하는 것이다.

### 4.1.2 한계와 모색 방안

현대 건축의 통합성은 대부분 유연한 형태나 흐름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유연한 형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통합적 구축을 건축가가 공간을 구성하는 평면 상의 특징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 바,이에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성을 맺는 방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앞서 논의하였던 자하 하디드의 <LF 1>과 FOA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은 그 모습,이미지만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평면 구성상에서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양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이들의 차이가 드러난다. 전자의 방식에서는,부분이 전체를 규정하는 흐름에 종속되어 기능,형태적인 완결체로서 드러난다. 흐름을 따르는 구획된 방들이 있는 것이다. 반면 후자에서는이러한 부분의 영역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파편화된 일부가 중간 중간 놓여있는 양상이다.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으로,부분의 영역성이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으로 발생하게 된다.

표 4-5 자하 하디드의 <LF 1>과 FOA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비교 ; 유연한 형상(위)은 비슷하나, 실제 평면 구성상(아래)에서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를 앞서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그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결국 유연한 형태와 흐름을 가지며 가장 현대적임을 표방하는 작업 가운데, 과거 근대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건축가가 의도한 시스템을 부정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관계 영역을 이루는 방식은 생성적 관계성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자의 작업들은 전체 속에 규정된 일련의 흐름에 따라 부분을 배열하는 기계주의적 관점의 범위에 속함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하 하디드의 <LF 1>과 근대의 작업이었던 <헬스 하우스>, 그리고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과거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비교하였을때, 현대에는 그 형상이좀 더 유연하여 졌을 뿐, 부분을 인식하고 구성해 나가는 관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의 한계와 모색에 대한 고찰은, 과거 루이스 칸이나 알도 반 아이크가 언급했던 바를 다시금 재인식함으로써 출발할 수 있다. 그들은 근대의 기계주의 적 관점, 또는 생성적 관점이 그 극단에서 보이는 한계를 곧 사용자가 주체적으 로 형성하는 '영역성'의 문제로 보았다. 각 부분들이 전체 시스템과 흐름에 종 속되어 닫혀진 방으로서 구획, 배치될 때에, 각 부분은 영역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변과의 특정한 관계성 없이 나열된 모습일 뿐이다. 반대로 아무런 규정없이 부 분들이 일시적으로 부유하는 상태는, 오히려 맹목적으로 흐르기만 하는 물처럼 영역성이 구현되는 바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영역이란 단지 건축가가 규정한 둘러싸인 방이 아닌,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머무르고 행위하는 장(場)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독립적인 기능(use)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장소에서 느끼는 거주(dwell), 곧 장소성에 대한 감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130 루이스 칸과 알도 반 아이크의 작업은 이러한 부분의 영역성이 단지 펼쳐진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 건축의 통합성은 결국 부분이 영역성을 가진 물리적 실체로 실현되며 이에 규정된 관계가 아닌, 경험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관계 영역을 갖는 속성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틀에 따라 C의 범위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완결성, 그리고 생성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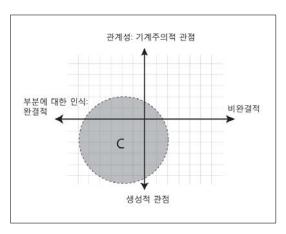


그림 4-9 C의 영역에서 다뤄질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

특히 이때의 부분의 완결성은 과거 근대주의 양상에서 보이는 완결성과는 좀더 다른 계층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 둘 다 어떤 행위와 머무름이 단지 부유하며 떠도는 속성이 아니도록 물리적인 영역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결성이 기계주의적 관계성에서 취해지는 바와, 보다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는 생성적 관점을 취할 때 나타나는 바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앞서 루이스 칸

Aldo van Eyck, "Steps towards a configurative discipline, 1962",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SUN Publishers, 2008, p.328

이나 알도 반 아이크는 이러한 생성적 관점에서, 규정된 틀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4.2 룸(room)을 통한 부분의 영역성

보다 불확정적인 사건들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규정된 영역을 가지는 부분의 해체로부터 이러한 해체된 요소들이 재조정되는 양상에서는, 부분을 통한 머무름, 곧 영역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현대 건축의 통합성에 대한 한계의 모색은 이러한 영역성의 회복에 있다. 그러나 이때 그러한 영역성이 과거 모더니즘과 같이 건축가가 규정하는 시스템이나 흐름에 종속된 완결성을 갖게 되면, 오히려 형태주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성의물리적 구현은, 현대의 불확정적이고 복잡한 삶을 단지 시스템과 형태(shape)가아닌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루이스 칸의 작업에서 보인 룸(room)의 양상이, 근대의 기계주의적 관점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취하는 생성적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림 4-10 기계주의적 관점의 완결성과 생성적 관점의 완결성 차이 ([표 3-7] 참고)

본 절에서는 앞서 루이스 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에 특히 그의 룸 (room)으로 구현되는 영역성과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생성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축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 4.2.1 루이스 칸의 룸(room)

### (1) 부분의 영역성: 룸(room)의 물리적 구현

루이스 칸은,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을 '룸(room)'으로 파악했다. 건축은 룸 (room)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영역성이 물리적인 대상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전체의 형상 속에서 구획되거나 단지 기능적으로 규정된 방이 아닌 행위가 담기는 방식, 그 장소가 바라는 실상이 드러나는 장(場)인 것이다.

...공간에 대한 본질을 밝히기에 앞서 집의 각 부분이... 단지 이론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리 정해진 하나의 전체적 형태는 각 부분이 다양한 공간이 되려 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131

루이스 칸은 룸(room)이 단지 기능을 가진 하나의 방만을 의미하지는 않도록하였다. 이는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가 담기는 영역(area)인 것이다. 132물론 특정한 성격의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일 수는 있으나, 이는 정해진 기능과형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속성 내에서 그 부분이 "되고자 하는 바" 133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는 룸(room)이 기능이 확정되고 그 자체로 그치는 속성임을 거부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호하게 중첩되거나 뒤섞이지는 않는다. 이는 특히 루이스 칸이 <제1 유니테리언 교회>를 설계하며 그렸던 부분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

<sup>&</sup>lt;sup>131</sup> Heinz Ronners and Sharad Jhaveri, eds.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1974, Birkhauser, 1987

<sup>&</sup>lt;sup>132</sup> Louis I. Kahn, "Interview with John W. Cook and Heinrich Klotz: From Conversations with Architects",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chard Saul Wurman, ed. Access press, 1986, p.206

<sup>&</sup>lt;sup>133</sup> 루이스 칸의 건축 철학에서 이는 본질에 대한 깨달음(realization)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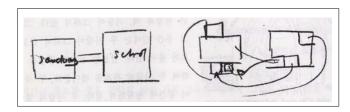


그림 4-11 룸(room)의 분리에 대한 스케치

그는 본래 유니테리언 정신에 입각해 학교와 교회 강당이라는 두 부분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데 고민을 하였다. 결국, 관념적으로 하나일지라도 행위가 담기는 공간은 분리되도록 구성한다. 134 루이스 칸에게 있어 통합성은, 형태적으로 합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부분의 영역성을 충분히확보하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2 루이스 칸의 '룸(room)' 스케치, 1971

룸(room)이란 이러한 영역성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으로서, 이의 구체적 양상을 [그림 4-12]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공간을 감싸는 벽, 기둥, 그리고 둥근 천장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사람이 난로 앞에 마주앉아 있다. 여기서 두사람의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난로를 중심으로 영역지어진다. 옆에는 큰 창문

<sup>&</sup>lt;sup>134</sup> Louis I. Kahn, "On Form and Design, 1960",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Alessandra Latour, ed. Rizzoli, 1991, p.107

Louis I. Kahn, "A discussion recorded in Louis I. Kahn' s Philadelphia office in February, 1961", ibid., pp. 132-134

이 있는데, 이를 통해 빛이 들어오고, 또 밖을 볼 수 있게 된다. 닫힌 방처럼 머무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과 끊임없이 관계하려는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두 영역은 함께 공유하는 관계 영역을 생성하는 가운데, 합쳐지거나 뒤섞여 본래의 영역성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다. 루이스 칸이 이러한 룸 (room)을 통해 구현하는 '영역(area)'은, 단지 물리적으로 규정된 기능(use)이아닌 둘러싸인 감각과 내부의 중심성으로 인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로 파악된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루이스 칸은 하나의 룸(room)에 반드시 하나의 기능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 보인다. 건축가가 예측하여 부여한 처음의 기능이후에도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림 4-13]에서 어떠한 영역을 단지 'office'로 규정함에서 나아가, 모이는 곳, 확장 여지가 있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기능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기보다, 이에 담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행위가 순환되는 장소가 되도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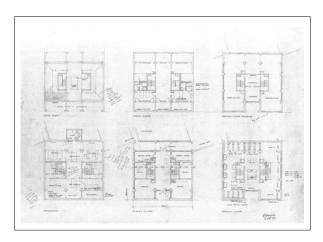


그림 4-13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일부 영역의 구성 작업

이처럼 루이스 칸은 룸(room)을 통해 부분의 영역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로부터 통합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는 기능에 따른 일괄적 분류가 아닌, 부분의장소성, 건물 전체 속에서 되고자 하는 의지, 다른 부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발생하는 영역인 것이다.

# (2) 생성적 관계성: 사용자의 "Availability"

루이스 칸이 통합적 구축을 실현하는 방식은, 룸(room)으로서 사용자가 행위하는 영역을 충분히 확보함으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룸(room)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관계성을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루이스 칸은 "평면은 곧 룸(room)들의 사회(society)"라고 일컬으며 룸(room)이라는 부분들의 구성을 통해 건축 전체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이때의 '사회(society)'를 구성하는 방식은, 앞서 근대 건축이 행했던 시스템이나 흐름이 아니었으며, 또한 모호하게 뒤섞여 결과적으로 하나의 방의 형상으로 구현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루이스 칸은 룸(room)들을 "Availability"로써 구성한다.

"유효성(Availability)" 이란 그의 후기 작품 시기(1960년대 후반 이후)에서 "form"과 함께 주로 언급되는 개념으로서, 일종의 룸(room)들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룸(room)이 머무름의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변과 관계하려는 속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일괄적인 통로와 같은 흐름으로 엮여 유도되지 않아야 한다. 루이스 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룸(room) 사이에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건축은 인간과의 동의(architecture and human agreement) 135를 통해 완성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람을 통한 관계 영역이 형성되는 바를 루이스 칸은 "유효성(Availability)"이 실현되는 것이라 언급한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계단은, 한번에 쉬지 않고 여러 개를 뛰어 오르내리게 할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에게 있어 이는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계단에 머무름의 장소로서 창문과 의자가 포함된다면, 노인은 계단을 오르다가 자연스럽게 멈춘 다음, 우연히 그곳에 떨어져 있는 책을 집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왜 거기 멈추어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는 이 책이 이렇게 흥미로운지 몰랐구나,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계단인 것이다.

<sup>&</sup>lt;sup>135</sup> Louis I. Kahn,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1971", ibid., p.266

교실들을 연결할 때, 좁은 통로인 복도 대신에 하나의 홀을 연상해 볼 수 있다. 복도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좁고 긴 통로이며, 이곳에서는 선생님이 지나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하나의 장소가 되는 홀... 그곳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곳은 어떤 학생이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학생이 지적이나 경고가 아닌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러한 장소의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 이것이 배우기에 좋은 장소로서의 학교이다. 136

루이스 칸은 각 영역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며, 단지 통로나 문으로써가 아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장으로서 파악한다. 이런 '유보 공간'을 통해 사용자는 단지 주어진 흐름대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간 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건축가가 부여한 흐름과 기능에 사용자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 공간에서의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경험하는 바가 다르므로, 장소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루이스 칸의 이러한 관계성은, 르 꼬르뷔제나 리차드 노이트라 등 근대 건축이 보인 기계주의적인 관계성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루이스 칸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최소한의 규정으로 부분을 재조합하였던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이에 그는 부분의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면서, 이들이 혼합되거나 합쳐져 제 3의 성질이되는 양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루이스 칸의 행보는 단지 양 극단에서 행해지는 사이에 있다기 보다, 좀 더 다른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부분을 기능이나 형태적 영역으로만 파악해 이의 연결 방식을 조절하는 시각적 구현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이주체적으로 머물고 관계하는 영역성이 함께 물리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실현했다. 즉, 시스템이나 틀의 유무라는 건축가가 규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관계 영역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으로 파악한 데에 그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스미슨 부부나 알도 반 아이크에게서도마찬가지로 발견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부분을 인식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사용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알도 반 아이크는 루이스 칸과마찬가지로 이에 두 영역 사이의 경계를 벽이나 통로로 보지 않고, 사이 영역

<sup>136</sup> ibid., p.114

(in-between realm)으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관계성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평면 구성상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다음 5가지에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속성은 부분이 관계성을 이루는데 있어 크게 3단계의 구현 과정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의 물리적 구현이며, 두번째는 이러한 구현된 영역성이 다른 영역으로부터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세번째로 그러한 영역들이 더욱 입체적 구성방식을 취함으로써 각 영역 간 경계가 중화되고, 이에 단절보다는 열린 구조 가운데 통합적인 관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표 4-6 생성적 관계성의 구현

1. 영역의 형성		행위가 발생하는 구 분된 영역
2. 영역의 경계	000	영역 간의 관계성과 경계의 영역성
3. 영역의 관계성		유동적인 영역성
		유동적인 중심을 가 지는 영역성
		사람을 통한 상호 관계성

# 4.2.2 룸(room)의 형성과 공간 구성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성에 있어 회복되어야 할 지점을 부분의 영역성으로 보고, 이에 근대의 구축 양상에 대해 영역성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루이스 칸에게서 그 방법적 가능성의 실마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앞서 고찰한 루이스 칸의 구축적 특성 가운데, 영역성을 갖는 룸(room)의 구성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특히 앞서 [표 4-6]에서 언급한 바대로, 생성적 관계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크게 세 작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루이스 칸의 작업에 있어 영역의 형성, 경계의 발생, 그리고 관계의 통합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루이스 칸이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을 룸(room)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고자하는 바는 전반의 작업에 걸쳐 발견된다. 그러나 초기 작업에 있어, 그도 언급했듯이 일련의 흐름을 따르거나, 룸(room) 스스로의 자발적인 구성보다는 전체 속에서 구획되곤 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극복은 1960년대 이후, <리차드 의학 연구소, 1957-64>이나 <제 1유니테리언 교회, 1961> 등의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고민되면서 이에 부분이 스스로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칸이 통합을 위해 오히려 룸(room)의 영역성의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양상을 <제1 유니테리언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보된 영역이 또다른 영역과 관계할 때 발생하는 '사이'를 구성하는 방법을 <골덴버그 주택>을 통해 보도록 한다. 이어 영역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모든 공간을 통합하려는 루이스 칸의 의도를 궁극적으로 <트렌톤 바스하우스, 1955-56>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영역 간의 경계를 다른 요소로 대체함으로써 중화시키는 방식을 보인다. 또한 <피셔 주택, 1960-67>을 통해 룸 (room)들의 배치 방식에 있어 그동안 대칭적 구조를 취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입체적 구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영역 내부에, 경계 영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서, 영역을 발생시키는 중심성이 유동성을 갖고 확장함에따라 공간의 각 '부분'들이 유연한 관계 속성을 보이게 된다.

### (1) 영역의 형성: <제1 유니테리언 교회>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개념 스케치와 계획안들의 과정 변화를 통해, 고유의 영역성을 허용하는 부분으로서의 룸(room)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초기 개념 스케치를 통한 그의 언급은, 룸(room)으로부터 이의 확장인 형태 (form)에 이르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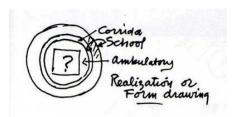


그림 4-14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개념 스케치

나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 가운데에 물음표를 했다. 그것이 성소가 되도록 의도한 것이었다고 하자. 나는 성소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화랑으로 둥글게 둘렀다. 회랑 주변에는 복도를 그렸는데, 그것은 공간을 둘러 싼 제일 바깥의 원에 속해있게 된다. ...이것은디자인이 아니라 교회의 형태(form) 표현인 것이다. 137

<sup>137</sup> Heinz Ronners and Sharad Jhaveri, eds. op.cit., p.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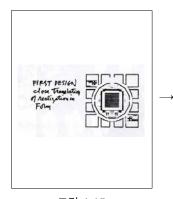


그림 4-15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첫번째 계획안,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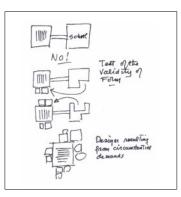


그림 4-16 <제1 유리테리언 교회 >의 룸(room)에 대한 다이어그 램,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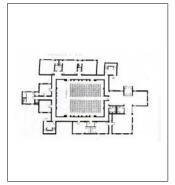


그림 4-17 <제1 유니테리언 교회> 의 중간안, 1961

주목할만한 것은 그가 초기에 계획했던 안과 진행되며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구성 방식의 차이인데, 첫번째 계획안에서는 전체를 규정하는 틀 속에 중심 공간을 둘러싸는 부분이 구획된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이와 반대로 부분의 독자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유니테리언 사상에 따르면 교회와 강당은 하나로 엮어져야 한다.([그림 4-15]) 그러나그는 개념적으로는 통합된 하나일지라도, 어찌됐든 인간의 활동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공간의 성격이 뒤섞여 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림 4-16], [그림 4-17]) 특히 이러한 부분은 독립된 빛과 구조로서 전체의 틀이나 시스템 속에 종속되지 않는 영역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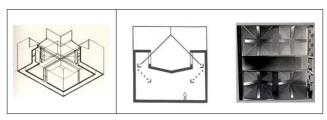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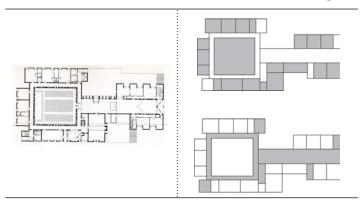


그림 4-18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부분 (left: 단면 엑소노메트릭, right: 빛의 유입. 스터디모델을 통해 본 지붕과 빛)

### 표 4-7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최종안의 평면 구성<sup>138</sup> ; 룸(room)의 영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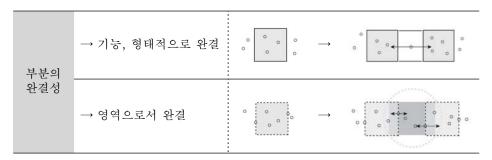
Louis I. Kahn, First Unitarian Church, NY, 1959-69, plan



현대 건축에 있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보다 불특정한 사건들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취한 통합적 방식은, 이의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측면에 그치거나부분들을 혼합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1 유니테리언 교회>를 설계하며 첫번째 계획안 이후에 보인 루이스 칸의 다이어그램([그림 4-16])은, 현재 우리가 취해야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알려준다. 칸은 당시 기계적인 형태주의로 인한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지 못함과 영역성의 부재라는 한계를 인식하였다. 이는 현대에 그 양상이 조금 다를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비슷하게 드러난다. 통합성은, 부분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렇게 부분의 완결성이 기능과 형태로서가 아닌 관계를 갖는 영역의특성으로 확장됨에 따라, 루이스 칸은 영역 사이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다.

<sup>138 &</sup>lt;제1 유니테리언 교회>는 그 구성 방식에 있어, 완전한 '생성적 관점'을 보이진 않는다. 이는 앞서 3.2.3에서도 논의한 바, 루이스 칸이 룸(room)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 순환 체계의 '기계주의적 관점'이, 각 부분 간의 연결을 고려한 '생성적 관점'으로 이행하는 시점의 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유니테리언 교회>의 작업을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림 4-16]에서 보이듯 루이스 칸이 룸(room)을 통해 영역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기때문이다.

표 4-8 영역성의 확보로 인한 사이 공간의 생성 ; 부분의 완결성이 기능, 형태로서가 아닌 관계를 갖는 영역의 개념으로 전환됨으로써, 사이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진다.



#### (2) 영역의 경계: <골덴버그 주택>

현대 건축에의 유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루이스 칸 건축의 핵심은 영역으로서의 룸(room)과 이들의 관계성에 있다. 특히 단지 영역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나아가 이러한 각 영역 간의 발생하는 그 '사이 영역'에 대한 칸의 언급은 현대건축이 통합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디자인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들을 연결 (connections)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떻게든 장소와 장소 사이를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각 부분들 사이를 연결하는 <u>연결 공간(linking space)</u>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곳을 경험할 때 단지 부차적인 장소를 지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 전환(transition)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139

결국 룸(room)으로서 부분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이의 영역, 루이스 칸에 따르면 "연결 공간(linking space)"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는 이러한 경계 공간을 단지 지나가는 부차적 의미 이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계 영역을 타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기

Louis Kahn, "Interview with John W. Cook and Heinrich Klotz: From Conversations with Architects",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chard Saul Wurman, ed. Access press, 1986, p.204

자신이 구체화되는 장소로 파악했다. 흥미로운 점은 루이스 칸이 룸(room)들의 연결을 선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과거 리차드 노이트라가 방들을 연속해서 집합함으로 일련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140 루이스 칸은 이러한 연결 공간(linking space)이 단순히 복도나 문과 같은 경계선으로 인식되는데 나아가, 룸(room)을 공간, 즉 또다른 영역성을 갖는 룸(room)으로 여기며 입체적으로 확장시킨다. 따라서 이곳에 머물수도 있고, 다른 룸(room)으로 향할 수도 있으며, 다시 본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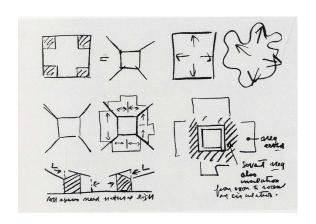


그림 4-19 <골덴버그 주택>의 개념 스케치, 1959 ; 룸(room)의 연결과 사이 공간에 대한 연구

<골덴버그 주택>은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이의 평면 구성상의 작업을 통해 룸(room)의 관계 방식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각각의 룸(room)을 모이게 하는 데 있어 이를 연결하는 공간(linking space)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선이 아닌 면으로 이러한 연결 공간을 그리고 있으며, 따라서 룸(room) 사이의 공간을 단지 복도와 같은 부차적 공간으로 파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up>^{140}</sup>$  Louis Kahn, "An interview by an Indian Team" , ibid., pp.252-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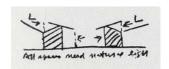


그림 4-20 <골덴버그 주택> 경계 공간의 단면 스케치 ; 룸(room)처럼 빛과 형태를 설 정함으로써 동일한 위계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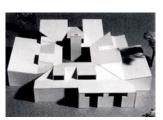


그림 4-21 <골덴버그 주택>의 모델, 1959 ; 경계 공간에 빛이 유입되도록 하는 구조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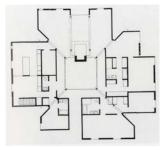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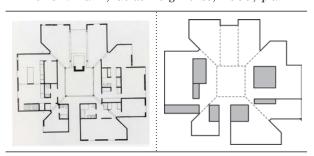


그림 4-22 <골덴버그 주택>의 최종 평면, 1959

### 표 4-9 <골덴버그 주택>의 최종안의 평면 구성 ; 연결 공간(linking space)의 영역성

Louis I. Kahn, Goldenberg House, 1959, plan



[그림 4-20]에서 보이듯 연결 공간(linking space)에도 지붕의 경사를 이용해 빛을 도입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본래의 룸(room)처럼 똑같이 영역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141 또한 [표 4-9]의 평면 구성을 부분과 관계성의 측면에서 도식화한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루이스 칸은 룸(room)들 간의 관계가 단지 문이열리고 닫히는 연결이 아닌, 연결하는 동시에 머무는 장소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원래 룸(room)들을 연결하는 '부차적' 공간이, 그의 <골덴버그 주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목적성만 가진 통로가 아닌, 또 다른 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상황의 다양성을 수용할 여지를 주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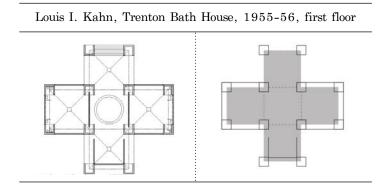
 $<sup>^{141}</sup>$  Louis I. Kahn, "A discussion recorded in Louis I. Kahn' s Philadelphia office in February, 1961",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Alessandra Latour, ed. Rizzoli, 1991, pp. 130–132

소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곳의 머무름을 통하여, 일괄적인 흐름에 따라 부분의 경험을 강요받지 않게 된다. 사용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고, 이전의 장소로 다시 갈 수도 있으며, 아애 그 장소에 머무르게도 하는 것이다.

### (3) 영역의 관계성: <트렌톤 바스하우스>와 <피셔 주택>

룸(room)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하고, 이어 그 사이의 연결 공간(linking space)에도 영역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는 보다 다양한 관계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루이스 칸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이러한 룸(room)을 다양하게 재조합하는 여러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간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양상을 취하는데, 특히 <트렌톤 바스하우스>에서는 완결적 부분들이 갖는 경계의 영역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연결 공간이라는 의식조차 사라지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 간의 경계가 최소한으로 구현되며, 이에 영역이 특정한 중심성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 따라 유동적 중심을 갖게 됨으로써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0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평면 구성 ; 룸(room)의 통합적 연결 방법



구체적으로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평면상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총 4개의 유닛들이 결합된 양상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운데의 연 결 공간과 네 영역이 만나는 지점이, 벽이나 문으로 구획되지 않고 각 모서리마 다 정사각형의 기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속이 빈 기둥(hollow stones)을 가지고 지어야 한다. ...공간의 본성은 그것을 서비스하는 부차적인 공간들에 의해 더욱더 특성화되는데, 특히 창고, 부속실들, 탈의실들은 단일 공간 구조를 구분하는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을 위한 자체의 구조가 따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트렌톤 바스 하우스>가 완성되고, 이후 나는 영감을 위해 다른 건축가를 참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142

루이스 칸은 <트렌톤 바스하우스>를 통해 "봉사하는 공간(serving space)" 과 "봉사받는 공간(served space)"을 처음으로 분리시키게 된다. 143 중공주(hollow column) 자체가 화장실로 사용되고, 또 이의 사용을 위한 지지 구조 속에 설비를 넣음으로써 공간이 기능을 담도록 하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트렌톤 바스 하우스>에서 각 유닛들은, 구조체이자 또 다른 하나의 방이되기도 하는 기둥과 각각을 구분하는 지붕에 의해 영역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루이스 칸의 이러한 경계를 대체하는 방식을 통한 통합적 구성은, 단지 미스반 데어 로에가 모든 경계의 소멸을 통해 통합성을 이룬 바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루이스 칸은 영역 간의 경계가 결국 벽이나 문을 통해 구현될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구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영역의 고정된 중심성을 해체하고 더욱 유동적인 관계 구성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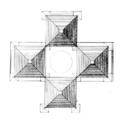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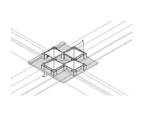


그림 4-23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지붕 모습

<sup>&</sup>lt;sup>142</sup> ed. Heinz Ronners and Sharad Jhaveri, op.cit., p.83

<sup>&</sup>lt;sup>143</sup> 캐네스 프램턴은 이러한 루이스 칸의 작업이, 과거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공간을 구현하며 '억압 (repressed)' 했던 것들이 루이스 칸의 공간 안에서 통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설명한다.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p.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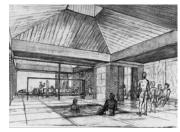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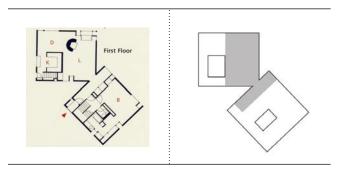


그림 4-24 <트렌톤 바스하우스>의 투시도와 내부 모습, 1955-56 ; 구획하는 벽을 대체한 기둥, 그리고 지붕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동적인 통합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트렌톤 바스하우스>가 실제 기둥을 이용해 구조적인 해결로서 룸(room)들의 관계를 유연하게 연결하였다면, <피셔 주택>에서는 주택의 영역이 이미 벽으로 구현될 수 밖에 없는 성질임을 전재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들의 관계가 통합적으 로 경험되도록 하는 구성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 표 4-11 <피셔 주택>의 평면 구성; 룸(room)의 통합적 연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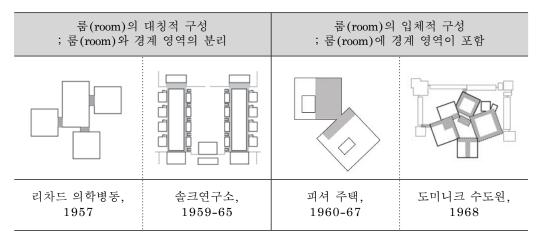
Louis I. Kahn, Fisher House, Philadelphia, 1960-67, first floor



앞서 루이스 칸은 부분을 연결함에 있어 영역 사이의 공간이 단지 부차적인 것이 되지 않고, 또 하나의 머무름이 담길 수 있는 장소로서 부각되도록 하였는데,이에 <피셔 주택>에서는 그러한 관계성이 단지 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에서나아가 각각의 부분이 상황에 따라 입체적 구성을 띄는 전환점을 갖는다. 144

 $<sup>^{144}</sup>$  조은오, Louis I. Kahn 주택 작품의 경계 공간에 의한 영역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2000, p.9

## 표 4-12 룸(room)의 대칭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의 비교<sup>145</sup> ; 각 룸(room)의 비대칭적 구성을 통해 그러한 룸(room)에 경계 영역이 포함되도록 함



평면 구성상에서 룸(room)을 대칭적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비틀어지게 구성된 전환은 상당히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각 영역들이 건축가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배재하기 위해 사용했던 평면 상의 대칭적 구성마저 없앤 것인데, 이는 특히 단지 룸(room)들의 배치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룸(room)에 경계 영역을 물리적으로 통합시킨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대칭적 구성에서는 룸(room)과 이들의 연결 공간이 어느 정도 위계를 갖기 때문에, 룸(room) 사이의 연결이 부차적인 기능을 갖는 요소로 해결되거나 또는 이에 나아가 연결 공간을 또하나의 영역을 갖는 방처럼 구성하는 방법을 보인다. 반면 <피셔 주택>이나 <도미니크 수도원>을 보면, 기존의 룸(room)들이 가지는 영역 내에 그 경계 영역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룸(room)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계 구성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에 포함된 경계 영역 또한 일련의 질서를 갖지 않고 각기 다른 관계성을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입체적 구성 방식을 통해, [그림 4-25]에서 보면 사이 영역의 중심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사용자에 따라 유동적인 영역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심성이 기존의 룸(room) 내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전체 공간이 단절되지

<sup>&</sup>lt;sup>145</sup> 루이스 칸의 실제 평면과 언급 등을 참고해, 룸(room) 사이의 연결공간(linking space)에 명암을 주어 표시, 비교하였다.

않고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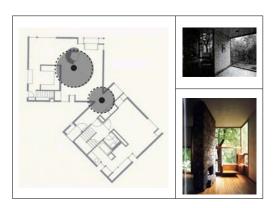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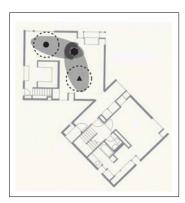


그림 4-25 <피셔 주택>의 유동적인 중심을 갖는 영역성 ; 연결 공간에서 중심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확장하며 각 영역을 통합

또한 <피셔 주택>의 연결 공간 (linking space)에 포함된 난로가 서로 다른 영역의 사용자를 통해 공유되면서, 공통된 관계 영역을 갖는 생성적 관계를 구현하고 있다. <피셔 주택>은 이처럼 건축이 통합성을 이루기 위한 생성적 관계 방식의주요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6 <피셔 주택>의 사람을 통한 상호 관계성 ; 분리된 영역이, 벽난로를 통해 공통된 관계 영역을 가지며 연계됨



# 4.2.3 현대 건축에 있어 룸(room)의 의의

현대 건축이 건축을 통합하는 측면은 주로 형태나 공간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특히 실제 공간 구성과 상관없는 유연한 형태로 귀결되곤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통합적 실체를 내부의 공간 조직으로부터 파악하도록 하였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부분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이 구축되어 가는 관계성을 평면 구성상에서 일차적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이에 부분이전체의 규정된 흐름 속에서 구획, 분할된 양상이거나 아애 그러한 규정성을 거부함으로써 부분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공간 구성에서, 부분을 통한 '영역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대의 양상과 한계가 과거 근대로부터 유사한 파악된 바, 이를 근대의 연속 선상에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루이스 칸은 당시 이러한 공간의 통합성을 위해 모든 경계를 불식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분의 영역(area)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는 아무리 통합된 관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 경험에 있어 영역(area)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러한 영역성은 룸(room)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구현된다. 여기서 영역이란, 단지 형태나 기능으로 완결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닫혀진 방으로서가 아닌 보다 투과적성격의 완결성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역들은 과거 근대의 양상처럼 단지기계주의적 관점에서 나열되는 것이 아닌, 미스 반 데어 로에와 같은 생성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생성적 관계성의 속성과 구현 방식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성적 관계성이 실현되는 바를 크게 세 과정으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부분의 영역성이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구현된 영역이 다른 영역과 경계를 가진 관계 영역을 가지면서 정체성(identity)이 확보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영역 간의 경계를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영역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용자에 따라 영역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되며, 영역을 형성하는 중심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인 점유를 하게 된다. 이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발생하는 것으로

서, 공간의 각 부분은 단절이 아닌 공통된 관계 영역을 갖는 생성적 관계 속성을 보이게 된다.

표 4-13 룸(room)에 의한 생성적 관계성의 구현

생성적 관계성의 구현 과정	→ 루이스 칸의 룸(room)의 형성과 공간 구성		생성적 관계 속성
1. 영역의 형성	→ 영역으로서의 룸 (room)의 물리적 구현	<제1 유니테리언 교회>	
2. 영역의 경계	→ 룸(room)의 경계에 대한 영역화	<골덴버그 주택>	000
3. 영역의 관계 성	→ 룸(room)의 통합적 관계 구성		
		<트렌톤 바스하우스>	하우스>
		<피셔 주택>	

이러한 측면에서 루이스 칸이 룸(room)을 통해 실현한 영역의 형성, 영역의 경계, 그리고 영역의 통합적 관계 방식은, 모호하게 뒤섞이며 통합된 이미지로 구현되는 현대 건축의 한계 속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위하며 발생하는 영역의 구성이 단지 일시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에서는, 오히려 머무름이 부재하게 되며 이때 각 부분이 가지는 정체성(identity)이 모호해

지게 된다. 따라서, 건축에서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일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생성되는 다른 영역 사이의 경계를, 루이스 칸은 이동하는 통로나길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유보적 성격을 부여하며 또다른 영역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지 건축가가 설정한 통합 방식을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확장해 나감으로써 통합적 공간 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통합이란 열리고 관계를 지향하는 태도로서, 건축이 단지 시각적으로 그러한 모습(shape)을 갖추는 데에서 나아가, 실제 사용자가 통합적 관계를 경험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 4.3 현대 건축의 통합적 구성

결국 통합적 구성이라 함이 단지 형태적 유연성의 고려만이 아닌, 이를 실제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앞서 루이스 칸의 룸(room)을 통한 공간 구성 방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부분의 영역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계해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앞서 밝힌 영역성의 구현과 생성적 관계 방식이, 현대 건축의 몇몇 작업에서 드러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대에는 공간 구성에 있어 비경계성으로 인한 영역의 확보가두드러진 양상으로 파악된다. 경계를 단절된 벽이 아닌 경사 등에 의한 정황, 유리와 같은 투명성, 빛을 통한 감각적 구현 등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더욱 예상할수 없이 복잡해지는 삶을 수용하기 위해 그러한 영역들의 관계 또한 규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루이스 칸이나 알도 반 아이크가 행하였던 구성에 비해 영역성이 더욱 비물리적으로 지각된다.

### 4.3.1 현대 건축의 영역성: 비경계적 영역 구성 사례

부분이 단지 기능적으로 닫혀진 방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아애 해체되고 혼합되 버린 양상이 아닌, 충분한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인 이러한 영역은, 현대에 특히 비경계적으로 구현된다. 영역이 있으나, 비경계적 영역인 것이다. 가즈오 세지마 는 이를 "분위기(atmosphere)"로 공간 전체를 통합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는 데,<sup>146</sup> 물리적, 비물리적인 투명성<sup>147</sup>을 이용하여 영역의 경계를 흐리는 것으로서 유리와 같은 재료로 시각적인 비물리화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각적 차원에서 이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이러한 작업에서 루이스 칸을 직접적 으로 논하고 있진 않으나, 이는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관계, 확장하

<sup>146</sup> Blaine Brownell, Matter in the Floating Worl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p.99
147 콜린 로우는 이를 '문자 그대로의 투명성(Literal Transparency)'과 '현상적 투명성(Phenomenal Transparency)'로 나누어 설명한다.

는 루이스 칸의 룸(room)과 상당히 유사한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미쉘 푸코가 언급한 경계성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규정성이란 개체들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된 틀, 곧 각 개체 사이의 연결을 불식시키는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8 곧 경계를 소멸하는일이며, 그로부터 개체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이러한 해체적 특성이, 몇몇 작업에서는 영역의 모든 물리적 구현을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영역성을 가지면서 이들의 통합적 관계를 유도하는 연결 방식에만 작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역(area)은 가지되, 다른 영역 간의 관계에 있어 경계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루이스 칸은 이러한 경계를 유연하도록 '보이는'일 이전에, 영역의 경계를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실제 사용자의 경험과 직결시켰다. 곧 벽을 인지하지 않도록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기존 영역에 경계 영역을 아애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역을 발생시키는 중심성이유동적으로 확장하는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 (1) SANAA와 <플라워 하우스>

<플라워 하우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유연하고 투명한 모습으로써, 공간이 어떠한 경계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플라워 하우스>의평면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각 기능을 가진 영역의 표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알 수 있는데, 가즈오 세지마가 공간의 모든 경계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것이 아니라, 영역성이 유지된 채 그 영역들 간의 관계를 비경계적으로 구현하는데에 관심이 있었음을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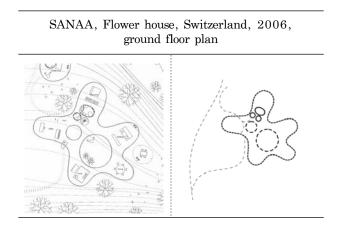
<sup>&</sup>lt;sup>148</sup> 미쉘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3, p.146



그림 4-27 <플라워 하우스>의 평면 다이어그램

즉, 가즈오 세지마는 기능을 가진 단위로서 부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이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리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주어진 전체의 시스템에 따라 배치, 나열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상황과 주변의 맥락을 따라 자리를 잡고, 주변과 관계성을 구현해 나간다. 마치 앞서 <트렌톤 바스하우스>가 보인 것처럼 영역 사이의 경계가 소멸됨으로써, 영역이 가지는 중심성은 상당히 유동적인 속성을 띄게 되며 생성적 관계성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방이가지는 중심성은 위치적으로 그 중심에 있을 수도, 다른 영역을 향하는 사이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표 4-14 <플라워 하우스>의 평면 구성



흥미로운 점은 앞서 자하 하디드의 <LF 1>에서 보인 통합적 구성이 단지 외부의 형태와 동선 흐름에서만 고찰되어, 오히려 부분 간의 경계가 더 견고해진 것과는 달리, 가즈오 세지마의 <플라워 하우스>에서는 통합성이 시스템이 아닌, 부분 간의 관계 방식을 다루는 작업으로 이행되면서, 오히려 보다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표 4-15 <LF 1>과 <플라워 하우스>의 초기 다이어그램과 평면 구성 비교 ; 초기 다이어그램에서 <LF 1>은 유연한 형태, <플라워 하우스>는 영역으로부터 출발 결과는 반대로 <LF 1>은 부분이 구획, <플라워 하우스>는 부분이 통합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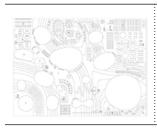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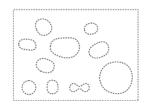
## (2) <롤렉스 교육센터>

부분의 영역성을 비경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이를 물리적으로 불식시키는데에 나아가 보다 입체적 구성으로 영역성과 비경계성을 함께 구현하는 양상을 <롤렉스 교육센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캠퍼스 내 <롤렉스 교육센터>는 88,000m²의 대지 위에 펼쳐진 연속된 단일 건축물이다. 즉,특정한 벽의 구획 없이 전체 공간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영역을 구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던 '벽'을 상실시킨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구분이사라진 가운데, 단지 이들이 모호하게 합쳐져서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닌, 바닥을 경사지게 함으로써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도록 한다.

### 표 4-16 <롤렉스 교육센터>의 평면 구성 : 벽을 없애고, 바닥의 굴곡과 파티오로써 영역성을 확보함

SANAA, Rolex learning center, Japan, 2007-10, ground floor plan





유연한 흐름으로 모든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 가운데, 그렇다고 각 영역들이 구분 불가능한 교배 상태가 아님은, '바닥의 경사'로서 이의 영역성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이다. 벽을 두지 않고도 한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4-28 바닥의 굴곡을 통한 영역성의 확보

이러한 바닥의 경사로 생겨난 층고의 변화를 통해 공공적 공간과 더불어 소리를 차단한 조용한 공간도 갖추고 있다. 소규모 그룹이 작업이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버블', 곧 유리로 분리한 공간도 있다. 다양한 차원의 14개의 공간과 더불어, 파티오라는 매개 공간을 통해 또다시 바깥과 관계할 자리가 마련된다. 149 결국 부분은 서로 해체되어 혼합되지 않으며 전체 속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경사를 통해 각 부분이 설명되며, 유연한 전체는 통합적 실체를 드러낸다. 현대의<물렉스 교육센터>를 통해 드러나는 영역성은, 앞서 칸이 룸(room)을 통해 보

<sup>149</sup> 다음 책 참고. Rolex Learning Center, EPFL Press, 2010

인 '둘러싸임'이 실제 물리적 형상보다는 보다 관념적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즉, 비경계성이라는 것이 영역들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측면이라기보다, 감각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가즈오 세지마는 이를 "분위기(atmosphere)"로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바닥의 굴곡이나, 유리의 사용, 영역 사이에 일부 창을 내는 방법 등을 통해 경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보이도록 하여 공간 전체의 통합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 (2) UN Studio와 Distortion

앞서 <롤렉스 교육센터>는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된 공간의 영역성을, 바닥의 굴곡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는 경계를 보다 비물리적으로 구현하려는 의도이며, 이로써 각 부분은 보다 관계성을 향해 열리는 구조를 갖게 된다. UN Studio는 부분의 관계성에 있어, 공간 자체를 '디스톨션(distortion)' <sup>150</sup>하는 방법을 통해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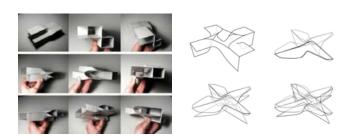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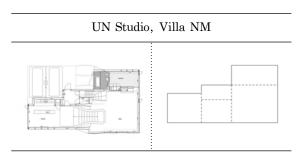


그림 4-29 UN Studio 의 디스톨션(distortion) 작업 (left: Villa NM, right: New Amsterdam Plein & Pavilion)

바닥이나 천장 등의 일부 요소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애 공간 자체를 변형시킴으로써 생성된 굴곡으로 각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Villa NM>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sup>&</sup>lt;sup>150</sup> 실제 UN Studio가 "디스톨션(distortion) 작업"이라 명한 것은 아니며, 그들이 하나의 공간을 여러 기능으로 분할하는 변형 작업에 있어 구축 방법을 설명하며 빈번하게 썼던 표현이다.

표 4-17 <Villa NM>의 평면 구성



두 상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디스톨션(distortion)' 됨으로써 어떠한 구분도 없던 하나의 공간에 영역성이 확보되었다. 내부에 특정한 벽의 구획을 최대한 없애고 공간의 유연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공간에 기능에 따른 구획이 있으나 이러한 단절성을 인식하지 않도록 '없는 것처럼'보이게 된다. 또한 이는 외부의 영역까지도 생성하게 되었는데, [그림 4-31]에서 보이듯 디스톨션(distortion)되며 생긴 주차장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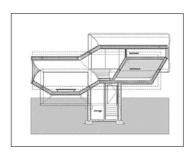


그림 4-30 <Villa NM>의 단면 모습









그림 4-31 <Villa NM>의 모습 (up: 외부 모습, below: 내부에서 각 영역의 연결 모습)

# 4.3.2 "Availability" 을 포함한 관계성 사례

부분이 전체의 흐름이나 시스템 속에 구획되는 양상의 극단에서는, 연관성 없는 부분의 나열로 이러한 각 부분이 고립되어 관계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반대로 그러한 부분의 모든 규정성이 사라진 공간에서는, 부분의 머무름이 사라진일시성만 남게 되었다. 결국 이의 극복은 부분이 가지는 진정한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과거 루이스 칸은 이렇게 확보된 부분 간의 연결에있어, 건축가의 의도보다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도록 하였다. 즉, 연결을 선이 아닌 면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경계가 단지 통로가 아닌 또 다른 영역성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후지모토 소우는 부분이란 단지 방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들의 '관계'에 관한 것<sup>151</sup>이라고 언급한다. 그가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각 영역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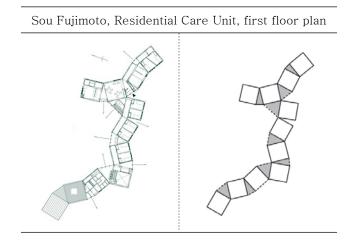
<sup>&</sup>lt;sup>151</sup> 후지모토 소우,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정영희 역, designhouse, 2012, p.191

에 또다른 영역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 가능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용자는 이미 지어진 건축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공간 전체의 통합적 관계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1) 후지모토 소우의 <Residential Care Unit>

건축의 질서가 외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적응하는 부분의 관계성 그 질서로부터 시작되도록 한다. 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네모지게 갇힌 방, 큐브의 부품으로서 이의 나열과 합으로 전체를 만드는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후지모토 소우의 <Residential Care Unit>은 부분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 이러한 방들의 '관계'에 집중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때, 전체를 결합하는 커다란 구조가 아닌, 각 개별적 부분들의 관계성이 주가 된다. 152

표 4-18 <Residential Care Unit>의 평면 구성 ; 부분 사이의 연결에 영역성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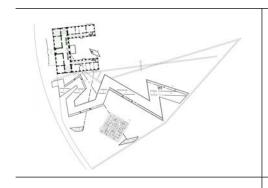
 $<sup>^{152}</sup>$  ibid., p.25

실제 [표 4-18]의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각 부분들 사이의 공간에 또다른 영역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징검다리를 건널 때, 한 돌에서다음 돌로 가야하는 필연성을 중화시키고 있는 장치이며, 그 사이에 '머뭄'으로써 다음 방으로 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아애 다른 방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대 건축에서는 과거 루이스 칸이이러한 연결 공간(linking space)을 영역화 했던 것이, 보다 적극적인 관계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고정된 형태이기보다는 유리창이나 문 등으로 내부로부터 외부를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밖을 향해,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다른 부분의 영역들과도 관계할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유보 공간의 확장을 통해, 건축이 땅에 놓이는 전체를 더욱 확장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된다.

### (2) <무사시노 도서관>

<무사시노 도서관>은 공간을 통합시키는 방식에 있어, 단지 일련의 흐름을 구성하고 그 흐름을 따라 영역을 구분하는 양상을 극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칸이나 아이크가 비규정된 상태로부터 영역성을 확보해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미 가시화된 흐름 선상에서 영역을 구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는 앞서 현대 건축의 <LF 1>처럼 전체를 지배하는 유연성이 형태와 일괄적 흐름으로 귀결되는 방식을 극복한다. 전체의 통합적 흐름이 단지 형태에 국한될 경우, 각 부분의 영역성은 그에 따라 구획, 나열될 뿐이다. 공간을 전체로 통합하면서 각 부분의 완결성이 구획이 아닌 실제의 행위가 담기는 영역성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사시노 도서관>에서는 형상화된 시스템의 일부를 불식시키기에 이른다. 이는 현대 건축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태인 박물관> 작업에서, 건축가가 구현하려고 하는 전체 흐름을 형상화하고, 이에 따라 부분의 영역이 방으로서 구획되는 양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 표 4-19 전체 흐름이 부분의 영역성을 만드는 평면상의 차이 비교 (left: 다니엘 리베스킨트, 유태인 박물관, right: 후지모토 소우, 무사시노 도서관)



전체 흐름의 형태화 → 내부를 구획함으로써 부분 형성 → 기능으로 완결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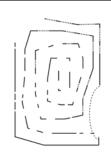
전체 흐름의 형태화 → 일부를 상실시킴으로써 부분 형성 → 영역성과 유보 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무사시노 도서관>은 부분이 그 흐름을 따라 구획되는 양상이 아니다. 전체의 연속적인 흐름 선상<sup>153</sup> 가운데 흐름의 일부를 불연속적으로 만듦으로써 그 사이 에 머무름을 허용하였다. 연속된 흐름의 일부를 불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보 공간이 생성되었다. 전체의 흐름과 부분이 강요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는 흐름을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장소성을 재구현 할 수 있게 된다.

표 4-20 <무사시노 도서관>의 평면 구성

Sou Fujimoto, Musashino Library, ground floor plan





Sou Fujimoto, Primitive Future, INAX, 2009,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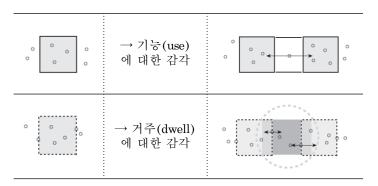
<sup>153 &</sup>quot;form of spiral"

현대 건축에서 전체의 맥락이 가시적인 선상에서 드러날 때, 오히려 구현되는 형태와 흐름에 집중함으로써 부분은 그 안에 종속된 상태로 구현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면서 실제 그 부분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전체 속에서 배치되어, 부분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은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반대로 아애 흐름적 요소만 강조되어서 영역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무사시노 도서관>은 가시화된 흐름 선상에서, 부분이 어떻게 영역성을 확보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확보된 영역들은 전체의 흐름에 귀속되지 않고, 스스로 다방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을 갖게 된다.

# 4.4 소결

현대 건축의 통합적 양상은 유연한 형상과 흐름을 구현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소통을 지향하며 공간을 하나로 엮고자 하는 이러한 통합적 추구가 단지 분위기, 형태상의 문제로 논의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의 실제 공간 조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부터 그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결 과적으로 이는 과거 근대로부터 연속된 선상에서 다뤄질 문제이며, 특히 당시의 양상에 대한 한계의 극복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에도 유효할 것이라 판단하였 다.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이 일련의 시스템이나 흐름에 종속될 때, 이는 각자의 자율성 없이 위치, 크기, 역할이 규정된 양상이게 된다. 반면 이러한 규정성이 모 두 소멸되어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고 흐르도록 하는 공간에서는, 충분한 머무름 이 확보되지 않고 일시성만 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루이스 칸이 부분을 룸(room)으로서 보고 이를 구성한 방식을 논의하며, 특히 영역성이 룸(room)이 라는 물리적인 실체로 구현되는 방식과 사용자의 유효성(availability)을 고려한 생성적 관계성에 집중하였다. 특히 루이스 칸의 이러한 작업을 생성적 관계성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정하는 속성에 따라 크게 영역성이 물리적 으로 구현되는 바, 경계의 형성, 그리고 영역 간의 유동적인 관계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루이스 칸은 두 부분을 통합시키기 위해, 단지 물리적으로 합치기 이전에 오히려 이들의 영역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때의 영역이란, 단지 기능(use)으로 닫혀진 방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장소에서 경험하는 거주(dwell), 곧 장소성에 대한 감각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부분의 영역을 구축하는 차이



또한 이러한 영역이 구성되는 방식은 단지 이곳에서 저곳을 향하는 선적인 연결이 아닌, 룸(room)과 같이 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루이스 칸의 언급에 의하면 이러한 '전환(transition)' 하는 장소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sup>154</sup>인데, 단지 연결하는 통로이기보다 사용자가 각 영역성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유보적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그가 룸(room)의 영역성을 구현하며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빛과 기하학적 형태성이 이러한 연결 공간(linking space)에도 그대로 구현되며, 그는 연결 공간을 또다른 영역으로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계의 영역화를 통해 행위가 발생하는 중심이 고정적이지 않고 더욱 유동적인생성적 관계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루이스 칸은 이러한 영역을 더욱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람이 주체가 되는 통합적 관계 영역을 형성하는 데에 이른다.

앞서 언급한 현대 건축의 양상 속에서, 이러한 룸(room)의 영역성과 사용자를 기반한 관계성에의 고려는 상당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 특히루이스 칸이 구현했던 방식이 현대 건축의 몇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현대의 영역성은 완결적 속성을 보다 비경계적으로 드러낸다. 즉, 경계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보이게 하는 것이다. 벽의 구획을 없애고 바닥의 높낮이를 이용한 경계의 비물질화를 실현하며, 아애 공간 자체의 변형을 통해 형성된 굴곡으로 각 영역을 분리시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존

Louis Kahn, "Interview with John W. Cook and Heinrich Klotz: From Conversations with Architects",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chard Saul Wurman, ed. Access press, 1986, p.204

의 현대 건축의 공간을 조직하는 일이 단지 물성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이미지로 구현하는데 집중된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건축가가 의도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 도록 하는 시각적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후지모토 소우의 작업은 실제 사 용자의 선택을 허용하는 유보적 성격을 부분 간의 연결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관계 영역을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 5 장

# 결 론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공간 및 형태 생성에 있어 두드러지는 핵심 화두가 바로 통합적 개념이다. 통합적 건축을 구축하는 일은, 곧 연합하고 관계하도록 하는 의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의 근간에는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곧 부분이 상호 작용하며 관계해 나가는 하나의 조직적 체계를 통해, 단지 형태상의 유연성이나 이미지로서 파악되는 통합적건축의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무엇보다 '부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부분이란, 단지 건축가가 형태상으로 구획한 방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영역(area)'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주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논의가 단지 감정이나 효과와 같은 형이상학적 관점에 머물지 않고, 행위가 실제 구현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다. 건축가가 그리는 관계의 모양 속에서는, 실제 경험하는 사람과 공간 사이에 괴리가 남게 된다. 결국, 영역으로서의 부분이 실제 다른 부분과 관계하는 자체의 구현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통합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구현되는 통합에의 관계성을 '생성적 관계성'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갖는 구체적 속성을 5가지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러한 속성은 부분이 관계성을 이루는 데 있어 크게 3단계의 구현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첫째는 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의 물리적 구현이며, 두번째는 이러한 구현된 영역성이 다른 영역으로부터 경계가 형성되고 그 경계 또한 영역화하는 과정, 그리고 세번째로 각 영역의 입체적 구성을 통한 경계의 중화를 통해 공간의 각 부분들이 통합적인 관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통합적 양상은 근대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종(種)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 건축 운동 을 시작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의 차이를 살펴보며 현대에서 발 생하는 한계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유사하게 발생한 바, 이에 보다 다른 계층에 서 부분과 이들의 관계성을 논의하였던 루이스 칸에 대해 고찰하였다.

루이스 칸은 건축의 시작을 룸(room)이라 언급하였다. 룸(room)이란 단지 단혀진 방임을 넘어서, 중심성을 가지며 열린 구조로 파악된다. 이전의 근대 대부분의 양상은 일련의 시스템이나 흐름에 이러한 부분이 종속되는 것이었다. 또한이는 모든 규정성을 소멸시켜 보다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도록 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부분 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통합하려는여러 양상 가운데, 루이스 칸은 오히려 계속해서 룸(room)을 언급하며 이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5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룸(room)이 단지 전체 속에서 구획된 기능을 가진 방으로 역할함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영역을 가진 형상(form)으로 실체화되며 공간 구성을 시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 칸의이러한 작업 선상에서 특히 현대에 유효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 바, 이에 영역성을 물리적 실체로 구현한 룸(room)의 구성 방식과 이들의 관계가 사용자에 기반한 유보 공간으로 형성됨에 집중하였다. 연결 공간(linking space)은 그 자체로 영역성을 갖는 또다른 룸(room)이 되면서, 이러한 영역 안에서 사용자는 일괄적선택을 유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유동적 공간 경험이가능하게 된다.

루이스 칸의 이러한 영역성의 구현은, 유연한 형태와 흐름으로 관계를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부분이 모호하게 혼합된 양상 속에 목적없이 부유하게 되는 현대 건축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삶의 패턴속에서, 현대 건축은 이의 통합적 공간 구성에 있어 곧 사람의 행위를 수용하는 '영역성'의 물리적 구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각 영역의 경계에서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유보적 성격을 통해, 현대에 유효한생성적 관계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대에 보이는 영역의 비경계적 특성은, 경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구현하는 것인데, 이를 단지 시각적 측면이 아닌, 과거 루이스 칸이 각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실현한 경계의 중화방식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은 건축가와 그의 작품을 해석할 때에 단지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함을 넘어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하는가 하는 일련의 틀로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이를 평면 구성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범위를 평면 구성상으로 한정 짓고 특히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분석틀을 적용한 것은 이를 단순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부분을 인식하고 관계하는 방식에 있어 속하는 범위를 일차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함이었다. 기존의연구에서 각 건축 작업에 따른 개별적 연구가 행해지긴 했으나, 본 연구를 통해부분이 형성하는 통합적 구성 방식을 일련의 기준으로 파악, 분류해 볼 수 있게된다. 그러나 예를들어 부분의 완결성이 기계주의적 관점으로 형성되는 바와 반대로 생성적 관점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차이를 이러한 분석 틀이 보이는 범위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구체적 양상은 논문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가 더욱 세밀한 스펙트럼으로 가시화되는작업과, 이로써 현대에 유효할 생성적 관계성을 좀 더 확장된 양상으로 구현해볼 것을 후의 연구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바이다.

# 참고문헌

# a. 단행본 (국내)

하인리히 뵐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형 역, SIGONGART, 1994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김호균 역, 그린비, 2007 요시노부 아시하리, 건축의 외부 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2005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철학대사전, 동녁, 1994 최종덕,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소나무, 1995 존 로벨, 루이스 칸: 침묵과 빛, 김경준 역, 미건사, 1992 노베르그 슐츠,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85 데카르트, 방법서설,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2006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박영민 역, 한울, 1994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김용준 역, 지식산업사, 2005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미쉘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3 Andrew Ballantyne, 건축과 철학: 들뢰즈와 가타리, 송규만,장정제 역, Spacetime, 2010 르 꼬르뷔제,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후지모토 소우,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정영희 역, designhouse, 2012

### b. 단행본 (국외)

Christian Norberg-Schulz, Kahn, Heidegger and Language of Architecture, Oppositions, Fall 1979:8

Rem Koolhaas, Junkspace, The Architect's Architect in the Architect's Time, New York Times Magazine, 2000

Sarah Williams Goldhagen and Rejean Leault, eds. Anxious Modernisms: Experimentation in Postwar Architectural Culture, MIT Press, 2000

Cynthia C. Davidson, ed. Anybody, MIT Press, 1997

Bill Hillier,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Karsten Harries, The Ethical Function of Architecture, MIT Press, 1997

Kent C. Bloomer, Charles W. Moore,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1977

K. Michael Hays, Modernism and the Posthumanist Subject, MIT Press, 1995

K. Michae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2000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80

Kenneth Frampton, Le Corbusier, Thames&Hudson, 2001

Thomas S. Hines, Richard Neutra and the search for modern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Stanislaus von Moos, Elements of a Synthesis, The MIT Press, 1979

Eric Mumford,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The MIT Press, 2000

Alison Smithson, ed. Team 10 Primer, The MIT Press, 1968

Fritz Neumeyer, ed. The Artless Word, MIT Press, 1991, p.246

Detlef Mertins, ed. The Presence of Mi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Vincent Ligtelijn and Francis Strauven, eds. Aldo van Eyck Collected Articles and Other Writings 1947~1998, SUN Publishers, 2008

Vincent Ligtelijn, ed. Aldo van Eyck Works, Birkhauser, 1999

Francis Strauven, ed. Aldo van Eyck: The Shape of Relativity, Architectura&Natura, 1998, p.264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Rizzoli, 1993

Richard Saul Wurman, ed.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Access press, 1986

Peter Kohane,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VIA

Alessandra Latour, ed.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1991

Michael Merrill, Louis Kahn on the thoughtful making of spaces, Lars Muller publishers, 2010

Michael Merrill, Louis Kahn-Drawing to find out: The Dominican Motherhouse and the patient search for architecture, Lars Muller Publishers, 2010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spirit in the architecture of Louis I. Kahn, 1979

Heinz Ronners and Sharad Jhaveri, eds.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1974, Birkhauser, 1977

FOA, Phylogenesis: FOA's ark, Actar, 2004

Blaine Brownell, Matter in the Floating Worl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Rolex Learning Center, EPFL Press, 2010

Sou Fujimoto, Primitive Future, INAX, 2009

### c. 연구 문헌

- 서정일,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과 미국현대도시건축, 2011
- 김낙중, 루이스 칸 건축 구조에 나타나는 '공간 구조의 가시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v.17 n.07, 2001
- 이승용, 건축장에서 부분과 전체 개념 및 건축 이해의 적용 가능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 합회 논문집, v.09 n.02, 2007
- 한지형, 루이스 칸 건축의 공간 구축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유정호, 질 들뢰즈의 '생성 혹은 되기'개념을 통한 현대 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석사논문
- 서정일,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빛이 '룸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논문, 1997
- 민치윤, 르 코르뷔제 건축의 '흰 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오광석, 전후 CIAM의 거주개념과 개별성 논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21  $n.05,\ 2005$
- 정황기, 미스 반 데 로에의 '명확한 구축(clear construction)'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김광현, 루이스 칸(4): '방(room)', 44개의 개념으로 읽는 현대 건축 19, 대우건설 기획 연재, 2000
- 김광현, 루이스 칸 건축형태의 중심성에 관한 연구, 1985
- 조은오, Louis I. Kahn 주택 작품의 경계 공간에 의한 영역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논문, 2000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parts' to generate architectural space

Seon Gyeong, Baek 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Master Dissertation
Dep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out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a concept of integrating space and form has been a crucial topic in architectural field. Such pursuit of the integration is based on efforts to reduce absences of amiable relationships in nowadays society where the effects of standardization and mass-production engendered a less communicative environment.

Constructing integrated architecture is empowered by a social will to engage people to unite and create a sociable community. Thus,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uctural parts that constitute a building need to be considered. Differences in integrated architectures that are merely perceived as formational flexibility or images can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ctions between these structural parts in a single organizational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a physical aspect rather than relying on senses or metaphysical perspectives. First, a perspective from plan is examined because it is place where architect first realize spacial parts. In contemporary period, the way integrity is realized is complex and it shows flexible shape and flow. It is not a pure invention of contemporary period, but is a regeneration of an old form in today. This study tries to recognizes parts and differences in relationship beginning from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also to realize a future direction after examining relationships and limitations occurred when contemporary architecture attempt to imitate ways practiced in Modern period.

Before further examine specific aspects, one must answer a question: what defines parts? The part dealt in this study is not meant a mere formational room but a practical area in which people independently act. This area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n enclosed area by walls or barriers but an area surrounded by its neighboring environments with a harmonious relation.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hen discussing people as principal agent, a metaphysical perspective such as feeling or effects should be avoided but in a dimension where action is practically realized. There is a gap between a space and a person who actually experiences in an architect's mind. Consequently, users can experience a more practice integration through realiz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parts as territory and other parts. In this study, relationship of integration from this analogy is called "generative relationship" and its specific properties and realization of these properties are examined. The word "generation" used in particular phrase seemed very much coincide with words "generation" and "becoming" that Gilles Deleuze mentioned. However, generation of parts discussed in this study, with a temporary and fluid characteristic, means a relationship in which each identity is kept undamaged.

Along with Le Corbusier, CIAM is a core factor in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While CIAM was performing tasks to accept many complicated social aspects and when creating space to resolve this issue, one can readily discover that CIAM is recognizing importance of parts. Moreover, this part, in system or flow, is not perceived as liberated but rather subordinated. Consequently, it is not generation of part itself, but rather fixed as function or shape. In contrast, Mies van der Rohe asserted that the modern architectural aspect is not universal but a mere generalization of specifics into totalitarianism and the real universality is in objectivity formed by the least amount of regulation. This opinion is well revealed through Mies' expression of space in plan. He begins with a complete denial of all regulations exhibited in modern architecture and he included all situations to be infinitely expanding and flowing space.

Through continuous contemplation of "room", Louis I. Kahn made it possible. Kahn emphasized that a space formation consist of his room is different the ones with Corbusier and Mies' use of space. That is, a new, innovative totalitarian aspect in modern period eventually resulted in shaping rooms and denied a series of system and flow. Even area as a minimum unit had disappeared in Mies' space where fragmented parts seemed to form temporarily. Khan's "room" does not simply have functions but has a center when communication take place. It is a sense of dwelling. Also, everything is broken up and not unfolded, but surrounded in this plac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n effective point in consideration of Kahn's work Especially, the study focused on generative property it can attain through physical realization of area by room and their relationship based on user is formed as a reserve space.

The present day architecture is a place where a materialistic background moves us and also gives or take away a space to stay, mak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e. Thus, through parts that consist of space and an integrated methodological study based on contemplation of their relationship, we can infer an experience constructed from generative relationship which led us to an expectation of true communication.

Keywords: part, area, relationship, integration, identity, availability

Student Number: 2011-20593

# 감사의 글

의미있는 논문을 써보겠다며 당찬 마음으로 연구실의 문을 두드렸던 지난 겨울 날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연구의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스승님, 그리고 훌륭한 동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 다. 작게나마 이 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스승님이신 김광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실에서의 지난 날들은, 지식적인 공부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안의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깨끗해진 그릇에 더 좋은 것을 담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제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수업 중 남몰래 눈시울을 붉힌적인 많았습니다. 그저 평소대로 하신 강의이실 뿐인데, 지치고 답답할 때마다 교수님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내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언제나 강건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백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삶에 대해 깊이있게 통찰하시는 교수 님의 수업과 논문을 통해, 본 연구의 근본적인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인 심사와 지도를 해주신 김승회 교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방향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섬세하게 지적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학부 교수님들께서는, 건축에 첫발을 내딛으며 제가 때론 흔들리고 길이 샐지라도, 무조건 곧은 길만 옳은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계 수업의 절반 이상을 지 도해 주셨던 박길룡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건축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즐거움은 제게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는 데 동기를 주셨던 봉일범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배우고 따 르고 싶은 교수님, 부족한 제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믿어주시 고 응원해주셨던 장윤규 교수님, 이공희 교수님, 그리고 늘 아버지같이 따뜻한 격려 를 주신 이사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실 동료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들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논문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틈틈히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혜진 박사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학업에 있어 많은 것을 배웠고, 더불어 삶에 대해 주신 많은 조언과 격려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남지현 박사님의 조언은 항상 제가 못보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기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해주셨던 김현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던 1학년 시절, 친언니처럼 어르고 달래주며 지도해 주셨던 이윤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김승범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웃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오상은 박사님, 박미예 박사님, 롱 박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논문을 마무리한 동료들께 감사합니다. 소람언니, 지은언니, 태훈오빠 모두 수고하셨어요! 소람언니, 무엇보다 마음 따뜻한 언니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있었어요. 섬세하게 배려해주고 챙겨주신 지은언니, 감사해요. 태훈오빠와 함께 할수 있었던 시간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각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소중한우리 동기들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 혜미, 너의 응원이 항상이곳 관악산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마음 따뜻한 민서, 영재오빠 고맙습니다. 미리 졸업한 선배님들, 바다언니, 미주언니, 은혜, 백홍오빠, 유미, 혜민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후배들, 종훈, 선영, 정희, 아람, 희원이. 논문쓰는 선배들 위해 애써주고도와주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가족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족한 딸을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격려와 헌신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논문이 마무리되지 못했을 겁니다. 선주, 지연이에게도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최고라 믿어주고,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하와 주찬이를 통해 진정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곳에서 저의 사명을 잘 세우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느헤미아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듬으며,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작임임을 실감합니다. 길갈의 돌이 세워지고, 이제 더 큰 땅으로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큰 것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아간다는 든든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단지 제가 연구한 지식적 결과임을 넘어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격려, 위로, 사랑이 베어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갈 땅에서, 저 또한 배운 바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백 선 경 드림